



# 정답과 해설





1 문학과 삶

(1) 문학의 기능과 가치

1 봄눈 오는 밤

내용 확인 문제

본문 10~11쪽

01 ②    02 ③    03 해설 참조

01 3연에서 '눈송이들이' 나무의 '감은 눈'에 입맞춤하러 줄달음치다고 함으로써 '감은 눈'의 아름다움에 감탄을 드러내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화자가 연민을 느끼는 모습은 드러나 있지 않다.

③ 화자가 과거를 성찰하는 모습은 나타나 있지 않다.

④ '봄눈'은 화자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대상으로, '봄눈'의 부정적인 면은 나타나 있지 않다.

⑤ '봄눈'은 화자가 현재 관찰하고 있는 심미적 대상일 뿐, 화자가 기대하는 미래의 모습을 담고 있는 것은 아니다.

02 이 시에는 의성어, 의태어와 같은 음성 상징어가 나타나 있지 않다. 이 시에서는 시간적 배경인 '밤'이 고즈넉한 분위기를 고조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감은 눈'의 '눈'의 의미가 '봄눈에 덮인 나무의 눈'과 '새로 막 터져 돌아나려는 나무의 싹을 뜻하는 눈'으로 중의적으로 나타나 시의 의미를 확장하고 있다.

② 이 시에서는 나무가 눈을 감고 있다고 의인화하고, 더불어 중의적인 표현을 통해 나무의 감은 눈의 아름다움을 예찬한다.

④ '나라도 그럴 것이다', '오, 네 예쁜, 감은 눈'에서 나무의 '눈'과 '퍼붓는 봄눈'에 대한 감탄을 느낌표와 감탄사를 통해 드러내고 있다.

⑤ '너, 아니?'라고 나무를 청자로 설정하여 부름으로써 주위를 환기시키고 있다.

03 [예시 답안] '감은 눈'은 '눈'이 감각 기관인 눈을 의미할 때는 나무가 봄눈에 덮여 있는 모습을 의인화한 것이며, '눈'이 나무의 싹을 의미할 때는 봄을 맞아 싹틀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로 해석할 수 있다.

[출제 의도 및 해설] 시어의 의미에 따라 시구의 해석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이해하는 문제이다. <보기>에 제시된 '눈'의 두 가지 의미에 따라 '감은 눈'의 의미 또한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

평가 기준

평가 기준	배점
㉠을 '눈(目)'으로 볼 때, 나무가 봄눈에 덮여 있는 모습을 의인화한 것임을 해석한 경우	2
㉠을 '눈(芽)'으로 볼 때, 곧 싹을 내밀 상태, 싹을 틔우기 전의 상태로 해석한 경우	2
<보기>에 나타난 ㉠의 두 가지 해석을 자연스러운 한 문장으로 쓰지 못한 경우	-1

2 19세

내용 확인 문제

본문 16~24쪽

01 ②    02 ③    03 ⑤    04 해설 참조    05 ⑤  
06 ③    07 ③    08 ①    09 ④    10 해설 참조  
11 ①

01 ②는 주인공 '나'가 학교를 그만두고 농사짓는 일로 아버지와 갈등을 빚는 내용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②에서는 서술자 '나'의 상황에 대한 설명과 인물 간의 대화를 바탕으로 내용을 제시하고 있을 뿐 인물의 행적을 요약적으로 제시한 부분은 찾을 수 없다.

③ ②에서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건을 제시하고 있다.

④ 서술자는 '나'로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다.

⑤ 장면의 빈번한 전환은 나타나 있지 않다.

02 '나'는 석중이 아저씨가 다른 사람에게 해도지를 넘기기 전에 농사짓기를 허락받으려 하고 있을 뿐, 아버지보다 석중이 아저씨를 의지하는 것은 아니다.

오답 풀이 ① "그러면 또 집 나가고 말 거라구요."라는 '나'의 말에서 '나'는 이전에 가출을 한 적이 있음을 알 수 있다.

② "저는 학교에 이제 안 다녀요. 지금까지도 억지로 다녔던 거라구요."라는 말에서 '나'는 학업을 이어가는 일에 관심이 없음을 알 수 있다.

④ '나'가 아버지에게 피가 튀도록 매를 맞더라도 학교를 그만두고 농사를 짓겠다는 의지를 꺾지 않는 것에서 고집이 세고 타협하지 않는 성격임을 알 수 있다.

03 '나는 하루라도 빨리 어른이 되고 싶었다. 그때 내게는 농사만이 나를 그렇게 해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라는 부분에서 '나'는 어른이 되는 수단으로 농사짓기를 선택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나'가 생각하는 어른은 나이와 상관없이 일로써 자기 경제권을 가진 사람이므로, 결국 '나'는 경제권을 가진 어른이 되기 위해 농사를 짓고 싶어 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오답 풀이** ① '그 나이에 농사를 짓는 일에 매력을 느꼈다가보다는'에서 알 수 있듯이 '나는 농사에 뜻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
- ② '나는 부모님을 돕기 위해서가 아니라 어른이 되기 위해 농사를 짓고자 했다.
- ③ 화투를 치는 것은 어른이 할 수 있는 행위 중 하나로 제시된 것일 뿐이다.
- ④ '내가 형보다 돈을 먼저 번 것은 맞지만 형보다 먼저 벌기 위해 농사를 지은 것은 아니다.

**04 예시 답안** 농경 사회에서 어른은 나이와 상관없이 일로써 자기 경제권을 가진 사람이다.

**출제 의도 및 해설** 이 글에서 '나'가 생각한 '어른'의 의미를 파악하는 문제이다. '나는 어른의 조건이 나이와 상관없이 일로써 자기 경제권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고 있다. 어리지만 농사를 지어 경제권을 가진 '나는' 어른이고, 군대 제대 후에도 용돈을 받았던 형은 아이지 돈을 버는 어른이 아니라고 여기는 것에서 이 점이 잘 드러난다.

**평가 기준**

평가 기준	배점
'자기 경제권을 가진 사람이라는 내용을 포함하여 서술한 경우	3
맞춤법에 알맞고 자연스러운 한 문장으로 쓰지 못한 경우	-1

**05** 아버지는 '나'에게 학교 공부는 하지 않더라도 대관령에 가 있는 동안 아버지가 보내 주는 책을 다 읽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 오답 풀이** ① '나'에게 두 가지 약속을 하라고 하며 농사짓기를 하려는 '나의' 선택을 받아들이고 있다.
- ② 아버지는 정 농사를 짓고 싶으면 집안의 농사를 도맡아 지으라고 한 것이지 '내가' 집안의 농사를 도맡아 짓기를 기대한 것은 아니다.
- ③ 아버지는 첫해의 농사에 실패하면 다음해 다시 학교로 돌아가라고 하였을 뿐 '내가' 실패할 것이라고 여겨 농사짓기에 반대한 것은 아니다.
- ④ 아버지는 '나'가 학교를 그만두고 농사를 짓는 것을 허락해 주며 두 가지 약속을 지킬 것을 요구하였다.

**06** 승태는 '나'가 학교를 그만두고 농사를 짓게 된 것에 기뻐하며 도움을 주고 있을 뿐 농사를 지으려고 아버지를 설득한 것은 아니다.

- 오답 풀이** ① '아버지는 이제 그건 네 농사니까 아버지에게 묻지 말고 모든 것을 네 뜻대로 하라고 말했다.'에서 아버지는 '나의' 농사일에 간섭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 ② '이제 내가 학교를 그만두고 내 규모의 농사를 짓는다고 하자 나보다 승태가 더 들떠서 좋아했다.'에서 알 수 있다.

- ④ '나는 농사를 짓기 위해 강원도 대관령에 있는 5000평의 밭과 2000평의 땅을 빌렸다.
- ⑤ '나는 차항 밭에는 배추를 심고, 가시머리 밭에는 감자를 심을 계획을 세웠다.

**07** '나는 이전에 상고에 가겠다고 했을 때 아버지가 허락하며 한 말씀에 담긴 의미를 다 알지 못한 채 고맙다고 답했지만, 이번에는 아버지의 진심어린 조언에 고마움을 느끼며 묵묵히 있었던 것이 아버지 조언을 받아들이지 못한 것은 아니다.

- 오답 풀이** ① 학교를 그만두겠다는 결심을 드러내기 위해 책을 태운 것에서 '나의' 단호한 성격이 드러난다.
- ② 학교를 그만두고 농사를 짓는 것을 아버지가 허락하는 이유가 '나'에 대한 믿음과 삶을 길게 보는 안목 때문임이 드러나 있다.
- ④ 아들이 지낼 곳을 미리 챙겨 둔 모습에서 아버지의 배려와 애정을 엿볼 수 있다.
- ⑤ '나는 농사짓기를 허락받은 것만으로도 금방 어른이 된 기분이었다고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스스로 한 사람의 당당한 농군이 된 것이라고 여기는 것은 자신이 어른이 되었다고 느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08** '나는 농사를 지은 후 '나중에 다시 농사를 짓더라도 어떤 일에는 다 때가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한다. 자신이 농사를 짓는 일이 같은 나이의 다른 아이들이 하지 못하고 있는 무언가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은 나이의 아이들이 하고 있는 것을 나만 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다.

**09** 여직원은 ㉠에서 '나'와 승태가 신문지를 구하러 온 줄 알고 "없어, 그런 건 집에서 구해야지."라며 무시하고 있다. 그러다 '나'와 승태가 종이 화분을 만들기 위해 신문지를 구매하러 온 것을 알고 ㉡에서는 '나'와 승태를 구매자로서 존중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10 예시 답안** 농사일(어른놀이)을 그만두겠다고 마음먹었기 때문이다.

**출제 의도 및 해설** 이 글에 나타난 소재의 의미를 파악하는 문제이다. 오토바이는 '나'가 어른이 된 기분에 어른처럼 행동하는 모습을 보여 주는 소재로, 오토바이를 팔았다는 것은 어른놀이를 그만두고 학교로 돌아가겠다는 '나의' 각오를 드러낸다.

**평가 기준** 농사일 또는 어른놀이를 그만두겠다고 마음먹었기 때문, 또는 어른놀이를 그만두겠다는 각오를 드러내기 위해서라는 답안을 서술하면 4점. 부분 점수 없음.

**11** '나는 학교를 그만두고 농사를 지은 것이 성급한 일탈이었다는 깨달음에 농사짓기를 그만두고 학교로 돌아가기로 한 것이지, 농사짓기에 실패한 것은 아니다.

3 풀 비린내에 대하여

내용 확인 문제

본문 30~33쪽

- 01 ①    02 ⑤    03 ③    04 아늑한 자궁    05 ②  
 06 ③    07 해설 참조    08 문명의 이기에 의해 파괴되고 죽음에 이른 생명체(자연)의 처참한 모습

01 이 글은 글 속의 '나'가 글쓴이와 일치하는 수필이다. 글쓴이는 자동차를 타면서 겪었던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자동차에 대한 태도를 성찰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② 자동차가 변화해 온 과정을 통시적(시간의 흐름에 따라)으로 살펴보고 있지 않다.

02 '나'는 고속 도로를 달릴 때 차창에 무언가 타닥타닥 부딪치는 소리가 나는 경험을 했을 뿐 고속 도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것은 아니다.

- 오답 풀이 ① '나는 객지로 이사한 이후 어쩔 수 없이 운전을 하게 되었다고 하고 있다.  
 ② '나는 어쩔 수 없이 운전을 하게 된 후 실제적인 목적이 없이도 차를 모는 일이 늘어 갔고, 차의 밀폐된 공간과 아늑함에 길들여져 갔다고 하고 있다.  
 ③ '나는 초보 딱지를 떼지 않은 상태에서 자동차가 주는 편리와 불안을 아주 예민하게 느끼고 있었다.'에서 알 수 있다.  
 ④ '나는 광주 비엔날레에서 <감성적 기계>라는 작품을 보고 자동차에 대한 생각을 곱씹어 보게 되었다고 하고 있다.

03 ①은 기존의 자동차가 지닌 '달리는 무기'로서의 용도는 해체되고, 침대와 의자로 바뀐 자동차의 모습이 나타난 작품이다.

- 오답 풀이 ① 태국의 작가 수라시 쿠숀형의 작품이다.  
 ② '1965년형 폭스바겐의 엔진과 핸들, 타이어, 새시 등을 완전히 제거하고 차체를 뒤집어' 만든 것이다.  
 ④ '그녀 옆에는 타이어를 비롯한 부속을 재활용해 만든 의자들이 놓여 있었다.'에서 알 수 있다.  
 ⑤ 기존의 이동 기능이 아니라 '침대와 의자'라는 휴식의 기능으로 그 용도가 변화되었다.

04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나를 어디로든 데려다줄 수 있는 밀폐된 공간'이라는 자동차의 특성을 '아늑한 자궁'에 비유하고 있다.

05 글쓴이는 차를 완전히 사용하지 않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차를 유지하되 사용을 최소화하고 의존도를 낮추고자 한다.

06 ①은 수많은 풀벌레들이 달리는 차체에 부딪혀 죽은 잔해로, 글쓴이는 ①을 보고 엄청난 범죄라도 저지른 사람처럼 손발이 후들 후들 떨렸다. 즉 글쓴이는 수많은 풀벌레들이 죽은 잔해를 보고 죄의식과 충격을 느끼고 있다.

- 오답 풀이 ① 글쓴이는 하루아침에 차를 없앨 수도 없는 형편이어서 차를 유지하되 사용을 최소화하고 의존도를 낮추기로 결심했다.  
 ② ①은 흙먼지가 아니라 수많은 풀벌레들이 차체에 부딪혀 죽은 잔해였다.  
 ④ 글쓴이는 운전대를 잡을 때마다 풀벌레들이 죽은 사건을 몸서리치며 기억했다.  
 ⑤ 글쓴이는 이런 살상의 경험을 모든 운전자들이 겪었으리라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07 예시 답안 자동차를 몰고 다니는 자체가 엄청난 살상 행위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출제 의도 및 해설 자동차에 대한 글쓴이의 태도 변화를 파악하는 문제이다. 글쓴이는 옛날 티베트의 승려들의 이야기를 통해 '자동차를 몰고 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살상 행위'라는 것을 깨닫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차를 소유하는 한 어떤 생태적인 발언도 할 자격이 없다는 반성의 고백을 하는 것이다.

평가 기준 '자동차를 몰고 다니는 것이 살상 행위'라는 내용을 서술한 경우 4점. 부분 점수 없음.

08 '풀 비린내'는 글쓴이의 차에 부딪혀 죽은 풀벌레들의 이미지가 후각적으로 형상화된 것으로, 문명의 이기에 의해 파괴되고 죽음에 이른 생명체의 모습을 의미한다.

소단원 평가 문제 미리 보기

본문 40~45쪽

- 01 ⑤    02 ⑤    03 ⑤    04 해설 참조    05 ③  
 06 '서늘옅고 빛난 이마받이하다', '흰 옷고름 절로 향기로워라.'  
 07 ②    08 ⑤    09 ④    10 경제    11 해설 참조  
 12 ④    13 어떤 일에는 다 때가 있는 것이 아닐까  
 14 해설 참조    15 ③    16 ③    17 ③    18 ③  
 19 풀 비린내, 피비린내    20 ④

01 (가)는 '오, 네 예쁜, 감은 눈, /에 퍼붓는 봄눈!'에서 감탄사와 느낌표를 통해 대상에 대한 영탄을 드러내고 있으며, (나)는 '문 열자 선뜻!', '아아 꿈같기에 설어라.'에서 느낌표와 감탄사를 통해 대상에 대한 영탄을 드러내고 있다.



- 오답 풀이** ① (가)와 (나) 모두 흰색의 색채 이미지는 드러나 있으나 색채어의 대비는 나타나 있지 않다.
- ② (가)에는 역설적 표현이 나타나지 않았다. (나)에는 '꿈같기에 설어라'와 '햇옷 벗고 도로 춥고 싶어라'라는 역설적 표현이 사용되었다.
- ③ (가), (나) 모두 설의적 표현은 나타나지 않았다.
- ④ 시의 처음과 끝에 유사한 시구를 배치하는 수미상관의 구성은 (가)와 (나) 모두 나타나지 않았다.

**02** (가)는 봄눈을 맞는 나무의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있을 뿐 시대 현실을 반영하는 소재는 나타나지 않았다.

- 오답 풀이** ① 나무를 '너'라고 의인화하여 부름으로써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다.
- ② 나무를 의인화하여 '눈을 감고 있을 것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으며, '눈송이들이 줄달음쳐 온다.' '입 맞추려고'에서 눈송이를 의인화하여 사상을 전개하고 있다.
- ③ '감고 있을 것이다.'에서 추측의 표현을 통해 화자가 상상한 내용을 드러내고 있다.
- ④ '오, 네 예쁜, 감은 눈.'에서 침표의 사용을 통해 대상을 예찬하는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03** ㉠과 ㉡ 모두 화자가 긍정적으로 여기는 대상이다.

- 오답 풀이** ② 철 아닌 눈에 '햇옷 벗고 도로 춥고 싶어라.'에서 화자는 겨울이 가는 것을 아쉬워하고 있음이 드러나 있다.
- ③ ㉠과 ㉡ 모두 봄에 내리는 눈으로, 봄의 계절적 배경을 드러내는 소재이다.
- ④ ㉠은 '눈송이들이 줄달음쳐 온다.'에서 의인화되어 있으나, ㉡은 의인화되지 않았다.

**04** **예시 답안** '감은 눈'은 '눈'의 의미에 따라 나무가 봄눈에 덮여 있는 모습을 의인화한 표현인 눈(目), 봄을 맞아 싹틀 준비를 하고 있는 눈(芽)으로 해석할 수 있다.

**출제 의도 및 해설** 이 시에서 중의성이 나타나는 시어를 찾고, 그 의미를 파악하는 문제이다. 나무들의 '감은 눈'의 '눈'은 감각 기관인 '눈' 또는 나무의 '싹'으로 볼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감은 눈'의 의미를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

**평가 기준**

평가 기준	배점
중의성이 드러난 시어로 '감은 눈'을 찾은 경우	2
시어의 의미를 두 가지로 제시한 경우(각 1점)	2
	4

**05** (나)의 5연에서 '꿈같기에 설어라.'를 '봄이 온 것이 꿈같기에 서렵다.'로 해석할 경우 봄이 온 것을 기뻐하는 화자의 정서를 역설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봄이 오지 않은 모습에 실망한 것은 아니다.

- 오답 풀이** ① '먼 산이 이마에 차라.'는 문을 연 순간 느낀 바깥 세계의 공기를 촉각적 이미지를 통해 드러낸 것이다.
- ② '새삼스레 눈이 덮인 멧부리'에 아직 산에 눈이 덮여 있는 모습이 나타나 있다.
- ④ '새순 돋고', '고기 입이 오물거리'에 생명이 깨어나 생동감 있게 움직이는 모습이 나타나 있다.
- ⑤ '햇옷 벗고 도로 춥고 싶어라.'에는 옷을 벗고 봄을 느끼고 싶은 화자의 소망과 겨울이 가는 것을 아쉬워하는 화자의 심리가 동시에 드러나 있다.

**06** '저늘음고 빛난 이마받이하다.'에는 시각의 촉각화가, '흰 옷고름 절로 향기로워라.'에는 시각의 후각화가 나타나 있다.

**참고 자료**

● **공감각적 심상**

감각의 전이를 통해 심상(이미지)을 형상화하는 것을 뜻한다. 시각적인 현상을 청각적으로 표현하거나 청각적인 현상을 미각적인 것으로 바꾸어 표현하는 것이 그 예이다.

- 예 분수처럼 흘러지는 푸른 종소리(청각의 시각화)  
매운 계절의 채찍에 갈겨(미각의 촉각화)

▶ **작품 더 보기**

● **정지용, 〈춘설〉**

- 갈래: 자유시, 서정시
- 주제: 춘설이 내린 자연에서 느끼는 봄의 생명력
- 해제: 이 시는 만물을 생동하게 하는 봄의 기운을 노래하고 있다. 시인은 이른 봄의 눈이 내린 풍경을 묘사하면서 때 아닌 눈을 '봄이 오는 것을 미리 알리는 눈'이라 인식하는 참신한 발상을 통해 봄을 맞이하는 감회를 표현하고 있다.

**07** '그러나 열일곱 살이 될 때까지 ... 그 길이 바로 내겐 농사였던 것이다.'에서 나는 할 줄 아는 것이 농사였기 때문에 농사를 짓기로 결심했음을 알 수 있다.

- 오답 풀이** ①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 무식하다는 소리는 듣지 않을 게다.'라는 아버지의 말에서 아버지는 공부보다 중요한 것이 책을 읽는 것이라고 생각함을 알 수 있다.
- ③ '학교 다니기 싫다고 ... 믿기 때문에 보내는 게야.'에서 아버지는 아들이 자신의 길을 잘 찾아가길 것이라고 믿음을 알 수 있다.
- ④ '왜냐하면 스물몇 살이 ... 아이와 어른의 구분이었다.'에서 농경 사회에서는 돈을 버는가를 기준으로 어른과 아이를 구분함을 알 수 있다.
- ⑤ 아버지는 두 가지 약속을 전제로 농사 짓는 것을 허락하고 있다.

08 '서른이 넘어 어린 시절 내가 꿈꾸었던 농사와는 전혀 다른 길로 들어선 다음 언젠가 그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다.'에서 성인이 된 서술자의 시선에서 말하고 있음이 드러난다.

**오답 풀이** ① (가)에는 대화를 통해 인물 간의 갈등이 드러난 부분은 나타나 있지 않다.

②, ③ 서술자는 1인칭 '나'로 주관적 입장에서 사건을 서술하고 있다.  
④ 여러 인물의 내면이 아니라 1인칭 '나'의 내면을 중심으로 서술하고 있다.

09 [A]에서 '나'는 집안의 농사를 지으라는 아버지의 제안을 거절하고 자기 경제의 농사를 짓고자 한다. 이를 통해 주관이 뚜렷하며 자립심이 강한 '나'의 성격을 알 수 있다.

10 '나'가 대관령에 가서 농사를 지으려고 한 이유는 농경 사회에서는 어린이 자기 경제권의 유무로 결정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는 집안의 농사가 아니라 자신의 돈을 버는 내 '경제'의 농사를 짓고 싶어 한다.

11 **예시 답안** 첫 번째는 농사가 첫해로 실패하면 다음 해에는 학교로 돌아 갈 것, 두 번째는 아버지가 보내 주는 책을 챙겨 읽으라는 것이다.

**출제 의도 및 해설** 아버지가 '나'에게 하라고 한 두 가지 약속을 찾아 한 문장으로 요약해 봄으로써 아버지의 가치관과 인생에서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에 대해 파악하는 문제이다. '첫 약속은 만약 내가 대관령에 올라가 짓는 농사가 첫해로 실패하고 말면 다음해 군소리 없이 다시 학교로 갈 것'이고, '두 번째 약속은 대관령에 가 있는 동안 학교 공부는 하지 않더라도 아버지가 보내 주는 책을 다 읽을 것'이다.

**평가 기준**

평가 기준	배점	
약속 두 가지를 찾아 모두 제시한 경우 (각 2점)	4	4
맞춤법에 알맞고 자연스러운 한 문장으로 쓰지 못한 경우	-1	

12 '나'는 지난 이태 동안 농사일을 한 것에 대해 '그 기간 동안 내가 했던 것은 어른 노릇이었던 것이 아니라 어른놀이였다는 생각이 자꾸만 내 가슴을 무겁게' 하였다고 말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나는 농사를 지은 두 번째 해 여름과 가을 사이에 농사일을 선택한 것을 후회하기 시작한다.

② '오토바이를 팔았다고 했을 때, 그리고 그 돈을 남아 있는 통장과 함께 고스란히 아버지 앞에 내 놓았을 때'에서 알 수 있듯이 '나는 농사를 지어 번 돈과 오토바이 판 돈을 아버지께 드렸다.

③ '나'는 해도지도 내놓고, 내년에 올라오지 않을 것을 다른 이들에게도 말해 놓고 집으로 내려 왔다.

⑤ '나는 집으로 돌아왔으나 여전히 대학에 가서 공부를 하는 것을 겁을 내고 있다.

13 '나'가 농사를 짓는 동안 깨달은 것은 '어떤 일에는 다 때가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다.

14 **예시 답안** 모든 것에는 때가 있으며, 공부할 나이에 농사를 짓는 것은 어른 노릇이 아니라 어른놀이임.

**해설** (나)에서 '나는 농사를 지은 이태 동안 자신이 했던 것이 어른 노릇이 아니라 어른놀이였다는 생각을 하는 한편, 자신이 같은 나이의 다른 아이들이 다 하고 있는 어떤 것을 못하고 있다는 생각에 후회와 소외감을 느끼고 있다.

**평가 기준**

평가 기준	배점	
때에 맞게 해야 할 일이 있음을 깨달았음을 제시한 경우	2	4
자신의 농사짓기가 어른놀이였음을 깨달았음을 제시한 경우	2	
'농사를 짓기 전'의 내용과 대응하도록 명사형으로 끝나는, 맞춤법에 알맞고 자연스러운 한 문장으로 쓰지 못한 경우	-1	

15 '나'는 자신이 어른 대접을 받을 수는 있지만 자신이 한 일이 어른 노릇이 아니라 어른놀이임을 깨달았다.

**오답 풀이** ① 오토바이는 어른을 상징하는 소재로, '나'가 오토바이를 판 것은 농사일(어른놀이)을 그만두고 다른 또래 아이들이 있는 학교로 돌아가겠다는 결심을 나타낸다.

② '나'가 농사일을 그만두고 학교로 돌아가기로 결심한 데에는 아버지가 보내 주신 책들을 읽은 것이 영향을 미쳤다.

④ 아버지는 '나'가 늦더라도 자신의 자리로 돌아올 것이라고 믿고 있었다.

⑤ '내 성장의 한 과정으로 아름답게 추억되었으면 좋겠다.'에서 '나는 농사를 지었던 경험을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있음이 드러난다.

16 이 글은 글쓴이가 자동차와 관련한 경험을 바탕으로 쓴 수필로, 자동차가 다른 생명체에게 해를 가할 수 있다는 생태 문제를 성찰하고 있다.

17 '이런 살상의 경험을 모든 운전자들이 초경처럼 겪었으리라는 사실이야말로'에 [B]는 글쓴이만 겪은 사건이 아니라 모든 운전자들이 겪는 경험이라는 인식이 드러나 있다.



- 오답 풀이** ① [A]에서 글쓰이는 스웨덴의 생태주의자인 에민 텡스웜의 말을 인용하여 자동차가 이동 수단이면서 안락한 공간이라는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 ② [B]에서 글쓰이는 아침에 출근을 하려다가 유리창과 앞 범퍼에 풀벌레들이 달리는 차체에 부딪혀 죽은 잔해를 목격하였다.
- ④, ⑤ [C]에서 글쓰이는 자동차의 편리함에 길들여지는 순간 그것이 풀 비린내뿐만 아니라 피비린내를 불러올 수도 있다고 생각하며, '차를 유지하되 사용을 최소화하고 의존도는 낮추는' 것으로 차에 대한 태도를 정리하고 있다.

- 18** 글쓰이가 경험한 '풀 비린내' 사건에 비추어 볼 때 ㉠ '자동차'는 다른 생명체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폭력성을 지닌 존재이고, ㉡ '풀벌레'는 자동차에 의해 생명을 빼앗긴 존재이다.
- 오답 풀이** ① 양면성을 지닌 존재는 ㉡이다.  
 ② 이 글에서 인간의 욕망을 채워 주는 존재는 ㉡이다.  
 ④ ㉡가 인간에게 불편함을 주는 존재라고 볼 근거는 찾을 수 없다.  
 ⑤ 인간은 ㉡에 종속될 가능성이 있으나, ㉡를 인간에게 종속되는 존재로 이해하는 것은 옳지 않다.

- 19** '풀 비린내'가 문명의 이기로 인해 파괴된 자연의 모습을 의미한다면, '피비린내'는 그러한 파괴를 짚시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더 큰 위험을 의미한다.

- 20** 이 글은 자동차에 부딪혀 죽은 풀벌레를 계기로 자동차에 대한 태도를 성찰하고 있고, <보기>는 문명에 의해 가려진 풀벌레를 계기로 화자의 태도를 성찰하고 있다.
- 오답 풀이** ① 이 글의 풀벌레는 자동차로 인해 생명을 빼앗기는 존재이다.  
 ② <보기>의 풀벌레는 문명으로 인해 가려져 있는 존재이다.  
 ③ 이 글과 <보기>의 풀벌레는 화자가 되고 싶은 대상이기보다는 공생하고 싶은 대상이다.  
 ⑤ 이 글과 <보기> 모두 풀벌레 소리를 계기로 그리운 대상을 떠올리고 있는 것은 아니다.

**+ 작품 더 보기**

- 김기택, <풀벌레들의 작은 귀를 생각함>
  - 갈래: 자유시, 문명 비판시
  - 주제: 문명의 이기에 대한 비판과 자연과의 공생
  - 해제: 이 시는 텔레비전, 전등으로 대표되는 문명과 풀벌레 소리로 대표되는 자연의 대조를 통해 문명에 의해 가려져 있는 자연에 주목할 것을 역설하고 있다. 자연이 현란한 문명의 빛에 가려져 인간의 눈과 귀에 도달하지 않는 현실을 드러내며 텔레비전으로 상징되는 문명의 빛을 끄면 그들의 소리가 들릴 것이고, 그 소리는 허파로 상징되는 인간을 '조금은 환하게 할 것이라고 하여 자연과의 공생을 보여주고 있다.

**(2) 자아 성찰과 타자 이해**

**1 쉽게 씌어진 시**

**내용 확인 문제**

본문 48~49쪽

- 01 ②    02 ④    03 ②    04 내면적 자아와 현실적 자아의 화해

- 01** '등불, 아침'과 같은 밝음의 이미지와 '밤, 어둠'과 같은 어둠의 이미지가 대비되어 시적 의미를 강화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③ 의문의 형식은 활용되고 있으나 이를 통해 청자의 태도 변화를 촉구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 02** 자기 성찰을 통해 부끄러움을 드러낸 부분은 7연의 '시가 이렇게 쉽게 씌어지는 것은 / 부끄러운 일이다.'로 ㉡에 해당한다.

**오답 풀이** ① 2연에 암담한 현실 속에서도 시를 쓸 수밖에 없는 화자의 괴로운 심정과 그런 현실에 대한 회의적 시각이 드러난다.  
 ② 3~4연에는 현실에 안주한 채 대학에서 늙은 교수의 강의를 들으며 지내는 화자의 무기력한 모습이 드러난다.  
 ③ 8연에서 1연의 변형, 반복을 통해 현실의 재인식을 보여 주면서 시상이 전환되고 있으며, 이어지는 9연에서 현실 극복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⑤ 화자는 9연의 '시대처럼 올 아침을 기다리는 최후의 나'를 통해 미래에 대한 희망을 드러내고 있다.

- 03** '육첩방'은 일본식 다다미가 여섯 장 깔린 작은 방으로, 이 시의 공간적 배경이면서 이국땅인 일본에 유학하고 있는 화자의 현실을 드러내고 있다. 또한 일제 강점기라는 시대 현실을 고려할 때 화자가 무기력하게 생활하고 있는 억눌리고 암담한 공간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화자에게 위안을 주는 공간이라고 볼 수는 없다.

- 04** '악수'는 이상과 현실의 괴리로 인해 내면적 자아와 현실적 자아의 갈등을 경험해야 했던 화자가, 두 자아의 화해에 이른 모습을 나타낸 표현으로 볼 수 있다.

**2 보리타작**

**내용 확인 문제**

본문 54~55쪽

- 01 ⑤    02 ⑤    03 ⑤    04 노랫가락에 어우러져 노동에 신명이 더해가는 모습

- 01** '옹헤야 소리 내며 발맞추어 두드리니'에서 청각적 이미지가 나타나 후각적 이미지는 활용되지 않았다.

**오답 풀이** ① '마당'이라는 공간적 배경이 나타나 있다.

- ② 보리타작을 하는 농민의 움직임을 '발맞추어 두드리니'와 같이 구체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 ③ '헤매리오'와 같이 설의적 의문의 형식을 활용하여 자신의 삶을 반성하는 태도를 강조하고 있다.
- ④ 화자는 보리타작을 하는 농민들의 삶을 관찰하며 과거 벼슬길을 추구하였던 자신의 삶을 반성하고 있다.

**02** 이 시의 화자는 보리타작을 하는 농민들의 모습을 보며 마음이 몸의 노예 되지 않은 모습, 즉 몸과 마음이 조화로운 삶이 낙원임을 깨닫고 있다. 이는 곧 평안이 몸이 놓인 처지에 좌우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한다.

**03** 화자는 '벼슬길'을 추구하던 양반으로, 농민들이 건강하게 노동하는 모습을 보며 벼슬길을 헛되이 좇던 자신의 모습을 반성하고 있다.

**04** ㉠은 민요에 맞추어 보리타작하는 농민들의 모습으로 노동에 신명이 더해 가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3 비 오는 날이면 가리봉동에 가야 한다**

내용 확인 문제

본문 60~69쪽

- |      |          |          |      |      |
|------|----------|----------|------|------|
| 01 ④ | 02 해설 참조 | 03 ③     | 04 ② | 05 ⑤ |
| 06 ① | 07 ⑤     | 08 ①     | 09 ④ | 10 ⑤ |
| 12 ③ | 13 ④     | 14 해설 참조 |      |      |

**01** '갓난애나 징징 울어 대면 애 보거나 하련만 아이는 배만 부르면 췌근췌근 잠들어 버리는 터라 사실 그가 할 일이 딱히 없는 형편이었다.'에서 알 수 있듯 '그'는 딱히 할 일이 없어 어슬렁거리며 임씨의 작업을 감시했다.

**오답 풀이** ① "왔다 갔다 하지만 말고 지켜보세요. 일꾼들이란 원래 주인이 안 보면 대충대충 덮어 버리는 못된 구석이 있다구요."에서 임씨를 불신하는 '아내'의 태도가 드러난다.

- ② 임씨는 노련한 솜씨로 파이프가 삭은 곳을 찾아냈다.
- ③ '아내는 내일까지 일이 계속된다는 게 벌써부터 지겨운 듯했다.'에서 '아내'는 공사일 빨리 끝나기를 바라고 있음이 드러난다.
- ⑤ '여름 한철 집수리 일이나 한다는 사내치고는 꽤 정확한 솜씨가 아닌가 하여 그는 새삼 사내의 몰골을 자세히 뜯어보았다.'에서 '그'는 처음에 임씨를 잡부로 생각하여 무시하였으나 임씨의 일 처리를 보며 그에 대한 인식이 조금 바뀌고 있음이 드러난다.

**02** **예시 답안** [A]에 나타난 임 씨의 초라한 차림새를 통해 그가 넉넉지 않은 형편임을, 작지만 탄탄하고 긴장한 신체를 통해 그가 육체 노동에 단련되었음을 알 수 있다.

**출제 의도 및 해설** 임 씨의 외양 묘사를 통해 임 씨가 처한 상황을 파악하는 문제이다. '그'는 임 씨의 몰골을 살펴보고 이를 묘사하고 있는데, 넉넉하지 못한 형편으로 인한 초라한 행색과 육체적 노동으로 단련되어 작은 체구에 비해 그가 긴장한 농부처럼 보임을 나타내고 있다.

**평가 기준** 초라한 행색으로 임 씨의 넉넉하지 못한 형편과 육체적 노동으로 몸이 단련되어 보임이 드러나면 4점, 부분 점수 없음.

**03** [A]에서 '그'는 임 씨가 '정성을 쏟아 완벽한 공사를 해' 주도록 하기 위해 그를 부추기는 말을 하려 한다.

**04** 임 씨가 '그'가 자신을 감시한다고 느끼며 불편해하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았다.

**오답 풀이** ① "경기도 이천 농군이 도시 사람 돼 보겠다고 땅 팔아 갖고 나와서 요 모양 요 꼴입니다."에서 임 씨는 과거 경기도 이천에서 농사를 짓던 사람임을 알 수 있다.

- ③ "비 오는 날엔 아침부터 가리봉동에 가야 합니다."에서 임 씨는 비 오는 날에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④ '그'의 치켜세우는 말에 임 씨가 "뭇입쇼. 누가 와서 일해도 마찬가지로 니까요."라고 반응한 데서 임 씨는 '그'가 하는 칭찬에 동요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⑤ "사모님, 오늘 일이야 하자 없이 잘해 드릴 테니 겨울 연탄은 저희 집 것을 때세요. 저야 뭐 연탄장수 아닙니까."에서 임 씨의 본업은 연탄장수이고 부업으로 집수리 일을 함이 드러난다.

**05** 임 씨는 '그'에게 비 오는 날 가리봉동에 가는 이유를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그'는 임 씨가 넉넉하지 못한 형편인데다 여러 식구들을 거느리고 있는 가장이기 때문에 가리봉동에 가는 이유가 일을 할 수가 없어서일 것이라고 짐작하고 있다. 그러한 생각 때문에 '그'는 임 씨에게 비가 오는 날이라도 일을 쉬어야 하는 게 아니냐는 말을 선뜻 건네지 못한 것이다.

**06** 임 씨는 맑은 바 일을 성실하고 꼼꼼하게 하는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였을 뿐, 이해 타산적인 모습을 보이지는 않았다.

**오답 풀이** ③ 노모의 말을 무릎을 꿇고 두 손을 짚은 채 듣는 모습에서 알 수 있다.

⑤ 공사를 늦게 마친 데 대해 '그'의 부부에게 미안해하는 모습에서 알 수 있다.

**07** (라)에는 임 씨가 옥상 공사를 성실하고 세심하게 진행하는 모습과 그에 대한 '그'의 감탄이 나타나 있다. 임 씨의 노고를 공사비용의 대가로 여기는 것은 '아내'이다.





- 오답 풀이** ①, ② ‘그’는 임 씨가 성실하고 세심하게 일하는 모습에 감탄하고 있다. 또한 임 씨의 손가락이 손가락 이상의 그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임 씨의 노동의 가치를 인식하고 있다.
- ③ 그는 임 씨의 노고에 대한 대가가 지하실 단칸방만큼의 생활뿐이라면 너무하다고 생각하며 그의 처지를 안타까워하고 있다.
- ④ 그는 처음에는 임 씨의 열정을 지어낸 것으로 생각하였지만, 이내 임 씨의 일숨씨를 본 후 그것이 오해였음을 깨닫고 있다.

**08** ‘아내’는 생각보다 욕상 공사가 오래 걸리자 심적 부담에 안절부절못하다가 임 씨를 대접하기 위해 술상을 마련했다.

- 오답 풀이** ② ‘아내’는 욕상 공사가 생각보다 너무 오래 걸리자 “대강 해주세요.”라며 그만 끝내기를 바라는 태도를 드러냈다.
- ③ 노모는 늦은 시간까지 일한 임 씨를 치하하는 말을 해주었다.
- ④ ‘그’는 임 씨가 꼼꼼하게 완벽을 기하며 일하는 모습을 보고 감탄하며, 임 씨에 대한 불신을 거두었다.
- ⑤ 임 씨는 자신이 맡은 일을 성실하게 하는 태도를 보였을 뿐 공사 비용에 대해 걱정하는 모습은 드러내지 않았다.

**09** 이 글은 전지적 작가 시점이면서 작품 속 특정 인물인 ‘그’의 시점에서 초점화하여 사건과 인물의 내면을 전달하고 있다.

- 오답 풀이** ① 서술자의 교체는 나타나지 않았다.
- ② 서술자의 회상은 나타나지 않았다.
- ③ 장면의 빈번한 전환은 나타나지 않았다.
- ⑥ ‘그’의 시점에 초점을 맞추고 있을 뿐 다양한 인물의 시점은 드러나지 않았다.

**10** ‘그’는 임 씨가 서른여섯, 토끼띠라는 말에 그보다 한 살 어린 자신의 나이를 밝히는 대신 ㉠과 같이 동갑이라고 말한다. 이는 집수리를 위해 임 씨를 고용한 입장에서 ‘그’가 임 씨보다 어린 사실을 알게 되면 임 씨가 마음이 상할까 봐 배려한 것이라 볼 수 있다.

**11** 임 씨는 ‘아내’가 돈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자 먼저 자신이 뽑아 준 견적서를 보여 달라고 하며 그 금액이 좀 다를 것이라고 한다. 이어지는 내용에서 임 씨는 자신이 일한 만큼 돈을 받으려고 견적을 고치고 있다. 임 씨가 돈을 받지 못할까 봐 긴장하거나 걱정하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았다.

- 오답 풀이** ① ‘아내’가 돈 이야기를 꺼내며 망설이는 모습과 그에 대한 ‘그’의 반응에서 짐작할 수 있다.
- ④, ⑤ ‘그’는 아내가 돈을 깎으려는 듯한 태도를 보이자 못마땅해하며 아내가 탄소리 없이 견적 금액만큼 돈을 주기를 바라고 있다.

**12** ‘그’는 임 씨가 욕상 방수 공사는 ‘씨비스’라며 인심을 베푸는 모습에 자신의 오해와 편견에 부끄러움을 느끼고, 임 씨에게 수고했다는 말이나 고맙다는 말을 하는 것은 부족하다고 여기고 있다. 자신의 처지를 초라하게 느끼고 있는 것은 아니다.

- 오답 풀이** ① 7만 원만 달라는 임 씨의 말에 ‘놀란 것은 그보다 아내 쪽이 더 심했다.’고 한 것에서 알 수 있다.
- ② ‘그’는 처음에 임 씨를 오해했던 것에 미안함과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다.
- ④ 임 씨는 재료비와 품삯을 계산한 끝에 7만 원이면 받을 것은 다 받는 것이라고 하고 있다.
- ⑤ 견적에 대한 ‘그’의 반응에 “앞으로 이 세상 사시려면 그렇게 마음이 물러서는 안 됩니다요.”라고 한 것에서 드러난다.

**13** 앞부분에서 임 씨는 처음에는 욕실 바닥 전체를 뜯을 생각으로 공사비를 책정했는데, 파이프가 삭은 곳을 금방 찾았기 때문에 공사 관련 비용이 줄어서 견적 금액을 줄였다고 밝히고 있다. 즉 공사에 든 비용이나 품삯을 고려하여 견적을 깎은 것이다.

**14** **예시 답안** 임 씨에 대해 오해했던 것에 미안함과 부끄러움을 느꼈을 것이다.

**출제 의도 및 해설** 임 씨에 대한 ‘그’의 생각을 정리해 보는 문제이다. ‘그’와 ‘아내’는 임 씨가 일을 제대로 하지 않고 공사비는 되도록 많이 받아갈 거라고 의심하며 바라보았다. 그러나 임 씨는 끝까지 성실하게 일했으며 돈을 더 받기는커녕 도리어 ㉠과 같이 인심을 쓰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을 들은 ‘그’는 자신의 오해에 대해 미안함과 부끄러움을 느꼈을 것이다.

**평가 기준** 임 씨에 대한 미안함과 부끄러움이 느꼈을 것이라는 답안을 작성한 경우 4점. 부분 점수 없음.

소단원 평가 문제 미리 보기

본문 76~81쪽

- |      |                  |              |                              |          |      |      |
|------|------------------|--------------|------------------------------|----------|------|------|
| 01 ② | 02 ④             | 03 ③         | 04 일제 강점기의 어두운 현실 / 암담한 시대상황 | 05 해설 참조 | 06 ④ | 07 ⑤ |
| 08 ② | 09 ④             | 10 낙원이, 헤매리오 | 11 해설 참조                     |          |      |      |
| 12 ⑤ | 13 ④             | 14 ②         | 15 ③                         | 16 ①     | 17 ③ |      |
| 18 ⑤ | 19 ③ 미안함, ⑥ 부끄러움 | 20 해설 참조     |                              |          |      |      |

**01** 이 시의 1연은 화자의 처지와 현실 인식이 드러난 부분인데, 이를 1, 2행의 순서를 바꾸어 8연에서 반복함으로써 화자의 현실 재인식을 보여 주고 있다.

02 8연은 1연을 변주한 것으로, 반성을 통한 화자의 변화된 인식이 드러나면서 시상이 전환되는 부분이다.

**오답 풀이** ① 1, 2연에는 부정적 현실을 살아가는 화자의 자기 인식이 드러나 있다.

- ② 3~6연에는 현재의 삶에서 느끼는 상실과 회의감이 드러나 있다.
- ③ 7연에는 '부끄러운 일이다.'에서 화자의 반성적 자기 성찰이 직접적으로 드러나 있다.
- ⑤ 9, 10연의 '아침'을 기다리는 화자의 모습에서 암담한 현실에 대한 화자의 극복 의지를 엿볼 수 있다.

03 ㉠ '학비 봉투'는 대학에 다니는 화자를 위해 집에서 보내 주는 것으로 부모님의 수고와 사랑이 담겨 있다. 화자의 '슬픈 천명'은 화자의 시인으로서의 자기 인식일 뿐 이와는 관계없다.

**오답 풀이** ① '밤비'는 어둡고 괴로운 현실로, 화자의 자아 성찰의 계기로 작용하고 있다.

- ② '육첩방'은 일본식 다다미방으로 일본 유학 중인 화자의 처지를 드러낸다.
- ④ '어둠'은 일제 강점기의 암울한 현실을 시각적 이미지로 표현한 상징적 의미의 시어이다.
- ⑤ '시대처럼 올 아침'은 '어둠'이 가고 온 시대로, 화자가 꿈꾸는 조국 광복의 모습을 상징한다.

04 <보기>를 통해 이 시가 창작될 당시 운동주 시인은 일본 유학 중이었으며 항일 운동 혐의로 체포되기도 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시간적 배경인 '밤'은 일제 강점기의 어두운 시대 현실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05 **예시 답안** ㉠은 희망의 시대를 위해 작은 것이나마 실천하려는 '이상적 자아'이고, ㉡은 암담한 시대 상황에서 시를 쓰며 무기력한 삶을 사는 '세속적 자아'이다.

**출제 의도 및 해설** <보기>를 바탕으로 이 시의 대립적 자아의 성격을 이해하는 문제이다. <보기>에서는 이 시를 이상적 가치를 지향하는 자아와 세속적 자아의 갈등과 화해로 이해하고 있다. 이를 참고할 때 ㉠은 이상적 자아, ㉡은 세속적 자아라 할 수 있다.

**평가 기준**

평가 기준	배점
㉠, ㉡의 성격을 <보기>에서 찾아 서술한 경우(각 1점)	2
㉠, ㉡의 의미를 시의 내용을 바탕으로 서술한 경우(각 1점)	2

06 이 시와 <보기> 모두 역설적 표현은 사용되고 있지 않다.

**오답 풀이** ① 이 시의 화자는 '밤'으로 상징되는 부정적 상황에, <보기>의 화자는 '북쪽 툰드라(겨울)로 상징되는 부정적 상황에 처해 있다.

② 이 시의 화자는 '어둠'이 가고 '아침(긍정적 현실)'이 올 것을 기다리고 있고, <보기>의 화자는 '꽃'으로 상징되는 긍정적 미래가 올 것을 기대하고 있다.

③ 이 시는 '들으러 간다', '침전(沈澱)하는 것', '씩어지는 것' 등에서 현재형 시제를 활용하여 화자의 상황을 나타내고 있고, <보기> 역시 '피지 않는가', '움작거리', '불러 보노라' 등에서 현재형 시제를 확인할 수 있다.

⑤ 이 시는 '밤'(어둠)과 '아침'(밝음)이라는 대조적 시어가 나타나며, <보기>는 '북쪽 툰드라'와 '제비떼'에서 겨울과 봄의 이미지가 대조되고 있다.

07 (가)는 '검게 탄 두 어깨 햇볕 받아 번쩍이네', '보이느니 지붕까지 날으는 보리 티끌' 등에 시각적 심상이 나타나 있고, (나)는 '새로 짜 낸 무명이 눈결같이 고왔는데'에 시각적 심상이 나타나 있다.

**오답 풀이** ① (가), (나) 모두 대화는 나타나 있지 않다.

- ② 어순을 바꾸어 표현하는 도치법이 사용된 것은 (가)가 아니라 (나)의 3행, 4행이다.
- ③ (가)의 '젓빛처럼', (나)의 '눈결같이'에서 모두 직유를 활용하여 대상을 표현하고 있다.
- ④ (가)의 마지막 행(... 헤매리오)에 수사적 질문이 사용되고 있다. (나)는 수사적 질문을 사용하고 있지 않다.

08 화자는 즐겁게 노동하는 농민들의 모습을 보며, 몸과 마음이 조화로운 삶이 낙원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뿐, 농민들과 낙원에 가서 살고 싶어 하는 것은 아니다.

**오답 풀이** ① 화자는 현재 보리타작을 하는 농민들의 모습을 관찰하고 있다.

- ③ '주고받는 노랫가락 점점 높아지는데'에서 알 수 있듯이 농민들은 노래를 부르며 즐겁게 일하고 있다.
- ④ 1행과 2행에는 농민들이 식사하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데, 이는 농민들의 소박한 현실을 보여 준다.
- ⑤ 마지막 행에 벼슬길에 헤매었던 자신의 삶을 성찰하는 모습이 나타나 있다.

09 ㉠ '주고받는 노랫가락 점점 높아지는데'는 노래를 부르며 흥이 나서 노랫소리도 커 가고, 점점 더 신나게 보리타작을 하는 농민들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농민들의 소박한 현실을 보여 주는 것은 막걸리와 보리밥을 먹는 모습이다.

- ② 노동으로 단련된 농민들의 모습을 표현한 것은 '검게 탄 두 어깨'이다.
- ③ 보리 낱알이 온 사방에 날리는 모습을 묘사한 시구는 '삼시간에 보리 낱알 온 사방에 가득하네'이다.
- ⑤ 막걸리를 주고받으며 마시는 모습이 아니라 민요 소리에 맞추어 보리타작을 하는 모습이다.



**10** (가)의 화자는 즐겁게 노동하는 농민들의 모습을 보며 몸과 마음이 조화로운 삶이 낙원이라고 생각하면서, 고향을 떠나 벼슬길을 헤매었던 자신의 모습을 반성하고 있다.

**11** [예시 답안] (가)의 대상은 흥겹게 보리타작을 하는 농민들로 건강하고 긍정적인 모습으로 나타나 있다. 이에 반해 (나)의 대상은 세금 독촉에 시달리는 농민들로 부정적인 상황에 처해 있다.

[출제 의도 및 해설] (가)와 (나)의 대상인 농민이 각각 어떤 모습과 상황인지 파악하여 비교해 보는 문제이다. (가)의 화자는 즐겁게 보리타작을 하는 농민들의 모습을 긍정적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반면 (나)의 화자가 바라보는 대상은 세금 독촉에 시달리고 있는 농민으로, 부정적 상황에 처해 있다.

**평가 기준**

평가 기준	배점	
(가), (나)의 대상을 밝히고, 대상이 처한 상황을 포함한 경우	2	4
(가)의 대상은 긍정적, (나)의 대상은 부정적인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다는 차이점을 서술한 경우	2	

**작품 더 보기**

● 정약용, <탐진촌요>

- 갈래: 한시(칠언 절구)
- 주제: 농민들을 수탈하는 탐관오리에 대한 고발과 고난에 찬 농민들의 생활
- 해제: 이 시는 정약용이 1801년 신유교난에 연루되어 강진에 유배 갔을 때 쓴 한시 <탐진촌요> 15수 가운데 7번째 수이다. 황두에게 무명을 빼앗기고, 세금 독촉에 시달리는 농민들의 눈물겨운 삶을 사실적으로 묘사하며 당대 부패한 정치 현실을 날카롭게 고발하고 있다.

**12** 이 글의 임 씨는 성실히 일하지만 어렵게 살아가는 도시 노동자의 모습을 보여 준다. 그러나 임 씨가 좌절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으며 이를 통해 사회의 부조리함을 그린 것도 아니다.

[오답 풀이] ① 임 씨가 공사를 하는 모습을 통해 그의 꼼꼼하고 성실한 태도를 알 수 있다.

- ② 도시 노동자인 임 씨의 모습을 사실적으로 그리고 있다.
- ③ '그'와 아내를 통해 이해 타산적이고 각박한 소시민의 모습이 드러난다.
- ④ '그'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임 씨에 대한 심리가 달라지고 있다.

**13** "예상외로 옥상 일이 힘든가 보죠? 저 사람도 이제 세상에 공돈은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거예요."라는 말에서 '아내'는 ⑤에 있는 임 씨를 돈을 받고 일할 뿐이라고 여감을 알 수 있다.

- [오답 풀이] ① 임 씨는 옥실 공사 중에 파이프가 삭은 곳을 찾아냈다.  
 ② "왔다 갔다 하지만 말고 ... 구석이 있다구요."라는 '아내'의 말을 듣고 임 씨의 일을 살피는 '그'의 모습에서 임 씨를 신뢰하지 않는 '그'와 '아내'의 모습을 볼 수 있다.  
 ③ '밤 여덟 시가 지나도록 잡역부 노릇에 ... 안절부절못했으니까.'에서 옥상 공사 일은 '그'와 '아내'의 생각보다 오래 걸렸음을 알 수 있다.  
 ⑤ '아내'는 오랜 시간 옥상 공사 일을 한 임 씨를 위해 술상을 차렸다.

**14** 임 씨는 "비가 오면 비가 오는 대로 할 일이 있습지요."라며 비가 오면 가리봉동에 가야 한다고 하고 있을 뿐, 비가 오는 날만은 자유를 누린다고 볼 수는 없다.

[오답 풀이] ① "경기도 이천 농군이 ... 그 땅만 그대로 잡고 있었어도....."에서 고향 땅을 팔고 상경한 것에 대한 후회가 드러난다.

- ③ 임 씨가 옥상 방수 공사를 하는 모습에서 임 씨가 성실하고 꼼꼼하며 책임감 있게 일함을 알 수 있다.
- ④ 공사를 마치고 늦어진 시간을 보며 '그'의 부부에게 미안해하는 모습에서 임 씨의 배려심을 알 수 있다.
- ⑤ '하루에 두 끼는 라면으로 배를 채우는 식구들을 거느린 가장', '열 손가락에 박인 공이의 대가가 기껏 지하실 단칸방만큼의 생활뿐이 라면에서 알 수 있다.

**15** ①의 이유가 되는 '쉐타 공장 하던 놈'은 공장이 망했다고 했지만 가리봉동에 가서 더 크게 공장을 차렸으므로 임 씨와 같이 절박한 처지라고 볼 수는 없다.

[오답 풀이] ① 임 씨가 비 오는 날에 해야 할 일로 ①을 말한 것은 비가 오지 않는 날에는 막일을 하는 임 씨의 처지가 반영되어 있다.

- ② 임 씨가 가리봉동에 가는 것은 떼인 돈을 받아야 하는 절박함이 깔려 있기 때문에 '가야 한다'라고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④ 떼인 돈 팔십만 원으로 가족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많은 데서 그만큼 그 돈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 ⑤ 이 글에서 임 씨는 성실하고 정직하게 일하는 노동자임을 알 수 있는데 그러한 그가 돈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것에서 우리 사회의 부정적인 모습을 엿볼 수 있다.

**16** 이 글은 '그'와 임 씨, 아내의 대화를 통해 인물의 성격을 드러내고 있다.

[오답 풀이] ② 시간의 순서에 따라 사건이 진행되고 있을 뿐 과거와 현재의 사건이 교차되고 있지 않다.

- ③ 임 씨가 옥실 공사에 이어 옥상 공사를 하는 모습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제시될 뿐 동시에 벌어지는 두 사건이 나타난 것은 아니다.
- ④ 서술자의 논평을 활용해 인물의 성격 변화를 제시한 부분은 찾을 수 없다.
- ⑤ '말했다', '시작했다'와 같이 과거형 시제를 활용하고 있다.

17 '시원한 밤공기가 현관을 ... 너무 초라하지 않을까.'에서 '그'는 임 씨에 대한 고마운 마음을 배웅으로 표현하려 함을 알 수 있다.

- 오답 풀이** ① 임 씨는 처음부터 공사 비용을 속이려는 의도가 없었다.  
 ② "그럼 우리가 너무 미안해서....."라고 한 것에서 아내는 임 씨가 말한 7만 원이 임 씨가 일한 양에 비해 적다고 생각함을 알 수 있다.  
 ④ '임 씨는 아내가 내민 7만 원 주머니에 쑤셔 넣고'에서 '그'와 아내는 임 씨에게 7만 원을 지불했음을 알 수 있다.  
 ⑤ '임 씨는 고마워하는 '그'의 부부에게 자신의 연탄을 살 것을 제안했'을 뿐 겨울에 연탄을 사는 조건으로 공사 비용을 할인해 준 것은 아니다.

18 임 씨는 '그'와 '아내'가 자신을 의심한 줄도 모른 채 '그'를 마음이 약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뿐, 임 씨가 자신을 불신한 '그'와 '아내'를 반성하게 하려고 ㉓과 같이 말한 것은 아니다.

19 '그'는 임 씨를 의심하였지만, 임 씨가 일을 성실하게 하고 견적보다 낮은 금액을 청구한 것을 보며 미안함과 부끄러움의 감정을 느끼고 있다.

20 **예시 답안** 타인에 대해 편견을 지닌 소시민의 모습과 자기반성을 말하고자 하였다.

**출제 의도 및 해설** 등장인물의 태도 변화를 통해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파악하는 문제이다. <보기>를 통해 '그'와 아내가 임 씨에 대한 오해와 의심을 풀고 미안함과 부끄러움을 느끼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임 씨에 대한 오해는 편견에 기반한 것이다.

**평가 기준**

평가 기준	배점
임 씨에 대한 편견을 지니고 있었음을 서술한 경우	2
소시민의 모습과 자기반성을 말하고자 했음을 서술한 경우	2
맞춤법에 알맞고 자연스러운 한 문장으로 쓰지 못한 경우	-1

**시험 대비 대단원 종합 평가**

본문 82~89쪽

- 01 ③    02 ②    03 ⑤    04 ④    05 7연  
 06 ㉠: 밤비, 어둠 ㉡: 등불, 아침    07 ④    08 ⑤    09 ⑤  
 10 ④    11 해설 참조    12 ④    13 ③  
 14 해설 참조    15 단순한 육체 노동자    16 해설 참조  
 17 ②    18 ④    19 ④    20 ⑤    21 옹헤야 소리 내며 발맞추어 두드리니    22 ⑤    23 해설 참조    24 ①  
 25 ③    26 ㉠ - ㉡ - ㉢ - ㉣    27 해설 참조    28 ③  
 29 해설 참조

01 (가)의 '오, 네 예쁜, 감은 눈.'과 (나)의 '하나, 둘, 죄다 잃어버리고' 등에서 볼 수 있듯이 (가)와 (나) 모두 심표의 문장 부호를 사용하여 시의 호흡을 조절하고 있다.

- 오답 풀이** ① (가)와 (나) 모두 반영적 표현은 사용되고 있지 않다.  
 ② (가)와 (나) 모두 가정법은 사용하고 있지 않다. (가)의 '~을 것이다.'는 추측의 표현이다.  
 ④ (가)에는 수미상관의 표현이 사용되고 있지 않다. (나)의 1연과 8연에는 변주를 통한 반복이 나타난다.  
 ⑤ (나)는 '밤비가 속살거려'에 청각적 이미지가 나타나나, (가)에는 청각적 이미지가 사용되고 있지 않다.

02 (가)의 화자는 퍼붓는 '봄눈'에 감탄을 드러내고 있으므로 ㉠은 감탄의 대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 '밤비'는 어두운 시대적 현실을 의미하므로 감탄의 대상과는 거리가 멀다.

03 '시대처럼 올 아침'이라는 표현을 통해 화자는 '아침'이라는 긍정의 미래가 '시대처럼' 시간이 흐르면 반드시 올 것이라는 확신을 드러내고 있다.

- 오답 풀이** ① 화자는 나무들이 눈을 감고 있는 모습을 상상하고 있다.  
 ② 자연물인 눈송이에 인격을 부여하여 달리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다. 이는 나무 위로 눈송이가 내리는 것을 형상화한 것이다.  
 ③ 육척방은 화자가 처한 부정적 현실의 공간이다.  
 ④ 화자는 암울한 현실 속에서 아무런 대응도 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모습을 '홀로 침전하는 것일까?'로 표현하고 있다.

04 [A]에서 '감은 눈의 '눈'을 '새로 막 터져 돌아나려는 초목의 싹'으로 이해한다면, [A]는 나무의 새싹이 봄을 맞아 막 싹트려고 하는 모습에 대한 감탄으로 이해할 수 있다.

05 <보기>에서는 '자기 성찰'이 항상 부끄러움을 수반한다고 하고 있는데, 7연의 '부끄러운 일이다'를 통해 이러한 자기 성찰의 자세가 직접적으로 드러나 있다.

06 (나)에서는 '밤비'와 '어둠'이 어둠의 이미지를, '등불'과 '아침'이 밝음의 이미지를 형성하고 있다.

07 (가)는 '서른이 넘어 어린 시절 ... 유일한 길이었다.'에 성인이 된 서술자의 시선이 나타나며, 이후 어린 시절을 회상하며, 이야기를 서술하고 있다. (나)는 '따져 보니 20년도 더 바랜 기억이었다.'에서 성인이 된 서술자의 시선이 나타나며 그 뒷부분에서는 어린 시절의 이야기를 서술하고 있다.

- 오답 풀이** ⑤ (가), (나) 모두 1인칭 주인공 '나'가 자신의 이야기를 서술하고 있다.



08 (나)의 '나'는 소변을 누러 나왔다가 방으로 돌아가는 길에 가마니 떼기를 밟았는데, 그 순간 쇠몽치가 쓰러져 짚지 단지가 깨졌다. '나'가 일부러 연장을 들어 단지를 깬 것은 아니다.

- 오답 풀이** ① '나는 하루라도 빨리 어른이 되고 싶었다. 그때 내게는 농사만이 나를 그렇게 해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에서 알 수 있다.  
 ② '집안의 농사는 내가 그것을 도맡는다 하더라도 아버지의 농사를 돕는 것이지 내 경제의 농사가 아니기 때문이었다.'에서 알 수 있다.  
 ③, ④ '아홉 가구가 함께 쓰는 변소 문을 열고 문턱에 올라 두 번씩이나 푸드덕 푸드덕 몸서리를 치며 오줌을 갈겼다.'에서 알 수 있다.

09 '화투'는 농경 사회에서 어른과 아이의 구분을 보여 주는 사례로, '나'는 이를 근거로 들어 경제권을 가진 사람이 어른이라고 말하고 있다.

10 ㉠ '아이 같은 어른'은 농사를 지어 돈을 벌기 때문에 어른 대접을 받는 '나'를 의미하며, ㉡ '어른 같은 아이'는 나이가 많아도 돈을 벌지 않기 때문에 어른 대접을 받지 못하는 '형'을 의미한다.

- 오답 풀이** ① ㉠은 어른 대접을 받는 존재이다.  
 ② ㉠은 나이와 상관없이 경제력을 기준으로 될 수 있다.  
 ③ ㉡은 어른 대접을 받지 못하는 존재이므로 '나'가 되고 싶은 대상이 아니다.  
 ⑤ ㉠은 어른 대접을 받으나, ㉡은 어른 대접을 받지 못한다.

11 **예시 답안** '나'는 '내 손으로 내 경제를 가진 어른'이 되고 싶었는데, 어릴 때부터 보고 배운 것이 농사밖에 없어서 농사일을 선택한 것이다.

**출제 의도 및 해설** '나'가 이른 나이에 농사일을 택한 이유를 찾는 문제이다. '내 손으로 내 경제를 가진 ... 내겐 농사였던 것이다.'에 농사일을 선택한 이유가 나타나 있다.

**평가 기준**

평가 기준	배점
'나'가 농사일을 통해 얻고자 한 것이 드러난 구절을 찾아 쓴 경우	2
'나'가 농사일을 하게 된 이유를 포함하여 서술한 경우	2
	4

12 임 씨는 고향을 떠나온 안타까움에 고향이 어디냐고 묻지 말라는 유행가 가사를 언급한 것일 뿐, 고향을 숨기려 한 것은 아니다. 자신의 고향이 경기도 이천이라고 밝히고 있다.

- 오답 풀이** ① '그는 임 씨를 슬쩍 치켜세우거나 부드러운 말로 움켜잡아 공사를 잘하도록 부추기려고 한다.  
 ② 임 씨가 "경기도 이천 농군이 ... 그 땅만 그대로 잡고 있었어도……."라고 한 것에서 후회가 드러난다.

- ③ 임 씨는 과거 경기도 이천 농군이었고, 지금의 본업은 연탄장수이며 부업으로 집수리를 하고 있다.  
 ⑤ '그는 임 씨가 견적을 다시 계산하는 것을 보고 '뭔가 단단히 잘못되었다는 기분, 이게 아닌데, 하는 느낌'을 받는다.

13 "칠만 원요? 그럼 옥상은……."이라는 '아내'의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임 씨가 부른 가격이 너무 적어서, '아내'는 옥상 공사 비용이 포함된 비용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다. 즉 칠만 원이 공사 비용으로 적다고 생각하고 있을 뿐 칠만 원에 옥상 공사 비용도 포함시켜 주기를 바라는 것은 아니다.

14 **예시 답안** 임 씨는 주관이 뚜렷하고 정직하며 인심이 있는 성격이다.

**출제 의도 및 해설** 인물의 대사와 행동을 통해 인물의 성격을 파악하는 문제이다. ㉠에서는 임 씨가 '그의 치켜세움에 흔들리지 않는 주관이 뚜렷한 모습을, ㉡에서는 일에 있어 정직한 모습을, ㉢에서는 인심이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평가 기준**

평가 기준	배점
㉠~㉢에서 알 수 있는 성격을 각각 제시하여 서술한 경우(각 1점)	3
맞춤법에 알맞고 자연스러운 문장으로 쓰지 못한 경우	-1
	3

15 '그'는 임 씨에 대해 '하물며 저 단순한 육체 노동자야말로'라고 깔보며 자신의 의도대로 그를 부추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16 **예시 답안** 공사 초반에 '그와 아내는 임 씨에 대해 불신하고 의심하였는데, 임 씨는 성실하게 일을 끝내고 견적보다 낮은 금액을 청구했기 때문이다.

**출제 의도 및 해설** '그'와 아내의 태도가 변하게 된 이유를 파악하는 문제이다. <보기>에서는 '그와 아내가 임 씨를 의심하고 불신하는 모습이, (나)에는 이러한 예상을 깨고 임 씨가 공사 비용을 낮춰 청구하여 '그와 아내가 미안해하는 모습이 제시되어 있다.

**평가 기준**

평가 기준	배점
'그'와 아내가 임 씨를 의심, 불신했음을 제시한 경우	2
임 씨가 공사 비용을 정직하게 청구함을 제시한 경우	2
	4

17 ㉔는 고향을 묻는 ‘그’의 질문에 대한 임 씨의 반응으로 고향을 떠나온 임 씨의 쓸쓸한 마음이 담겨 있다. ㉕는 ‘그’의 반응으로, 많은 수고를 한 옥상 공사일을 서비스라고 하는 임 씨의 말에 대해 놀란 심리가 반영되어 있다.

18 (가)의 화자는 지난 날 벼슬길을 해매며 부귀공명을 추구했던 자신의 삶을 반성하고 있고, (나)의 서술자는 자동차로 풀벌레들을 살상했던 경험을 통해 자신의 자동차 사용에 대한 태도를 반성하고 있다.

- 오답 풀이** ① (가)와 (나) 모두 유사한 여러 사례를 열거하고 있지 않다.  
 ② (나)에서만 특정 대상(자동차)의 양면성을 고찰하고 있다.  
 ③ (나)에서만 앞으로 일어날 상황(그리고 그 ‘감성적 기계’의 편안함도 ... 자각을 잊지 않으려고 한다.)을 가정하고 있다.  
 ⑤ 세속적 삶의 가치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가)에만 나타나 있다.

19 (가)의 화자는 농민들이 노동하는 모습을 관찰한 결과 몸과 마음이 조화로운 삶이 ‘낙원’이라는 결론을 얻고 있다. 또한 (나)에서 서술자는 ‘풀 비린내’를 통해 자동차에 대해 성찰하게 된다.

20 [E]에서 화자는 벼슬길과 같은 세속적 가치를 추구하지 않고 현재에 만족하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고 있을 뿐, 농민들과 함께 노동하려는 것은 아니다.

- 오답 풀이** ① ‘막걸리’, ‘보리밥’이라는 소박한 식사가 나타나 있다.  
 ② ‘검게 탄 두 어깨’에 농민들의 건강한 신체가 형상화되어 있다.  
 ③ ‘옹헤야 소리 내며’, ‘주고받는 노랫가락’에서 민요에 맞추어 보리타작을 함을 알 수 있다.  
 ④ ‘그 기색 살펴보니 즐겁기 짝이 없어’에서 농민들이 즐겁게 노동하는 모습을 발견하고 있다.

21 ‘옹헤야 소리 내며’에는 청각적 이미지가, ‘발맞추어 두드리니’에는 시각적 이미지가 드러나 있다.

22 (나)는 자동차가 인간에게 안락함을 주는 공간이지만 풀벌레와 같은 다른 생명체를 해칠 수 있는 공간이라는 점을 반성적으로 성찰하고 있다. 따라서 자동차의 양면성을 파악한 ⑤의 학생의 반응이 가장 적절하다.

23 **예시 답안** 미물일지라도 모든 생명이 있는 것들을 지키려는 태도가 나타난다.

**출제 의도 및 해설** 글에 나타난 사례를 통해 생명을 바라보는 관점을 파악하는 문제이다. ㉔에는 옛날 티베트 승려들이 생명을 있는 것들을 지키기 위해 얼굴에 천을 두르고 다닌 사례가 제시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미물일지라도 생명을 중요시하는 태도가 반영되어 있다.

**평가 기준** ‘미물’, ‘생명’이라는 단어를 포함하여 ‘모든 생명을 지키려 한다.’는 태도를 서술한 경우 3점. 부분 점수 없음.

24 (가)는 어른놀이를 후회하는 ‘나의 내면 묘사를 통해, (나)는 ‘아내’와 ‘그’, 임 씨의 대화를 통해 인물의 심리를 드러내고 있다.

25 (가)에서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이번 해에도 배추 농사에서 큰돈을 만졌다 하더라도 이번 해에는 지난해보다 배추 농사에서 큰 돈을 번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26 ‘나’가 현재 서술하는 시점은 18살 가을이다. ㉠은 19살 때를, ㉡은 18살의 여름과 가을 사이를, ㉢은 스무 살 때를, ㉣은 17살 때를 의미한다. 따라서 시간 순서대로 나열하면 ㉢ - ㉡ - ㉠ - ㉣이다.

27 **예시 답안** ‘나’는 어떤 일에는 다 때가 있다는 것과 자신이 이태 동안 한 것이 어른 노릇이 아니라 어른놀이였다는 것을 깨닫고, 농사를 그만두기로 결심한다.

**출제 의도 및 해설** 인물의 내면 묘사에 나타난 생각 변화를 파악하는 문제이다. ‘나’의 깨달음이 나타난 구절을 찾고 이를 바탕으로 ‘나’가 농사를 그만두기로 결심했음을 제시해야 한다.

**평가 기준**

평가 기준	배점
‘나의 깨달음을 두 가지로 제시한 경우(각 1점)	2
‘나가 농사를 그만두기로 결심함을 서술한 경우	1
	3

28 (나)의 ‘그’는 임 씨가 일을 잘하는지 살펴보고 있을 뿐 임 씨의 일을 돕고 있지 않다.

- 오답 풀이** ① “사장님이야 며칠이 걸려도 ... 셈입니다.”에서 임 씨는 일을 빨리 끝낼 생각이 없음을 알 수 있다.  
 ② ‘아내는 내일까지 일이 계속된다는 게 벌써부터 지겨운 듯 했다.’에서 ‘아내는 공사가 빨리 끝나기를 바램을 알 수 있다.  
 ④ ‘그는 하는 수 없이 다시 목욕탕을 들여다보지 않을 수 없었다.’에서 ‘그’는 아내가 시키는 대로 임 씨가 하는 일을 지켜봄을 알 수 있다.  
 ⑤ ‘왔다 갔다 하지만 말고 가서 지켜 보세요 ... 있다구요.’에서 아내는 임 씨가 일을 제대로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함을 알 수 있다.



29 **예시 답안** 편견을 가지고 타인을 불신하는 모습으로 나타나 있다.

**출제 의도 및 해설** 인물의 모습에 나타난 소시민적 모습을 파악하는 문제이다. (나)에서 '그'와 '아내'는 임 씨가 일을 제대로 하지 않을 것이라고 불신하고, 일하는 모습을 감시하는 등 초조하고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평가 기준** 편견과 타인에 대한 불신, 불안, 초조함 등의 면모를 포함하여 서술한 경우 4점. 부분 점수 없음.

### 창의·논술형 수행 평가 대비하기

본문 90~91쪽

01 **예시 답안** 이 시의 화자는 봄눈을 맞는 나무들이 눈을 감고 있을 것이라고 보고, 그 모습의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있다. 그 아름다움을 표현하기 위해 봄눈을 맞는 나무와 나무에 내리는 눈송이를 의인화하여 표현하고 있으며, '눈'의 중의적 의미를 활용하여 '감은 눈'의 의미를 보다 폭넓게 확장하고 있다. 이처럼 아름다운 대상을 감각적인 표현으로 아름답게 표현된 시를 통해 독자는 정서적으로 고양될 수 있다.

**출제 의도 및 해설** 내용적 측면과 형식적 측면에서 작품의 표현 방법과 그 효과를 정리함으로써 문학의 미적 기능을 이해하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문제이다. 내용적 측면의 아름다움은 봄눈을 맞는 나무들의 아름다움이고, 형식적 측면의 아름다움은 의인법, 중의법, 돈호법, 영탄법 등 다양하다. 이러한 내용들을 <조건>에 맞게 서술하도록 한다.

02 **예시 답안** (가)에서 '그'는 임 씨를 깔보면서 칭찬을 해 주어야만 일을 제대로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등 임 씨를 불신하고 있다. 그러나 (나)에서 임 씨가 열심히 일한 뒤에 정직하게 견적을 내는 모습을 보며 임 씨가 성실하고 좋은 사람이라는 타자 이해에 도달한다. 그 결과 (다)에서 '그'는 임 씨를 오해했던 것에 부끄러움을 느끼며 자아를 성찰하고 있다. 이러한 타자 이해와 자기 성찰을 통해 대상에 편견을 지닌 소시민의 모습과 자기 반성을 드러내고 있다.

**출제 의도 및 해설** 사건이 진행됨에 따라 변화하는 인물의 심리를 파악하고 그를 통해 이 글의 주제를 이해할 수 있는가를 확인하는 문제이다. (가)에서는 '그'가 임 씨를 불신하고 있는 점을, (나)에서는 임 씨가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되는 점을, (다)에서는 그 결과 '그'가 어떤 자아 성찰을 하고 있는지를 서술해야 한다.

## 2 문학의 수용과 생산

### (1) 문학 작품의 구성 원리와 수용

#### 1 산유화

내용 확인 문제

본문 98~99쪽

01 ⑤ 02 ③ 03 ④

01 4연의 산은 1연의 산과 동일한 공간적 배경으로, 꽃이 피고 지는 자연의 세계를 상징한다.

02 1연에서 2음보 1행과 1음보 1행으로 이루어진 3음보가 되풀이되고 있는 것처럼, 이 시는 3음보를 여러 행에 걸쳐 배열하였다.

**오답 풀이** ① 시어 '갈'은 '가을'을 줄여 표현한 것으로 시적 간결성을 형성하고 있다.

② 이 시의 1연과 4연은 '피네'를 '지네'로 바꾸어 동일하게 반복한 수미상관의 구조를 이루고 있다.

④ 1~4연에서 종결 어미 '-네'가 반복되며, 이러한 표현을 통해 감정을 절제하고 관조적인 태도를 보여준다.

⑤ '산에는 꽃 피네 / 꽃이 피네', '산에는 꽃 지네 / 꽃이 지네', '산에 / 산에'와 같이 동일한 시어와 문장 구조를 반복하며 시의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03 4연에서는 1연에서 피었던 꽃이 지는 모습을 형상화함으로써 존재의 소멸을 보여 준다.

**오답 풀이** ① 1연은 산에 피는 꽃을 통해 존재의 생성을 보여 준다.

② 2연은 산에서 혼자 피어 있는 꽃을 통해 존재의 고독을 보여 주고 있다.

③ 3연은 꽃이 좋아 산에서 사는 새를 통해 존재와 교감하고 싶어 하는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⑤ 1연과 4연의 수미상관 구조를 통해 자연의 순환을 드러낸다.

#### 2 속미인곡

내용 확인 문제

본문 104~107쪽

01 ① 02 ④ 03 ③ 04 글란 생각마오 05 ② 06 ③  
07 ③ 08 해설 참조

01 갑녀는 서사에서 을녀에게 '놀을 보라 가시'고'와 같은 질문을 함으로써 을녀의 대답을 끌어낸다. 이는 을녀가 자신의 상황을 하소연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오답 풀이** ② 이 작품의 주요 내용은 을녀의 하소연이므로 작품의 전체 분위기를 주도하는 것은 갑녀가 아닌 을녀이다.

- ③ 을녀가 임의 일상을 걱정할 뿐 임의 현재 상황은 제시되지 않았다.
- ④ 갑녀는 을녀를 위로할 뿐 을녀의 의문에 대한 답을 알려 주고 있지 않다.
- ⑤ 자신의 신세를 상대방에게 한탄하는 것은 을녀이고, 갑녀는 그 한탄을 들어 주고 있다.

**02** 농사일에 대한 내용은 본문에 나오지 않고 있으며, 이 작품에서 ‘임’은 ‘임금’을 의미하고 있으므로 농사일과는 거리가 멀다.

**03** 두 여인의 일상적인 대화로 이루어진 작품으로, 순우리말의 묘미를 잘 살리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오답 풀이** ① 이 작품은 ‘가사’에 해당하며 4음보의 율격을 갖추고 있다.

**04** 갑녀와 을녀의 대화를 구분할 수 있는지, 그리고 각각의 대화가 어떤 맥락과 의미를 담고 있는지 파악하는 문제이다. 이 작품에서 을녀의 한탄에 대해 갑녀는 ‘글란 생각 마오’라고 하며 위로하고 있다.

**05** 을녀는 잠시 잠이 들었을 때에 꿈에서 임을 만나는 꿈을 꾸었을 뿐, 임을 만나지 못했다.

**06** ‘일월’은 ‘해와 달’을 가리키며, 이는 ‘임(임금)’을 의미한다.

**오답 풀이** ①, ②, ④, ⑤ ‘구름’, ‘안개’, ‘바람’, ‘물결’은 모두 임과 나를 가로막는 존재를 의미한다.

**07** 을녀는 차라리 죽어 ‘낙월’이 되겠다고 하였으나, 갑녀는 을녀에게 ‘구준비’나 되라고 하였다.

**오답 풀이** ⑤ ‘낙월’과 ‘구준비’는 모두 공간적, 심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을녀와 임을 이어 주는 ‘매개물’의 역할을 한다.

**08** **예시 답안** 작가는 비록 탄핵을 받아 임금의 곁을 떠나게 되었지만, 임금(선조)을 걱정하는 마음이 한결같고 간절하다는 것을 보여 주기 위해서 이와 같은 작품을 창작하였다.

**출제 의도 및 해설** 작품의 시대적 상황과 작가의 삶을 토대로 창작 의도를 파악하는 문제이다. 본문에서 작가를 대변하는 화자인 을녀는 임의 소식을 알기 위해 산과 강을 배회하거나 꿈에서 만나는 등 임을 향한 간절한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평가 기준**

평가 기준	배점
임금을 걱정하는 마음이 한결같고 간절하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창작 의도를 서술한 경우	4
맞춤법에 알맞고 자연스러운 한 문장으로 쓰지 못한 경우	-1

### 3 유자소전

내용 확인 문제

본문 114~121쪽

- 01 ④    02 ⑤    03 ④    04 ③    05 ⑤    06 ④
- 07 ⑤    08 ③    09 ①    10 해설 참조    11 ⑤
- 12 ④    13 해설 참조

**01** 시간적 배경이 묘사되고 있지 않으며, 인물의 성격 변화를 암시하는 부분 또한 찾을 수 없다.

**오답 풀이** ① ‘그는 어려서부터 … 살게 된 바탕이었다.’, ‘그러므로 주변머리 … 소홀함이 없었다.’ 등에서 많은 어구를 이용하여 인물의 특성을 장황하게 표현하였다.

② ‘힘써 널리 보고 애써 널리 들은’, ‘스스로 갖추어진 쯤대와 나름것이 루어진 주건’, ‘주변머리 없이 기대거나 자발머리없이 나대어서’ 등에서 대구 표현이 나타난다.

③ ‘1941년 홍성군 … 바탕이었다.’에서 유재필의 출생과 성장 과정을 요약하여 제시하고 있다.

⑤ ‘그러나 여느 사람처럼 … 허름송이는 아니었다.’, ‘체취는 그윽하고 … 체질이 묵중한 사내였다.’ 등에서 서술자의 의견, 평가가 나타난다.

**02** 유재필은 주변의 눈치를 살피며 옹고그름에 대해 떳떳하게 말하지 못하는 사람을 싫어한다고 하였다.

**03** ‘자(子)’는 스승을 높여 부르거나 학덕이 높은 사람의 성 뒤에 붙여 그를 높여 부르는 말로, 이 글의 ‘나’(서술자)는 친구를 두고 ‘유가(俞哥)’가 아닌 ‘유자(俞子)’라고 말하면서 그의 삶과 인품에 대한 존경심을 표하고 있다.

**04** 이 글에서 노파는 쌀이나 연탄을 들여 줄 때는 회사에서 오래 그렇게 돌봐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였으므로, 유자가 쌀이나 연탄을 주는 것에 큰 감동을 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05** 유자는 쌀이나 밀가루 배달, 연탄을 쌓아 주는 것을 마칠 때까지 집을 떠나지 않고 있는데, 이는 자신이 도와줄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따뜻한 마음 때문이다.

**06** 서술자는 유재필을 유가가 아닌, 유자로 부를 만큼 존경심을 표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유자가 어려운 형편의 사람들을 도와주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유자의 행동은 이웃들에게 따뜻한 위로가 되었다. 이는 노파가 유가가 골목을 빠져 나갈 때까지 눈시울을 적시는 대목에서도 엿볼 수 있으므로 서술자는 유자의 자상한 마음씨 덕에 스페어 운전수 가족들이 위로를 받았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07** 이 글에서 유자는 바닷가인 대천에서 자라, 밥상에 생선과 같은 버린 반찬이 없으면 음식을 제대로 먹은 거 같지 않아 했다고 하였다. 즉 그가 매번 ‘새끼 굴비’를 사는 것은 그의 기준에서 ‘새끼 굴비’가 반찬다운 반찬으로 여겨졌기 때문이다.

**08** 유자는 직접 사고를 낸 당사자가 아니었지만, 사고를 낸 운전수가 연행되거나 아예 달아나 버린 경우 분풀이할 대상이 없어 야속했던 유가족들에게 운전사의 소속 회사 사람이라는 이유로 분풀이 대상이 되었다.

**09** 유자는 유가족들에게 폭언과 폭력을 당하면서, 자신의 과거와 집안 내력을 언급하며 스스로에게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고 있다. 이때 유자는 속상함, 억울함, 원통함, 답답함 등의 감정을 느꼈을 것이다. 그러나 혼잣말을 통해 분노를 표출했다고 볼 수는 없다.

**10** **예시 답안** 예전과 달리 봉변을 당하지 않고, 오히려 유가족의 위로를 받았다. 이를 통해 기지를 발휘해 난처한 상황을 모면하는 유자의 뛰어난 처세 능력이 나타난다.

**해설** ‘그가 찾아낸 예방책’이란 유가족들의 봉변을 피하기 위해 유자가 피를 낸 처세에 해당한다. 이로 인해 유자는 이전과 달리 폭언이나 폭력을 당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유가족들의 위로를 받기에 이른다. 이는 난처한 상황을 뛰어난 처세로 모면하는 유자의 특성을 보여 준다.

**평가 기준**

평가 기준	배점
유자의 처세에 따른 유가족의 전후 행동을 비교한 내용을 포함한 경우	2
뛰어난 처세 능력이라는 유자의 특성을 밝혀 서술한 경우	2

**11** 이 글에서는 ‘-지유’, ‘-힐규’, ‘찌웃그리다’ 등의 방언이나 ‘자빠지구’, ‘죄일 늬덜’ 등과 같은 비속어가 나타나고 있는데, 작품에 사용된 이러한 방언이나 비속어는 작품에 해학적 분위기를 더해 준다.

**12** 서술자는 유자를 고용하고 유자에게 업무를 부여한 총수에 대한 인물평을 제시하여 유자를 평가하고 있다. 총수에 대한 평가에서 서술자는 총수가 사람을 보는 눈이 있고, 사람을 부리는 편이 있었다고 언급하였는데, 이는 총수가 유자의 능력을 높이 산 것에 동의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를 토대로 할 때, 서술자는 유자가 난처한 상황에서도 누구보다 원만하게 일을 처리해 내는 사람이라고 평가했을 것임을 알 수 있다.

**13** **예시 답안** 유자는 유가족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침 놓는 법, 풍수지리, 수맥을 배우는데, 이는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한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유자의 성품이 드러난다.

**출제 의도 및 해설**

이 글에 나타난 유자의 성품을 파악해 보는 문제이다. 유자는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빈소에 드나들면서 몸이 좋지 못한 유가족들을 봐 주려 침 놓는 법을 배우고, 뒷자리를 정해 주기 위해 풍수지리와 수맥을 배우는데, 이는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한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유자의 성품을 드러낸다.

**평가 기준**

평가 기준	배점
유자가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 배운 것으로 침 놓는 법, 풍수지리, 수맥을 언급한 경우(각 1점)	3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유자의 성품을 드러낸 경우	2

**소단원 평가 문제 미리 보기**

본문 128~133쪽

- 01 ④
- 02 ④
- 03 ⑤
- 04 ④
- 05 ⑤
- 06 ③
- 07 해설 참조
- 08 ①
- 09 ④
- 10 해설 참조
- 11 ②
- 12 ⑤
- 13 ④
- 14 ④
- 15 ①
- 16 해설 참조
- 17 ⑤
- 18 ①
- 19 ②
- 20 해설 참조

**01** (가)는 산(山)을 제외하고는 한자어나 외래어의 어휘나 어투가 나타나지 않은 일상적인 우리말을 사용하였고, (나)는 두 여인의 일상적인 대화로 이루어져 있다. 두 작품은 이를 통해 순우리말의 묘미를 살리고 있다.

**오답 풀이**

- ① (가)는 3음보, (나)는 4음보의 율격을 지니고 있다.
- ② 계절이 언급되고는 있으나 계절의 변화에 따른 자연의 모습은 (가)와 (나) 모두에서 묘사되고 있지 않다.
- ③ (가)는 자연의 생성과 소멸이라는 대자연의 섭리를, (나)는 임에 대한 그리움을 보이고 있을 뿐, 자연물과 합일하고자 하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는다.
- ⑤ (나)에서는 임을 향한 그리움을 찾아볼 수 있으나 제시된 부분에서는 자연물을 매개로 이를 표현하고 있지는 않다.

**02** ㉠의 ‘미친 일’은 ‘땃힌 일’이라는 의미로 화자가 임에게 사랑을 다하지 못한 점이나 임을 제대로 모시지 못한 점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는 임을 향한 원망이 아니라 스스로에 대한 책망을 드러낸다. 또한 이 밖에도 (나)에는 임을 향한 원망의 내용이 나타나지 않는다.

- 오답 풀이** ① '가을'을 '갈'로 줄여 표현하여 시적 간결성과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 ② '작은 새'는 꽃을 좋아하지만 그 꽃이 '저만치' 혼자서 피어 있기 때문에 '작은 새' 또한 고독한 존재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 ③ '천상 백옥경'은 옥황상제가 사는 하늘의 수도로, 신선의 세계를 의미한다. '더 각시'(을녀)에게 '천상 백옥경을 어찌하여 이별하고'라고 묻는 것에서 '더 각시'(을녀)를 천상에서 내려온 존재로 설정했음을 알 수 있다.
- ⑤ 화자는 '기나긴 밤에 잠은 어떻게 주무시는가'라고 하며 임의 잠자리까지 걱정하는 세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03** '저만치'는 '저만한 거리를 두고'로도 '저렇게'로도 읽을 수 있는데, '저만한 거리를 두고'로 읽을 경우, 화자와 꽃 사이의 거리나 꽃과 꽃 사이의 거리, 혹은 꽃과 인간 세계의 거리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이 경우 꽃은 대상과의 거리를 드러낸다는 점에서 존재의 근원적 고독을 보여 준다. 반면 '저렇게'나 '저처럼'으로 읽을 경우 꽃이 피어 있는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04** (가)는 <보기>에서 설명하는 수미상관의 구성을 취하고 있는데, 1연의 '피네'를 4연에서는 '지네'로 변형하여 나타내고 있다. 이는 개화가 낙화로 이어지는 자연스러운 섭리를 나타낸 것으로, 다시 낙화가 개화로 이어질 것임을 보여 준다. 따라서 (가)는 수미상관의 구조를 통해 생성과 소멸을 거듭하는 대자연의 섭리를 보여 주고 있다.

**05** '더 각시'(을녀)는 임과 이별한 사연에 대해 답하면서도 그 이유가 무엇인지 밝히지 않고 있다. 또한 임의 변심을 원망하거나 임과 자신의 사이를 멀어지게 한 누군가를 비난하는 말도 하지 않는다. 오히려 모든 것을 자신의 탓으로 여기거나, 조물주의 탓으로 돌리며 운명에 체념하는 태도를 보인다.

**오답 풀이** ①, ② '네'(갑녀)의 '데 가는 더 각시 본 듯도 혼더이고'와 '더 각시'(을녀)의 '어와 네여이고'에서 두 화자가 이미 서로 알고 있음이 나타난다. 또한 '데 가는 더 각시'라고 표현함으로써 '더 각시'가 어딘가 가고 있던 중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 ③ '더 각시'는 임의 소식을 궁금해하며 임의 안부를 걱정하고 있다.
- ④ '내 얼굴 이 거동이 님 과암죽 훈가마는 / 엇딘디 날 보시고 네로다 녀기실시'에서 임과의 좋았던 기억을 이야기하고 있다.

**06** 조선 시대에는 정치적으로 실패한 신하가 임금을 향한 마음을 표현하기 위한 방법으로 남녀 관계를 활용하였다. 즉, 자신을 여인으로, 임금을 임으로 설정하여 자신의 비극적 심정을 대리로 발산하였는데, (나) 역시 이를 활용하여 임금을 걱정하는 마음이 한결같고 간절하다는 것을 보여 주고자 하였다.

**07** **예시 답안** 갑녀는 서두의 질문을 통해 주의를 환기하며 을녀의 대답을 유도하고, 또 을녀의 하소연을 듣고 을녀를 위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해설** (나)는 두 여인의 대화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두 여인 중 작가의 생각을 보여 주는 인물은 을녀이나, 갑녀는 이를 더욱 극적으로 표현하게 해 준다. 즉, 갑녀가 질문을 통해 을녀의 대답을 유도하거나, 을녀의 말에 대해 위로해 주는 것이 바로 이에 해당한다.

**평가 기준**

평가 기준	배점	
갑녀가 질문을 통해 을녀의 대답을 유도하였다는 내용을 서술한 경우	2	4
갑녀가 을녀에게 위로를 해 주었다는 내용을 서술한 경우	2	

**08** 화자는 임 계신 곳의 소식을 어떻게 해서라도 알려고 하여 임의 소식을 전해 줄 사람이 올까 기다렸지만 사람은 오지 않았다. 그리하여 마음 둘 곳이 없어 직접 길을 나선 것이다.

**09** ㉠은 대구법을 활용하여 외적인 조건으로 인해 임 계신 곳을 보지 못하는 화자의 안타까운 심정을 드러내고 있다.

**10** **예시 답안** 비는 흔히 눈물로 비유되거나 눈물을 연상할 수 있으므로, 임에게 자신이 얼마나 슬픈지 알려 주기 위해서 '긷은비'가 되라고 하였을 것이다. 또한, 달과는 달리 비는 임에게 가 닿을 수 있다는 점에서 임에게 가까이 가라고 '긷은비'가 되라고 하였을 것이다.

**해설** ㉠은 갑녀의 충고로,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을녀와 대비되는 적극적인 모습을 나타낸다. 이는 달과 비의 이미지 차이로 나타나는데, 밝은 이미지의 '달'은 임을 비취 주는 빛으로 하늘 높이 떠 있다. 즉, '달'의 경우에는 임을 비취 주고 바라보는 존재에 불과하나, '긷은비'는 차가운 이미지로 외로운 신하의 원망 어린 눈물을 상징함과 동시에 임이 있는 곳까지 닿을 수 있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평가 기준**

평가 기준	배점	
'자신이 얼마나 슬픈지 알려 주기 위해서'라는 내용을 서술한 경우	2	4
'임이 있는 곳까지 가 달기 위해서'라는 내용을 서술한 경우	2	

**11** 이 작품과 달리 <보기>의 화자는 꿈을 꾸지 않고 있다. 범나비가 되어 향 문헌 날개로 임의 옷으로 옮긴다는 것은 <보기>의 화자가 하는 상상일 뿐, 꿈은 아니다.



**오답 풀이** ③ <보기>는 시름을 잊으려 하여도 마음 속에 맺혀 있어 뺏 속에 사무쳐 명아가 열 명이 오더라도 병을 낫지 못하겠다고 하며 과장된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 작품에는 이와 같은 과장된 표현은 나타나고 있지 않다.

**참고 자료**

● <보기> 원문 살펴보기

후루도 열두 새, 훈들도 설흔 날 저근덧 심각 마라 이 시름 닛자 후니, 무옴의 미쳐 이서 骨髄髓슈의 깨터시니, 扁鵲鵲작이 열히 오나 이 병을 었디후리. 어와, 내 병이야 이 님의 타시로다. 출하리 식어디여 범나브 되오리라. 곳나모 가지마다 간 디 족족 안니다가, 향 므틴 놀애로 님의 오시 올므리라, 님이야 날인 줄 모르셔도 내 님 조초려 후노라.

**12** ㉠와 [A]는 모두 '달'과 '나비'라는 자연물로 변신하여 죽어서도 입을 따르겠다는 화자의 확고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부분에 해당한다.

➔ **작품 더 보기**

● 정철, <사미인곡>

- 갈래: 가사(서정 가사, 양반 가사)
- 주제: 임금을 그리는 마음(연군지정), 이별한 임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과 사랑(임금에 대한 변함없는 충성심)
- 해제: 임금을 사모하는 신하의 마음을, 한 여인이 그 남편을 생이별하고 그리워하는 연모의 내용으로 바꾸어 표현한 작품이다. 전체의 내용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의 계절적 변화에 따라 사무친 그리움을 노래하고 있으며, 외로운 신하가 임금을 그리워하는 마음은 계절의 변화와 관계없이 한결같음을 보여 준다.

**13** 이 글에서는 서술자가 편집자적 논평을 통해 인물에 대해 직접적으로 평가하여 이를 독자에게 전달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③ 간결체가 아닌 만연체의 문장을 주로 사용하고 있다.

⑤ 인물에 대한 주관적인 평이 나타난다.

**14** ㉠은 유자(유재필)를 가리킨다. '그냥 보면 그저 그렇고 그런 보통 사람에 불과한 친구였다.'라는 서술을 통해, 그는 잘 알지 못하면 특별한 인물인지 알기 어려운, 일견 평범해 보이는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다.

**15** [A]는 범중엄의 시 <약양루기>의 한 구절이 인용된 부분으로, 유자의 어진 인품을 보여 주고 있다. 이를 통해 서술자는 유자의 덕량을 평가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④ 유자에 대한 다른 사람의 평은 나와 있지 않다. 인용된 구절은 바람직한 관리·지도자상을 거론할 때 자주 인용되는 시구일 뿐, 유자에 대한 다른 사람의 평으로 보기 어렵다.

**16** **예시 답안** ㉠은 인물에 대한 서술자의 평가로 볼 수 있으며, 서술자는 ㉠을 통해 유자의 인품과 생애에 대한 존경심을 표하고자 하였다.

**출제 의도 및 해설** 서술자가 인물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으며, 그 방식이 무엇인지 파악해 보는 문제이다. '자(子)'는 스승을 높여 부르거나 학덕이 높은 사람의 성 뒤에 붙여 그 사람을 높여 부르는 말이다. 서술자가 친구 유재필을 '유가'가 아닌 '유자'라고 한 것은 그를 높이기 위함으로, 이는 인물에 대한 서술자의 평가로 볼 수 있다. 또한 이렇게 서술자가 그를 높이는 이유는 그의 인품과 삶에 대해 존경심을 표하기 위해서이다.

**평가 기준**

평가 기준	배점
㉠이 서술자의 평가라는 역할을 제시한 경우	2
㉠과 같은 표현을 사용하여 인물에 대한 존경심을 표하고 자 한 서술자의 의도를 서술한 경우	2
	4

**17** 이 글에 따르면 유자는 빈소의 형식이 불교색인지 기독교색인지도 살피지 않고, 절부터 하고 꿇어앉았다. 따라서 ㉠은 사망자의 종교와 특색을 미리 파악해 그대로 행동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18** 비판적 수용은 자신의 관점에서 옳고 그름, 넓고 좁음, 깊고 얕음 등을 따지며 비판적으로 읽는 방법이다. 지윤은 유자의 업무 처리 방식에 대해 정직하지 않다하여 자신의 관점에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②, ⑤ 공감적 수용의 자세를 보이고 있다.

③, ④ 창의적 수용의 자세를 보이고 있다.

**19** 이 글과 <보기>에는 모두 방언과 비속어가 나타나 있다. 이 글에는 '-여'의 어머니 '그런디', '찌웃그리메' 어휘 등에서, <보기>에는 '-여', '-구'의 어미 등에서 방언을 살펴볼 수 있다. 또한 이 글의 '찍일 늬덜', '해 처먹구' 등과 <보기>의 '새끼덜', '그넨' 등에서 비속어를 찾을 수 있다. 이와 같이 방언을 사용하면 토속적인 정감을 불러 일으키고, 비속어를 사용하면 작품의 사실성을 더해 준다.

**오답 풀이** ① 이 글에는 총수에 대한 서술자의 평이 나타나지만, <보기>에는 그러한 평가가 나타나 있지 않다.

③ 이 글은 서술자와 인물 사이에 있었던 일이 아닌, 유자가 노선 상무 업무를 하며 겪은 일들을 주로 다루고 있다.

④ 이 글에 제시된 내용만으로는 서술자와 인물이 구체적으로 어떤 관계에 있는지 알기 힘들며, <보기>의 경우 유언을 할 만큼 각별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⑤ <보기>와 이 글 모두 인물에 대한 다른 사람의 평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 작품 더 보기

● 이문구, <공산토월>

- 갈래: 단편 소설, 연작 소설
- 주제: 이타적 인물인 석공의 삶에 대한 추모
- 해제: 이문구의 연작 소설 《관촌 수필》의 다섯 번째 소설로, '나'의 고향 이웃인 신현석의 삶과 죽음이 기록되어 있다. '빈 산이 토한다.'는 의미의 '공산토월'이란 제목은 평생 자신을 희생하며 주변 사람들을 위해 굶은 일을 마다하지 않던 신현석의 삶을 나타낸 것이다. 돌을 좋아하고 돌을 다듬는 일을 잘한다 하여 '석공'이라 불리던 신현석은 '나'의 가족과 관련한 모든 어려운 일을 돌봐 준 고마운 이였으나, 젊은 나이에 백혈병으로 세상을 뜨고 만다.

20 [예시 답안] '그리고 보면 그의 총수는 ... 익히 알고 있었던 것이다.'에서 서술자의 평가를 추측할 수 있다. 서술자는 총수에 대한 인물평을 제시하여 유자를 평가하고 있는데, 유자가 난처한 상황을 문제없이 해결할 줄 아는 수완이 좋은 사람이었음을 나타내고 있다.

[출제 의도 및 해설] 서술자가 유자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으며, 이를 어떠한 형태로 드러내고 있는지를 추론하는 문제이다. 서술자는 총수에 대한 평가를 내리면서 총수가 유자의 능력을 알아본 인물임을 밝히고 있다. 이를 통해 서술자는 총수의 생각처럼 유자 능력 있고 수완이 좋은 사람이라고 평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평가 기준]

평가 기준	배점
유자에 대한 서술자의 평가를 추측할 수 있는 부분을 제시한 경우	2
유자에 대한 서술자의 평가를 서술한 경우	2

② 문학과 인접 분야, 문학과 매체

1 세일에서 건진 고흐의 별빛

내용 확인 문제 본문 136~137쪽

- 01 ④ 02 ③ 03 해설 참조

01 일반적으로 서정시는 대상과의 대화보다는 독백으로 이루어지는데, 이 시는 화자가 전달하는 주제 의식을 강조하기 위해 화자가 그림의 등장인물인 농부들에게 질문을 하는 대화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이 시는 음모율이 명확히 드러나 있지 않다.

② 색채의 선명한 대조는 드러나 있지 않다.

③ 유사한 어구가 반복되고는 있으나, 이는 주제 의식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시적 상황의 긴박감은 나타나 있지 않다.

⑤ 이 시에서는 현재형 시제를 사용하여 마치, 농부가 오는 모습을 동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02 그림 왼편 귀퉁이에 희미한 것 하나가 박혀 있다고 하였는데, 화자는 이를 '별'이라고 보았다.

03 [예시 답안] 시적 화자는 질문을 통해 세상의 모든 별들은 노래한다(세상의 모든 존재들은 빛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출제 의도 및 해설] 시에 나타난 화자의 질문을 통해 시의 주제 의식을 파악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문제이다. 의문의 형식을 띠고 있으나 실제로 시적 화자가 한 질문은 대답을 요구하는 것이 아닌 '세상의 모든 별들은 노래한다.'라는 생각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이는 세상의 모든 존재들에 대한 애정을 보인 것이라 할 수 있다.

[평가 기준] '세상의 모든 별들은 노래한다.' 혹은 '세상의 모든 존재들은 빛난다.'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서술한 경우 4점, 부분 점수 없음.

2 뿌리 깊은 나무

내용 확인 문제

본문 143~151쪽

- 01 ② 02 ③ 03 ④ 04 ① 05 ③  
06 이순지, 심종수 07 ④ 08 ② 09 해설 참조 10 ②  
11 ⑤

01 시나리오는 등장인물 수에 제약을 크게 받지 않는데, 이는 시위하는 유생들의 모습을 화면에 구현하라는 지시가 본문에 나오는 데에서도 알 수 있다.

[오답 풀이] ③ 이 글에는 S#, cut, 몽타주와 같은 시나리오 용어가 사용되었다.

02 혜강은 새 글자를 창제하는 일을 성리학의 도를 버리는 일로 보고 이도의 새 글자 창제에 반대하였다.

[오답 풀이] ① 혜강은 이도에게 백성들의 소리를 들으면 된다고 말하였지만, 백성들의 소리를 듣기 위해 한자를 사용할 것을 주장하고 있지는 않다.

② 혜강은 관료들이 백성들의 소리를 왜곡하여 올리기 때문에, 새 글자를 창제하여 백성들의 언로를 터 주어야겠다는 이도의 말에 반박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부정적인 입장을 지니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 ④ 혜강은 백성의 소리를 들으라고 이야기하며, 백성의 소리를 듣는 것이 임금의 일이라고 보았다.
- ⑤ 혜강은 '무' 자를 예로 들어 한자 자체에 유학의 도가 담겨 있다고 주장하였다.

**03** 한자와는 달리 이도가 만든 글자 자체에는 유학의 도나 개념이 들어있지 않다. 이는 다른 이적의 글자에 이런 도가 있을 수 있느냐는 혜강의 말에 '아니오, 없소.'라고 대답하는 데서도 나타난다.

- 오답 풀이** ① 정도전의 저서 《경제문감》을 인용하여 상대방을 설득하고 있다.  
 ② 유학의 덕목인 '작개언로 달사총'을 언급하고 있다.  
 ③ 임금임에도 불구하고 권력으로 유생들을 억압하지 않고 토론을 통해 민주적으로 설득하려 하고 있다.  
 ⑤ 이도의 대사를 통해 점점 강한 목소리로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고자 하는 의지가 나타나 있음을 알 수 있다.

**04** '힘들고 지친 표정으로 들어오는 이도', '한숨 쉬며' 등의 지시문을 통해 이도가 느끼는 힘겨움과 고뇌를 보여 주고 있다.

- 오답 풀이** ② 인물의 대사를 통해 한글 창제의 필요성과 반대의 근거를 나타내고 있다.  
 ③ 장면을 자주 전환하여 이도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 논쟁하는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④ '힘들고 지친 표정' 등을 통해 인물이 글자 창제 과정에서 느끼는 감정을 드러내고 있다.  
 ⑤ 이 글에서는 '성삼문 술 마신 곳(낮)', '글자방(낮)'과 같이 시간적·공간적 배경을 드러내고 있다.

**05** '1-②' 부분에 따르면 이도가 《삼강행실도》와 《농사직설》을 백성들에게 읽히게 하고 싶어 한글을 창제하려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백성들이 글자를 알아 책을 읽음으로써 스스로 깨닫고 이를 실천하게 하기 위함으로 볼 수 있다.

- 오답 풀이** ① 대화는 글자를 몰라도 가능한 것이므로 이를 이도의 글자 창제 의도로 보기 어렵다.  
 ② 백성들이 직접 관리가 되게 하겠다는 내용은 나와 있지 않다.

**06** 지시문과 인물의 대사 등을 바탕으로 하여 인물의 태도를 파악해야 한다. '1-②'에서 이순지와 심종수는 각기 자신의 견해를 들어 이도의 한글 창제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07** ①은 충격을 받은 인물의 모습을 대사 없이 지시문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이는 극 중 상황에서 충격을 받은 인물의 상황을 효과적으로 보여 준다.

- 오답 풀이** ① 지시문은 시나리오의 구성 요소에 해당한다. 구성단위에 해당하는 것은 장면(S#)이다.

**08** 가리온과 한가 높은 새 글자의 파급력에 대해 체감하지 못하다가 개파이와 연두가 새 글자를 이들 만에 익혀 사용하는 것을 보고 글자를 소리 그대로 표현하는 새 글자의 파급력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09** **예시 답안** ① 글자를 배우고 쓰기가 매우 쉽다. ② 말소리를 그대로 글자로 표현할 수 있다.

**출제 의도 및 해설** 이 글에 드러난 인물의 행동을 토대로 이도의 글자가 지니는 장점을 추론하는 문항이다. 한가 놈의 대화에 따르면, 이들 만에 개파이와 연두는 자기의 이름을 쓰고 문장을 쓸 수 있게 되었다. 이를 통해 이도의 글자는 배우고 쓰기가 매우 쉬움을 알 수 있다. 또한 가리온이 말하는 것을 그대로 글자로 적는 것으로 보아, 이도의 글자는 말소리를 그대로 글자로 표현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평가 기준**

평가 기준	배점
글자를 배우고 쓰기가 매우 쉽다는 내용을 서술한 경우	2
말소리를 그대로 글자로 표현할 수 있다는 내용을 서술한 경우	2
	4

**유사 정답** '말소리를 그대로 글자로 표현할 수 있다'는 내용 대신에 '표음 문자'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도 정답으로 인정함.

**10** 가리온은 원래 이도가 만든 글자를 큰 위협으로 느끼지 않아 이신적을 시켜 거래가 성사되도록 하였으나, 개파이와 연두가 글을 쓰는 것을 본 후로 거래를 중지시키는 것으로 태도를 바꿨다.

**11** 화면 분할 기법은 한 화면을 두세 개의 구획으로 나누어 여러 인물이나 장면을 동시에 보여 주는 방법이다. S# 59에서 '웃으며 가는 이도와 심각한 가리온'은 현재 서로 다른 공간에 존재하지만 이 둘을 한 화면에 보여 주고 있는데, 여기에 화면 분할 기법이 사용됨을 알 수 있다.

**소단원 평가 문제 미리 보기**

본문 159~163쪽

- 01 ②
- 02 ⑤
- 03 해설 참조
- 04 ①
- 05 ③
- 06 ①
- 07 ⑤
- 08 ①
- 09 ①
- 10 ③
- 11 해설 참조
- 12 ④
- 13 해설 참조
- 14 ①
- 15 ③

**01** 화자는 '보리밭', '외로운 별', '농부들'을 열거하며 '빛나라'라고 말하고 있는데, '빛나라'를 반복함으로써 주제 의식을 강조하고 있다.

- 오답 풀이** ⑤ 그림을 보는 화자의 시선은 그림의 중앙에서 아래로, 다시 상단부로 이동하고 있다.

02 이 시의 화자는 '세상에 빛나지 않는 게 어디 있는가'라고 하여 세상의 모든 것들은 빛난다고 본 반면에, <보기>의 화자는 고희의 암울했던 생애를 바탕으로 하여 '세상에 빛나는 게 어디 있는가'라고 하면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작품 더 보기**

- 유하, <밤의 카페에서>  
- 갈래: 자유시, 서정시  
- 주제: 어둠 속에서 빛을 바라본 고희  
- 해제: 고희의 그림 <아들의 포럼 광장에 있는 밤의 카페 테라스>에서 영감을 받아 창작한 작품이다. 시 전문에서는 황동규의 <세일에서 건진 고희의 별빛>의 시구를 통해 시상을 열고 있으며, 고희의 자전적 삶은 암울했지만 그가 그린 그림은 환했다는 점에 주목하여 고희가 고통의 자리에서 놓지 않았던 희망을 형상화하고 있다.

03 **예시 답안** • 화자가 애정을 보이고 있는 대상: 별들, 편백나무, 보리밭, 외로운 별, 농부들  
• 대상들의 공통점: 이들은 모두 특별할 것이 없는 평범한 존재들이라는 공통점을 지닌다.

**출제 의도 및 해설** 작품의 주제 의식과 관련하여 화자가 관심을 가진 대상을 시에서 찾을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시에서 화자가 '빛나라'라고 하는 대상은 '별들', '편백나무', '보리밭', '외로운 별', '농부들'이며, 이들은 모두 특별할 것이 없는 평범한 존재들이라는 공통점을 지닌다.

**평가 기준**

평가 기준	배점	
'별들', '편백나무', '보리밭', '외로운 별', '농부들' 중 3개 이상을 언급한 경우(2개를 언급한 경우 2점, 1개를 언급한 경우 1점)	3	5
화자가 애정을 보이고 있는 대상들이 특별한 것 없는 평범한 존재들이라는 공통점을 서술한 경우	2	

04 ㉔는 왼쪽 귀퉁이의 희미한 것이 아니라 별들이 모여서 빛나고 있는 해에 해당한다. 왼쪽 귀퉁이의 희미한 것은 ㉔의 왼쪽 아랫부분에 있는 것으로, 화자는 이를 별이라고 보았다.

**오답 풀이** ㉓ ㉔는 편백나무 두 줄기로, 화자는 이를 의인화하여 표현하였다.

05 ㉔ 앞의 행에서 화자는 '세상에 빛나지 않는 게 어디 있는가.'라고 하여 설의법을 활용해 세상의 모든 존재는 빛난다는 생각을 나타내고 있다. 이를 토대로 할 때, 이 시의 화자는 세상에 빛나지 않는 것이 있다면 고희가 아직 그림으로 이를 표현하지 않았을 뿐, 세상의 모든 존재는 빛난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06 ㉔은 농부들에게 '저 별들이 왜 환하게 노래하고 있지요?', '세상에 노래하지 않는 별이 어디 있소?'라고 묻는 사람으로, 이는 해당 질문을 하고 있는 화자 자신을 의미한다. 세상의 모든 존재는 노래하고 있으므로 그런 질문을 하는 것이 이상하다는 화자의 생각이 나타나 있다.

07 이 글은 드라마 대본으로 장면과 소리와 같은 시청각적 요소와 인물의 말, 행동 지시문 등을 통해 인물의 생각을 보여 준다.

**오답 풀이** ㉑ 인물 간의 갈등은 나타나 있으나 언어유희는 찾아볼 수 없다.

08 이도는 유학에서 임금에게 가장 강조하는 덕목인 '작개언로 달사충'이라는 말을 인용하여 자신의 논리를 강화하고 있다.

09 '유리'의 의견대로 이순지와 이도는 사람의 자질을 글로 교화시킬 수 있는가의 여부를 두고 대립하고 있다. 이순지는 사람의 선악이 그 사람의 자질에 달려 있다고 하여 교화가 어렵다고 본 반면, 이도는 사람의 자질이 날 때부터 정해져 있지 않아 교화가 가능하다고 보았다.

**오답 풀이** '주희'가 언급한 것처럼 새로운 글자를 백성들이 사용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이 글에 나타나 있지 않다. 오히려 장은성과 이도는 선비가 한자를 버릴 수 있는 상황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또한 이 글에는 '지원'이 언급한 것과 같이 관리의 수를 늘렸을 때 백성들에게 지식을 전파할 수 있는가 여부에 대해서도 나타나 있지 않다. 다만, 이도는 관리를 늘리는 문제가 백성을 피해를 끼친다며 관리의 수를 늘리면 된다는 심중수와 다른 의견을 보이고 있다.

10 <보기>에 따르면, 채운은 이도의 백성을 향한 마음에 감동하여 생각을 바꾼다고 하였다. 이 글에서 이도는 백성을 사랑하는 자신의 마음을 드러내며, 이를 위해 새로운 글자를 창제하려고 함을 밝히고 있다. 따라서 <보기>를 토대로 할 때, ㉔은 백성을 향한 이도의 진심어린 마음에 감동하여, 그를 향한 채운의 생각과 감정이 바뀌고 있음을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드라마에서 인물의 시선 처리만으로 인물의 생각과 감정을 보여 주는 예에 해당한다.

11 **예시 답안** • 연출 방법: 몽타주

• 표현 효과: 새로운 글자를 창제하는 데 있어 적극적이고 의지가 강한 '이도'의 성격을 효과적으로 표현한다.

**출제 의도 및 해설** 시나리오에 사용되는 연출 방법의 종류와 그 효과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문항이다. ㉔에는 따로따로 촬영한 장면을 떼어 붙여 긴밀하게 연결하는 몽타주 기법이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이는 장은성, 이순지, 심중수와 대화를 통해 자신의 의견을 전달하는 이도의 적극적이고 의지가 강한 성격을 효과적으로 보여 준다.



평가 기준

평가 기준	배점
㉠의 연출 방법으로 '몽타주'를 제시한 경우	2
몽타주의 표현 효과를 적절히 서술한 경우	2

12 이도는 백성들을 위해 새 글자를 보급하는 이유로 연료를 절약 주기 위험을 이야기하였다. 이는 백성들이 자신의 생각을 관료 를 거치지 않고 직접 올릴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즉, 백성들이 억울한 일을 당했다 하더라도 직접 글을 써서 이를 올려 스스로 를 구제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다.

13 **예시 답안** ㉠과 비교할 때 ㉡은 이를 만에 쓸 수 있을 정도로 습 득 속도가 빠르다. 또한 ㉠은 글자의 의미를 표기하는 반면에 ㉡은 글자의 소리를 표기한다.

**출제 의도 및 해설** 글의 내용을 토대로 한자와 한글의 차이를 파악 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문항이다. 혜강의 말에 따르면 한자 (㉠)는 글자 하나하나가 모두 그 의미를 가지고 있다. 반면, 전 하의 글자인 한글(㉡)은 글자 하나하나에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다. 대신에 개파이와 연두가 한 글자씩 읽거나 다른 사람이 한 말을 그대로 받아쓰는 데에서 소리를 표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평가 기준

평가 기준	배점
㉠과 비교했을 때 ㉡의 습득 속도가 빠르다는 차이점을 서 술한 경우	2
㉠은 표의 문자로 의미를 표기하고, ㉡은 표음 문자로 소 리를 표기한다는 점을 서술한 경우	2

14 <보기>는 백성들이 글자를 배웠을 때의 상황을 가정하여 얘기 를 나누고 있는 반면에, 이 글은 글자를 배워 사용하는 인물을 직접 등장시키고 있다. 이러한 인물의 직접 등장은 글자 반포의 결과를 더 실감 나게 드러내는 효과를 가져다 준다.

**오답 풀이** ② 가리온이 받은 충격과 놀라움 등으로 볼 때, 새로운 글이 가져올 효과를 축소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③ 인물의 감정을 감각적으로 표현한 것은 <보기>가 아닌 이 글로, 이 글은 지시문과 행동을 통해 인물의 감정을 감각적이면서 구체적으 로 표현하고 있다.

④ 인물의 심리와 감정을 인물의 대사와 지시문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 은 <보기>가 아니라 이 글이다. <보기>는 서술자의 묘사와 인물 간의 대화를 통해 인물의 심리와 감정을 드러낸다.

⑤ <보기>와 달리 이 글에는 서술자가 직접 인물의 감정과 심리를 서술 하고 있는 부분은 나타나지 않는다.

15 '충격과 경악'이라고 하는 지시문이 앞에 나온 것으로 보아 가리 온은 개파이와 연두가 글자를 쓰는 것에 크게 놀랐음을 알 수 있 다. 따라서 ㉢는 가리온이 받았을 충격을 효과적으로 보여 주는 장치라고 할 수 있다.

(3) 문학 작품의 재구성과 창작

소단원 평가 문제 미리 보기

본문 175~177쪽

- 01 ③    02 ①    03 ⑤    04 해설 참조    05 ②    06 ②  
07 ③    08 해설 참조    09 ④    10 ①

01 (가)~(다)는 모두 각 연의 길이를 짧게 구성하여 간결함을 보여 주고 있으며, 이를 통해 주제를 형상화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가)는 '꽃'을, (나)는 '나'를, (다)는 '수학 시험'을 제재로 삼고 있다.

02 (가)는 '꽃'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나)는 '나', (다)는 '수학 시험'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작품의 내용을 일부 또는 전부 바꾸는 '내용 바꾸기'에 해당한다.

03 (다)의 화자는 수학 문제의 어려움에 대해 토로하고 있는데, 이 는 수학 시험에 한정되어 있는 것이므로, 자신의 깨달음이 모든 사물에 적용될 수 있음을 밝힌 것으로 보기 어렵다.

04 **예시 답안** ㉠은 세상의 모든 존재들이 모두 자기 나름의 아름다 움과 가치를 지니고 있음을 말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은 그 모 든 대상에 자신도 포함되는지 의문을 제기하면서 스스로에 대 한 성찰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을 ㉡으로 바꾼 것은 스스로 의 가치에 대한 생각(의문)을 드러내기 위함으로 볼 수 있다.

**출제 의도 및 해설** 원작과 재구성한 작품을 비교함으로써 재구성 활동의 목적과 의의를 파악할 수 있는지 평가하는 문제이다. (가)는 '너도 그렇다.'라고 하여 세상 모든 존재가 아름답다고 보 는 반면, (나)는 '나도 그럴까?'라고 하면서 자신의 존재적 가치 와 아름다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가) 를 읽은 (나)의 화자가 자신의 가치와 아름다움에 대해 고심한 흔적을 드러내기 위해서로 볼 수 있다.

평가 기준

평가 기준	배점
'스스로에 대한 성찰, 의문'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여 ㉠에 서 ㉡으로 바꾼 이유를 서술한 경우	3
㉠의 의미를 포함하여 서술한 경우	2

05 이 글은 1인칭 관찰자 시점을 활용하고 있는 작품으로, 서술자의 관찰을 통해 음악 선생님의 성격과 특성을 드러내고 있다.

06 가곡 <아무도 모르라고>는 음악 시간에 배운 가곡으로, '나'는 이미 그 노래를 알고 있었다.

07 친구는 음악 선생님을 찾아가 대학에 가고 싶고 노래를 잘 부르고 싶다는 자신의 바람을 말해 노래 실력을 갖추게 되었다.

- 오답 풀이** ① 친구는 대학에 꼭 가고 싶다고 하였다.  
 ② '나'와 그 친구는 단 한 번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를 나눈 적이 없었다.  
 ④ 음악 시간에도 그 친구는 평소처럼 입을 열지 않았다.  
 ⑤ 장기 자랑 시간에 그 친구에게 음악 선생님이 나와서 노래를 불러 보라고 시켰다.

08 **예시 답안** 선생님은 학생들이 지금의 꿈을 놓치지 말고 열심히 실천해 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에 ㉠과 같이 말하였다. 작가는 이를 통해 누구나 노력하면 간절히 바라는 것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전하고자 하였다.

**출제 의도 및 해설** 작품의 핵심적인 구절을 통해 작품의 주제와 작가의 의도를 파악하는 문제이다. 음악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너희의 미래는 ... 간절하게 바라는 바로 그것이다.'라고 하여 학생들이 자신이 간절히 바라는 바를 놓치지 않고 열심히 노력하기를 바라고 있다. 또한 작가는 친구의 사례를 통해 이를 직접 보여줌으로써 꿈을 향한 노력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

**평가 기준**

평가 기준	배점
선생님께서 ㉠과 같이 말한 이유를 적절히 서술한 경우	2
작가가 이 글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를 포함하여 서술한 경우	2
	4

09 뒷이야기 역시 '나'를 1인칭 서술자로 하며, 이야기의 초점은 '친구'에게 맞춰져 있다.

- 오답 풀이** ① 간절히 바라고 노력하면 꿈이 이루어진다는 주제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② 계속해서 음대 진학을 위해 노래 연습을 하였다는 데에서 찾아볼 수 있다.  
 ③ 선생님이 유학을 가기 위해 학교를 떠났을 때 학생들이 보인 반응에서 이를 찾아볼 수 있다.  
 ⑤ 폭력 조직과 관련된 사건을 추가해 새로운 위기 상황을 제시하여 이야기를 극적으로 전개하였다.

10 [A]에서 음악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좋은 목소리를 가질 수 있는 방법을 알려 주면서, 그 방법을 꾸준히 실천하면 누구나 좋은 목소리를 가질 수 있으며 그러기 위해 중요한 것은 하루도 빼먹지 말고 매일 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즉 선생님은 어떤 일이든 꾸준히 노력하면 이룰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으므로 이와 일맥상통하는 한자 성어는 우공이 산을 옮긴다는 뜻으로, 어떤 일이든 끊임없이 노력하면 반드시 이루어짐을 이르는 말인 '우공이산(愚公移山)'이다.

- 오답 풀이** ② 첩첩산중: 여러 산이 겹치고 겹친 산속을 이르는 말, 어려움이 더하는 것을 비유적으로 나타낼 때도 쓰임.  
 ③ 오불관연: 나는 그 일에 상관하지 아니함을 이르는 말  
 ④ 부화뇌동: 자신의 주관 없이 남의 의견을 가볍게 좇으며 남이 하는 행동을 무작정 따라서 함.  
 ⑤ 경이원자: 존경은 하되 가까이 하지 않음.

본문 178~187쪽

시험 대비 대단원 종합 평가

- 01 ① 02 ② 03 ⑤ 04 ③ 05 ① 06 해설 참조  
 07 ② 08 ⑤ 09 ⑤ 10 ③ 11 ② 12 ①  
 13 낙월, 구준비, 범나비 14 ③ 15 ⑤ 16 ① 17 ④  
 18 해설 참조 19 ③ 20 ③ 21 ④ 22 ②  
 23 해설 참조 24 ⑤ 25 ⑤ 26 ⑤ 27 ④ 28 ⑤  
 29 ④ 30 ③ 31 해설 참조

01 '꽃이 피네', '꽃이 지네', '산에는 꽃 피네', '산에는 꽃 지네' 등 유사한 통사 구조를 반복해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02 '저만치'를 '저만한 거리를 두고'로 읽을 경우, 화자와 꽃 사이의 거리, 꽃과 꽃 사이의 거리나 꽃이 인간 세계와 거리를 두고 외롭게 피어 있는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경우 대상과의 거리를 드러낸다는 점에서 존재의 근원적 고독을 보여 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 오답 풀이** ①, ③ '저만치'를 '저렇게'나 '저처럼', '저와 같이'에서처럼 꽃의 상태로 읽을 경우, 꽃이 피어 있는 모습을 형상화하여 꽃의 생성과 소멸을 통해 순환하는 자연의 원리를 통찰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④ 거리감을 드러내고는 있지만 거리감만으로 ㉠이 세상과의 단절을 추구하는 화자의 모습을 강조한다고 해석하기는 힘들다.  
 ⑤ 꽃은 고독한 존재로 해석되므로, 꽃을 화자의 감정이 이입된 존재로 볼 경우 화자 역시 고독한 존재로 해석할 수 있다.





**03** '봄 여름'은 '갈'과 함께 계절의 순환을 드러내어 생성과 소멸을 통해 순환하는 자연의 원리를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꽃이 산에 가장 많이 피는 시기를 강조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04** <보기>와 달리 [A]는 '산에 / 산에'와 같이 행을 나누고 있다. 이는 산과 산의 거리감을 시각적으로 형상화한 것으로 산과 산, 그리고 산과 꽃 사이의 거리감을 강조하는 효과를 준다.

**05** 이 시는 '산에∨/산에∨/피는 꽃은∨'과 같이, <보기>는 '내 마음속∨/우리 임의 ∨/고운 눈썹을∨'과 같이 3음보 율격을 이루고 있으며, 이를 통해 시의 리듬감을 형성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② 어두운 시대 현실을 상징하는 시어는 <보기>와 이 시 모두에서 찾아보기 힘들다.

- ③ 이 시에서 임을 향한 마음은 찾아보기 힘들다.
- ④ 절대적 존재에 의해 좌절하는 인간의 모습은 두 시 모두에서 찾기 힘들며, <보기>에서는 절대적 세계에 도달하지 못하는 인간의 본질적 한계를 보여 준다.
- ⑤ 두 시 모두 자연을 통한 깨달음을 보여 주고 있으며, 자연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묘사해 자연의 아름다움을 담고 있다고 보기는 힘들다.

**작품 더 보기**

- 서정주, <동천>
  - 갈래: 자유시, 서정시
  - 주제: 절대적 가치에 대한 외경과 인간의 숙명적 한계
  - 해제: 이 작품은 절대적 가치에 대한 외경심을 지니면서도 그것을 추구하며 살 수밖에 없는 인간의 숙명적 삶을 절제된 언어와 고도의 상징적 표현으로 간결하게 그려내고 있다. 화자는 한겨울의 춥고 어두운 밤하늘에 초승달이 떠 있고, 한 마리 매서운 새가 날고 있는 풍경을 묘사하며 나름의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고운 눈썹'은 '초승달'의 이미지와 연결되면서 모든 사람이 우러러 보는 보편적인 달로 승화되는데, 이때 '초승달'은 절대적 가치인 동시에 절대적 세계라고 볼 수 있다. 또 '새'는 영원과 무한의 절대적 세계를 동경하는 인간을 상징하는데, 이때 '초승달'을 비껴 가는 '매서운 새'는 절대적 세계에 도달하지 못하는 인간의 본질적 한계를 나타낸다.

**06** **예시 답안** 이 시에서는 1연과 4연에서 수미상관 구조가 나타난다. 1연의 '피네'가 4연에서는 '지네'로 표현되고 있는데, 이와 같이 일부 시어를 변형한 수미상관 구조를 통해 생성과 소멸이라는 자연의 순환을 드러내어 대자연의 섭리라는 시의 주제를 효과적으로 나타낸다.

**출제 의도 및 해설** 시의 구조적 특징과 내용의 관계를 시에서 직접 찾고 그 효과를 파악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문항이다. 이 시는

1연과 4연에서 각각 꽃의 폼과 짐을 노래하고 있는데, '피다-지다'라는 어휘만이 바뀐 채 다른 시어는 동일하게 유지된다. 이는 개화가 낙화로 이어지는 자연스러운 섭리임을 간명하게 나타내는 것으로, 낙화는 다시 개화로 이어져 생성과 소멸의 순환 원리를 효과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평가 기준**

평가 기준	배점
<보기>와 관련된 특징으로 1연, 4연의 수미상관 구조를 찾은 경우	2
해당 구조가 대자연의 섭리라는 시의 주제를 효과적으로 드러낸다는 내용을 서술한 경우	2
	4

**07** 이 작품은 임과 이별하여 슬퍼하는 여인을 화자로 내세워 연군 지정을 노래한 가사이다. 화자를 '메 가는 더 각시'라고 부르는 것에서 화자가 여성임을 파악할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이 작품은 4음보의 율격을 지니고 있다.

- ③ 각 계절별 상황을 제시해 임과의 추억을 회상하는 부분은 나타나 있지 않다.
- ④ 이 작품은 순우리말을 활용한 일상적 표현을 사용하였다.
- ⑤ 자연과 하나 되고 싶은 마음은 나타나 있지 않다.

**08** '낙월'과는 달리 '구준비'는 눈물을 연상시키며 임과 이별한 화자의 슬픔을 더 강하게 보여 준다.

**오답 풀이** ① '낙월'과 '구준비'는 모두 임과 이별한 화자가 죽어서라도 되고자 하는 소재로, 임을 향한 마음을 보여 준다.

- ② '낙월'과 '구준비'는 모두 임과 이별한 화자를 임에게 가까이 가게 하는 존재로, '매개물'의 역할을 한다. 즉, 공간적 한계를 초월할 수 있는 대상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지닌다.
- ③ '낙월'은 임을 비취 주는 존재임에 비해 '구준비'는 임에게 직접 가까이 닿는 존재로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 준다.
- ④ '구준비'는 임과 직접 닿을 수 있지만 '낙월'은 멀리서 잠깐 동안 임을 바라보다가 사라지는 존재로, 이는 임과 만날 수 없다는 화자의 절망감을 나타낸다.

**09** '낙월'은 자신의 존재를 버리고서라도 임에게 다가가고 싶다는 염원을 나타내는 소재이다. ㉠에는 '낙월'이 되어 임이 계신 곳을 비추면서라도 임을 지켜보고 싶다는 화자의 간절한 마음이 나타날 뿐, 격분한 모습은 나타나지 않는다.

**오답 풀이** ① ㉠은 갑녀의 질문으로, 을녀가 임과 이별한 사연을 말하게끔 유도한다.

- ② ㉡은 갑녀가 을녀를 위로해 주는 말이다.
- ③ ㉢은 을녀가 꿈에서 만난 임에 대해 하는 생각으로, 임을 향한 을녀의 걱정과 염려, 안타까움을 보여 준다.
- ④ ㉣은 꿈에서나마 임과 잠깐 재회한 화자가 꿈에서 깬 후 허탈함을 느끼고 있음을 드러낸다.

10 <보기>의 화자가 ‘어와, 내 병이야 이 녀의 타시로드.’라고 하여 녀의 탓을 강조하는데 반해 이 작품의 화자는 ‘내 몸의 지은 죄’라고 하여 자신의 잘못을 강조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보기>는 독백체인데 반해 이 작품은 두 화자가 대화하는 형식을 갖추고 있다.

② <보기>에 비해 이 작품은 한자어의 사용을 줄이고 일상적인 대화 표현을 통해 순우리말의 모미를 살리고 있다.

④ <보기>의 화자가 잠을 못 이루는 것과 달리 이 작품의 화자는 꿈을 들어 꿈에서 입을 만났다.

⑤ 이 작품과 <보기> 모두 ‘출하리 식여디여’라는 표현을 통해 죽어서라도 입을 보고 싶다는 마음을 나타내고 있다.

11 이 작품과 <보기>는 모두 임금에 대한 충정을 노래한 ‘충신연주지사’로, 작가가 임과 이별한 여인의 처지에 빗대어 자신의 처지를 드러내고 있다. 이는 임금을 그리워하는 자신의 마음을 보여주고자 하는 의도를 지니고 있다.

**오답 풀이** ① 상대방의 죄목을 밝히는 내용은 나타나 있지 않다.

③ 작가가 탄핵당한 이유는 이 작품과 <보기> 모두에 나타나 있지 않다.

④ 정계로 복귀했을 때의 포부는 이 작품과 <보기> 모두에 드러나 있지 않다.

⑤ 오히려 <보기>와는 달리 이 작품에서는 ‘군쁘디 전허 업서’라는 표현을 통해 자신의 결백함을 주장하며 억울함을 드러내고 있다.

12 [A]에서는 멀리 떨어져 있는 입에 대한 화자의 걱정이 드러나 있다. <보기>의 ㉠~㉢ 중 이와 같은 태도가 나타난 것은 ㉠이다. ㉠에서 화자는 자신이 머무르고 있는 남쪽도 이처럼 추운데 입이 계신 곳은 얼마나 춥겠는가라고 하며 입을 걱정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② 따뜻한 봄과 해를 입에게 보내겠다는 뜻으로 입을 생각하는 화자의 정성이 담겨 있다.

③ 저물녘에 대나무 앞에서 서서 시름에 잠긴 화자의 모습이 나타난다.

④ 꿈에서라도 님을 보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아 힘겨워하는 화자의 모습이 나타난다.

⑤ 나비가 되어서라도 입에게 찾아가고 싶은 간절한 마음을 보여 준다.

13 이 작품에서는 ‘낙월’, ‘구준비’, <보기>에서는 ‘범나비’를 통해 입과 함께하고자 하는 화자의 염원이 나타난다. <보기>의 화자는 입이 자신이 알아보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오직 입만을 쫓겠다는 일편단심을 표현하고 있다.

**참고 자료**

● **화자의 분신, ‘범나비’**

이 작품에서는 서사와 본사에서 입을 향한 간절한 그리움, 입에 대한 걱정과 입의 곁에서 입을 다시 모시고 싶은 소망 등을 토로한 이후에, 결사에 이르러서 그러한 소망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차라리 죽어서 ‘범나비’가 되겠다는 화자의 결연한 태도가 드러난다. (<보기>에 제

시된 부분은 본사의 마지막 부분과 결사에 해당함.) 즉, 입을 향한 지극한 그리움 때문에 죽음을 매개로 하여 생전에 이루지 못한 소망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범나비’는 죽음을 불사하고서라도 입을 향한 일편단심을 보이는 화자의 분신이라 할 수 있다.

14 (다)는 유자가 자신을 객관화하여 진술하는 부분으로, 유자에 대한 서술자의 질책이나 비판이 아니라 자신의 억울함에 따른 탄식을 담고 있다.

**오답 풀이** ⑤ 서술자는 유자가 일하는 회사의 총수에 대한 인물평을 제시하여 유자에 대한 평가를 드러내고 있다. 총수가 그 능력을 알아본 것처럼 유자는 누구보다도 원만하게 일을 처리하는 수완 좋은 사람이라는 것이다.

15 편집자적 논평은 서술자가 사건, 인물 등에 대해 의견을 밝히거나 평가하는 것인데, ㉠은 사실을 언급하고 있으므로 편집자적 논평으로 보기 어렵다. 또한 이어지는 내용에 나타난 유자에 대한 언급을 토대로 할 때, 유자의 한계를 지적하는 것으로도 볼 수 없다.

16 (다)에 따르면 유자는 군사 정변 시절 구정권 거물의 비서 자격으로 조사 대상이 되어 끌려갔음에도 아무런 고초를 겪지 않고 나왔다.

17 문학 작품을 창의적으로 수용하는 것은 작품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내놓거나 재구성 활동을 하거나, 작품에 들어 있지 않은 새로운 것을 발견하거나 새로운 깨달음을 얻는 것을 말한다. 지현은 소명의 이야기를 이 글과 비슷한 형식의 글로 써 봐야겠다고 하였는데, 이는 작품의 재구성에 해당한다.

**오답 풀이** ①, ② 공감적 수용의 예에 해당한다.

③, ⑤ 비판적 수용의 예에 해당한다.

18 **예시 답안** 이 글의 서술 구조는 인물의 출생과 가계에 대해 기술하고, 인물의 행적을 보여 준 후 이에 대해 평가하는 ‘전(傳)’ 양식을 따르고 있다. 전은 한 인물의 일대기를 그린 것으로 작가는 이를 통해 유재필의 훌륭한 인품을 알리고자 하였다.

**출제 의도 및 해설** 이 글의 서술상의 특징을 파악하고 해당 형식을 활용한 이유를 파악하는 문제이다. 이 글은 전통적인 전 양식을 계승한 서술 구조를 지니고 있는데, 이는 작가가 유재필이라는 인물을 통해 당시의 세태를 비판하고 그의 유재필의 인품을 알리기 위해 취한 형식으로 볼 수 있다.



평가 기준

평가 기준	배점
이 글이 전(傳) 양식으로 쓰였다는 점과 전의 특징을 서술한 경우	2
유재필의 훌륭한 인품을 알고자 한 작가의 의도를 서술한 경우	2
	4

19 (가)는 ‘굴러오고’, ‘걸어오고’, ‘묻는다’ 등 현재형 시제를 사용하여 그림의 이미지를 동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② (가)에는 열거가 나타나고 있으나, 대조적 소재로 보기 어렵고 긴박한 상황을 묘사하고 있지도 않다.

20 (가)에서 화자는 농부들과의 상상의 대화를 통해 세상에 빛나지 않는 것은 없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은 ‘세상에 모든 별들은 노래한다.’라는 시적 화자의 생각을 강조하기 위한 설의적 의문으로, 이를 통해 세상의 모든 존재는 가치 있고 아름다운 존재임을 보여 준다.

오답 풀이 ④, ⑤ (나)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자’는 고흐이다. (나)는 고흐가 암울한 삶을 살았음에도 세상을 눈부심으로 바라본 것을 이야기하고 있으며 이때의 눈부심은 꿈과 희망을 의미한다.

21 <보기>에서 시인은 문학과 가까운 화가와 작곡가 등이 문학으로 자신들의 작품을 풍부하게 하고 있다고 밝히며, 자신 역시 그렇다고 하고 있다. 이는 시인이 문학과 인접한 다른 예술 분야로부터 영감을 얻어 문학의 외연을 넓히고 풍부하게 한다는 것을 말한다. 위 시는 고흐의 그림에서 영감을 받아 창작한 작품으로 시의 외연을 넓히고 있다.

22 (가)와는 달리 (나)는 ‘지상의 어떤 대낮보다 / 환한 밤이 살고 있습니다’와 같은 역설적 표현을 사용하여 암울한 상황 속에서도 꿈과 희망을 그리고자 한 고흐의 마음과 의지를 전달하고자 하였다.

오답 풀이 ① (가)와 (나) 모두 고흐의 그림을 소재로 하여 쓴 시이며, (나)는 고흐의 삶을 바탕으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③ 빛과 어둠의 이미지는 (나)에서 강하게 대비되고 있다.
- ④ (가)는 그림 속 등장인물인 농부들과, (나)는 그림을 그린 작가 고흐가 그림 속 카페에 있는 경우를 상상하여 대화를 나누고 있다.
- ⑤ (나)에만 해당하는 내용이다. (가)는 세상 모든 존재의 가치와 아름다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23 예시 답안 ㉠, ㉡, ㉢, ㉣가 화자가 “빛나라”라고 언급한 대상이며, 이들은 모두 특별할 것이 없는 평범한 존재들이라는 공통점을 지닌다.

출제 의도 및 해설 시에서 화자가 “빛나라”라고 언급한 대상을 시의 모티프가 된 그림에서 찾고, 이를 통해 시의 주제를 파악하는 문제이다. 화자는 별들, 편백나무(14행), 보리밭, 외로운 별(20행), 농부들(22행)을 향해 “빛나라”고 말하였으며, 작가는 이를 통해 세상의 모든 존재는 빛나고 있음을 노래하였다.

평가 기준

평가 기준	배점
화자가 “빛나라”라고 언급한 대상을 찾아 쓴 경우 (각 1점)	4
화자가 “빛나라”라고 언급한 대상의 공통점을 적절히 서술한 경우	4
	8

24 가리온과 한가 높은 개파이와 연두가 쓴 글의 내용 때문에 놀란 것이 아니라 이를 만에 글자를 배워 쓸 수 있다는 사실에 놀라워 하였다.

25 ㉠은 서로 다른 공간에 있는 이도와 가리온이 동시에 한 화면에 나타나도록 하는 것으로, 한 화면을 두세 개의 구획으로 나누어 여러 인물이나 장면을 동시에 보여 주는 방법인 화면 분할 기법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화면 분할 기법을 사용하면 한 공간에 있지 않은 인물 두 명이 어떻게 다른 모습으로 현재의 상황에 대응하는가를 효과적으로 보여 줄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몽타주는 따로따로 촬영한 화면을 적절하게 떼어 붙여서 하나의 긴밀하고도 새로운 장면이나 내용으로 만드는 기법이다.

- ③ 오버랩은 하나의 화면이 끝나기 전에 다음 화면이 겹치면서 먼저 화면이 차차 사라지게 하는 기법이다.
- ③ 클로즈업은 대상이나 인물이 두드러지게 화면에 확대되는 것을 말한다.
- ④ 페이드인은 화면이 어둡다가 점차 밝아지도록 하는 기법이다.

26 <보기>와 이 글 모두 인물 간의 대화를 통해 인물의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

오답 풀이 ① 이 글은 <보기>의 소설을 시나리오(드라마 대본)로 바꾼 것으로 이는 매체 바꾸기에 해당한다.

- ② <보기>는 최만리와 심종수가, 뒷글은 가리온과 한가 높이가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이는 <보기>를 각색하는 과정에서 인물에 변화를 준 것으로 볼 수 있다.
- ③ <보기>는 백성들이 글자를 배웠을 때의 상황을 가정하여 얘기를 나누고 있는 반면에, 이 글은 개파이와 연두가 글을 쓰는 것을 통해 상황을 직접 드러내고 있다.
- ④ 지시문은 시나리오나 희곡 등에서 사용되는 것으로 이 글에서 활용하고 있다. <보기>는 ‘초조함으로’와 같이 인물의 심정을 서술을 통해 드러내고 있다.

창의·논술형 수행 평가 대비하기

27 (가)는 '자세히 보아야 / 예쁘다', '오래 보아야 / 사랑스럽다'에 서처럼 '~해야 ~하다'라는 형식의 시구를 반복하여 운율감을 형성하고 있다.

28 <보기>는 (가)를 소설로 재구성한 것이다. 시를 소설로 재구성하는 것은 다른 갈래의 작품으로 바꾸는 경우에 해당한다.

29 '나도 그럴까?'를 통해 의문문을 활용하고 있으며, 화자가 관심을 가지는 대상을 '나'로 바꾸었다.

30 (나)의 서술자는 '나'이지만 문제 학생이 음악 선생님을 통해 꿈을 갖게 되고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한 모습을 관찰하여 그리고 있다. 따라서 (나)의 사건은 '나'가 아니라 '친구'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므로, '유주'의 작품 해석은 잘못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②, ④, ⑤ (나)의 뒷이야기를 창작할 때 모두 고려하여 논 의할 수 있는 적절한 의견으로 볼 수 있다.

31 **예시 답안** ㉠은 퇴고이다. 퇴고는 글을 다 쓴 뒤 수정·보완하는 것을 가리키는데 이때 띄어쓰기가 정확한지, 단어 선택이 적절한지, 문장이 문법에 맞는지 등을 꼼꼼히 점검해야 한다.

**출제 의도 및 해설** 문학 작품 창작의 일반적 과정을 이해하고 퇴고의 중요성을 파악하는 문제이다. 문학 작품 창작에 있어 퇴고는 중요한 과정으로, 퇴고의 과정으로 글을 가다듬으며 작품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다.

**평가 기준**

평가 기준	배점	
㉠이 '퇴고'임을 밝히고, 퇴고의 정의를 적절히 서술한 경우	2	4
퇴고 과정에서 점검해야 할 사항을 2가지 제시한 경우	2	

**유사 정답** 퇴고의 과정에서 점검해야 할 사항으로 '주제가 분명하게 드러났는지, 인물과 배경은 적절하게 설정했는지, 갈등의 전개 과정이 자연스러운지, 내용상 불필요하거나 어색한 부분은 없는지, 서술 시점이 적절하고 표현이 자연스러운지' 등을 제시한 경우 모두 정답으로 인정함.

**예시 답안** 고희를 만나기 위해 찾아간 전시관

길모퉁이에 커다랗게 걸린 그림 하나.

차가운 품에 한 아름 품고 돌아온다.

쏟아져 내리는 별빛들로 가득 찬 하늘

그 아래 조용한 집들이 숨죽여 저만의 빛을 내뿜는다.

저 멀리 푸른 강줄기 아래로 내게 내민 손이 하나, 둘, 셋, 넷…….

그 아래, 배가 지나가는 자리마다 강물 출렁이며 금빛으로 물든다.

강가 가장자리를 걷고 있던 두 사람,

고흐를 만나러 가는 길이나며 내게 묻는다.

'고흐를 만나고 싶다면, 저 금빛 강줄기를 따라 가시오. 가장 큰 불빛 아래 고희가 앉아 당신을 기다리고 있소.'

까맣고 조용한 어둠 아래 모두가 빛을 내며 숨죽여 온다.

고흐에게 위로 받은 사람들은 더 밝게 빛이 난다.

저 멀리 고희에게 위로 받는 사람들이 있다.

건너편의 손을 맞잡고 나도 그에게로 가고 싶다.

**출제 의도 및 해설** 예시로 제시된 시의 시상 전개를 파악하고, 그 형식을 따라 시를 창작해 볼 수 있는가를 확인하는 문제이다. 특히 <세일에서 건진 고희의 별빛>은 화자와 농부들의 대화로 주제 의식을 강조하고 있으므로, 이를 창작 시에도 적용하여 시상을 전개해야 한다. 또한 그림을 모티프로 자신의 주제 의식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한다.



### 3 한국 문학의 갈래와 흐름

#### ① 서정 갈래의 흐름

##### 1 서경별곡

###### 내용 확인 문제

본문 198~199쪽

01 ⑤    02 ⑤    03 사공(사공)    04 ④

01 2연에서 화자는 임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과 믿음을 비유적 표현을 통해 드러내고 있다. ‘구슬’은 화자와 임 사이의 관계를, ‘바회(바위)’는 두 사람을 헤어지게 하는 시련을, ‘긴(끈)’은 임에 대한 믿음과 사랑을 의미한다.

**오답 풀이** ① 3연에서 사공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이 사용되었으나 사공은 의인화된 청자로 볼 수 없다.

② 3연에서 사공에게 말을 건네고 있으나 대화를 통해 친밀감을 드러내고 있는 것은 아니다.

③, ④ 계절의 변화나 인간과 자연의 대비는 나타나지 않았다.

02 후렴구 ‘위 두어령성 두어령성 다령디리’가 규칙적으로 쓰인 것은 맞지만, 이는 단순히 악기 소리의 의성어일 뿐 주제와 아무런 연관성이 없다. 고려 속요의 후렴구는 작품의 내용과 관련이 없이 반복되어 운율을 형성하고 연을 구분해 주는 역할을 한다.

03 화자는 자신을 떠나는 임을 직접적으로 원망하는 대신, 임을 배에 태우고 대동강을 건너는 사공을 원망하고 있다. 즉 애꿎은 사공을 원망하며 떠나는 임에 대한 원망의 감정을 간접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04 ‘즈믄 히(천 년)’는 화자와 임이 떨어져 있는 시련의 기간을 과장하여 나타낸 것일 뿐, 두 사람 사이의 심리적 거리감을 나타낸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오답 풀이** ① ‘서경(西京)’은 ‘닷근 디’ 즉 화자가 삶의 터전을 닦은 곳이자 사랑하는 공간이다.

② ‘질삼빔’은 ‘길쌈하던 베’로 화자가 길쌈을 생업으로 하는 여인임을 보여 준다. 즉 ‘질삼빔’은 화자의 생업이므로 화자에게 중요한 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③ ‘구스리 바회에 디신돌’은 ‘구슬이 바위에 떨어진다’라는 의미로, 화자와 임 사이의 관계를 비유하는 구슬이 바위에 떨어졌다는 것은 화자와 임에게 시련이 닥쳤음을 의미한다.

##### 2 가 고인도 날 못 보고 / 나 한숨아 세 한숨아

###### 내용 확인 문제

본문 204~205쪽

01 ①    02 ②    03 ㉠ 다양한 사물들을 열거, ㉡ 문을 닫아 한숨을 막으려는 행동을 과장    04 ③

01 (가)는 3장 6구로 이루어져 있지만, (나)는 중장이 평시조에 비해 음보의 수가 늘어나면서 구의 수도 함께 늘어난 사설시조이다.

**오답 풀이** ② 평시조는 고려 말에 성립되었고, 사설시조는 조선 후기에 등장하였다.

02 (가)의 중장에서는 설의적 표현을 사용하여 ‘고인(옛 성현)’의 삶을 분반하려는 의지를 강조하며 시상을 마무리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화자가 지난날에 세속적 욕구를 추구했다고 볼 수는 없다.

③, ④ 화자는 고인을 보지 못해도 그 길을 따라가고자 하고 있을 뿐 고인과 자신을 대비하여 부끄러움을 느끼거나, 삶에서 결핍된 요소 때문에 방황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⑤ 화자는 고인의 길을 따라 가고자 하고 있을 뿐 고인을 추모하며 인생무상(人生無常, 인생의 덧없음)을 느끼고 있는 것은 아니다.

03 ‘고모장즈, 세살장즈, 가로다지, 여다지’는 모두 문이나 창문의 종류를 말하며, ‘얹돌져귀, 수돌져귀, 비목걸새, 용 거북 즈물 쇠’는 문과 연결되어 문을 여닫거나 잠그는 장치이다. (나)의 중장에서는 이와 같은 사물을 열거하면서 문을 닫아 한숨을 막으려는 행동을 과장해서 표현함으로써 시적 화자가 근심에 잠겨 있는 상황을 해학적으로 표현하였다.

04 (나)의 화자는 한숨을 유발하는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으로 인해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누워서 몸을 이리저리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함.’을 의미하는데, 이는 ‘전전반측(顛轉反側)’으로 나타낼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고진감래: 쓴 것이 다하면 단 것이 온다는 뜻으로, 고생 끝에 즐거움이 있음을 이르는 말

② 주마간산: 말을 타고 달리며 산천을 구경한다는 뜻으로, 자세히 살피지 아니하고 대충대충 보고 지나감을 이르는 말

④ 새옹지마: 인생의 길흉화복은 변화가 많아서 예측하기가 어렵다는 말

⑤ 목불인견: 눈앞에 벌어진 상황 따위를 눈 뜨고는 차마 볼 수 없음.

3 모닥불

내용 확인 문제

본문 212~213쪽

01 ② 02 ③ 03 ⑤

01 '새끼오리', '개니빠디' 같은 평안도 방언을 사용하여 현실감을 높이고 향토적 정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오답 풀이 ① 1연과 2연에서 다양한 대상들을 열거하고 있을 뿐, 점층적인 시상 전개는 나타나지 않았다. '점층적 시상 전개'란 그 정도를 점점 강하게 하거나, 크게 하는 시상 전개 방식을 뜻한다.

02 2연에서는 모닥불을 쬐는 사람들과 동물들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 서로 신분도 나이도 다른 사람들부터 '큰 개도 강아지도' 함께 어우러져 모닥불을 쬐는 평등하고 따뜻한 모습이 나타나 있을 뿐 질서 있는 분위기와는 거리가 멀다.

03 1, 2연은 각각 열거의 표현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열거법은 판소리나 사설시조에서 자주 찾아볼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각 연이 즐겁처럼 쓰여져 산문적인 느낌을 주는 운문이나 내용이 산문적이라고 볼 수는 없다.  
 ② 1연에서 사물들을 열거하고 있으나 향락을 고취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③ 우리 민족의 슬픈 역사를 떠올리게 한다는 점에서 삶의 애환이 드러난다고 할 수도 있으나 해학적 성격은 드러나지 않는다.  
 ④ 서민들의 생활과 감정을 직접적으로 드러낸 부분은 찾을 수 없다.

4 농무

내용 확인 문제

본문 218~219쪽

01 ④ 02 ⑤ 03 해설 참조

01 이 시에서는 대체로 시간의 흐름에 따른 공간의 이동에 따라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⑤ '답답하고 고달픈게 사는 것이 원통하다'에 화자의 현실 인식과 정서가 직설적으로 드러나 있다.

02 [A]에서 '술'은 화자의 답답하고 원통한 마음을 달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03 [예시 답안] 화자(농민들)의 한과 울분을 풀어내는 기능을 한다.

[출제 의도 및 해설] 화자의 처지와 관련지어 제재의 의미를 이해하는 문제이다. <보기>에서는 농무의 원래 기능에 대해 설명하면서 이 시에서는 그 기능이 변화되어 사용되었음을 말하고 있다. 이 시에는 농사를 지어 생계를 유지하는 흥겨움도, 농무에 함께 어울릴 젊은이도 없는 상황에서 농무를 통해 울분을 풀어내는 모습이 나타나 있다.

[평가 기준]

평가 기준	배점
농무가 놀이로서의 성격이 아니라 화자의 분노를 표출하는 기능을 한다는 내용이나 농촌의 붕괴를 보여 주는 역할을 한다는 내용을 제시한 경우	4
맞춤법에 알맞고 자연스러운 한 문장으로 쓰지 못한 경우	-1

[유사 정답] '단합과 즐거움이 소멸된 농무를 통해 농촌의 붕괴를 보여 준다.'와 같은 답안도 정답으로 인정함.

소단원 평가 문제 미리 보기

본문 224~229쪽

01 ① 02 ③ 03 ② 04 ⑤ 05 해설 참조 06 ①  
 07 ② 08 ① 09 ④ 10 ⑤ 11 해설 참조 12 ③  
 13 ② 14 ④ 15 ② 16 해설 참조 17 ⑤ 18 ④  
 19 해설 참조 20 울분과 한

01 (가)에는 '서경(西京)', '대동강(大同江)' 등과 같이 구체적인 지명이 제시되어 있지만, (나)에는 구체적인 지명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오답 풀이 ② (가)와 (나)에 공통적으로 쓰인 '긴헛든 그초리잇가.'와 '신(信)잇든 그초리잇가'는 각각 '끈이야 끊어지겠습니까?'와 '믿음이야 끊어지겠습니까?'라는 의미로, 둘 다 설의법을 통해 믿음을 강조한 표현이다.

④ (나)의 '유덕(有德)후신(後身)님 여히우와지이다'는 겉으로는 '유덕하신 임을 이별하고 싶습니다.'를 뜻한다. 하지만 그 전제 조건이 현실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임과 절대 이별하고 싶지 않다는 마음을 반어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⑤ (가)에서는 '대동강'을 이별의 공간으로 설정하여 임과 헤어지는 상황을 구체화하고 있다.

02 '바회'는 구슬이 떨어져 깨질 수 있는 대상으로 화자와 입을 헤어지게 하는 시련을 의미한다.

03 (가)의 '대동강'과 <보기>의 '강'은 모두 화자와 입을 갈라놓는 이별의 공간으로 나타나고 있다.



**04** 고려 속요는 구전되던 민요 중의 일부가 궁중 음악으로 수용되는 과정에서 변화를 겪으며 이루어진 갈래이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어떤 작품은 노래 가사가 바뀌어 전해지기도 한다. (가)의 [A]와 (나)의 [B]는 당시에 유행한 것으로 보이는 '구슬 노래'로, 두 작품이 구비 전승되는 과정에서 추가된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05** [예시 답안] 사공에게 '네 가시 럼난디 몰라서(네 각시 음란한지 몰라서)'라고 말하는 부분과 임이 대동강을 건너면 '건넌편 고즐' '것고리이다'라며 다른 여자를 만날 것이라고 질투하는 부분이 남녀 간의 사랑을 지나치게 노골적으로 묘사했기 때문이다.

[출제 의도 및 해설] <보기>에 제시된 관점, 즉 조선 시대의 유교적 관점에서 <서경별곡>에 대해 평가할 만한 내용을 파악하는 문제이다. 3연에서 화자가 사공에게 원망을 투사하며 사공의 아내가 음란하다고 말하는 부분이나, 임이 대동강을 건너가면 다른 여자를 만나게 될 것이라고 질투하는 모습에서 노골적인 표현을 확인할 수 있다.

**평가 기준**

평가 기준	배점
근거가 되는 구절을 찾아 제시한 경우	2
제시한 구절이 남녀 간의 사랑을 노골적으로 묘사했다는 점을 밝힌 경우	2
	4

**06** (가)와 (나) 모두 어순을 도치하여 표현한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오답 풀이] ② (가)에서 초장 뒷부분 '나도 고인 못 뵈'가 중장 앞부분 '고인을 못 봐도'로 이어지고, 중장 뒷부분 '녀든 길 알피 있니'가 종장의 앞부분 '녀든 길 알피 있거든'으로 이어진다. 이런 식으로 앞 구절의 끝 어구를 다음 구절의 앞 구절에 이어받아 표현하는 방법을 연쇄법이라고 한다.

- ③ (나)에서는 초장, 중장에 '네 어니 틈으로 드러온다'를 반복하고 있는데, 이는 막으려 해도 외부에서 한숨이 들어오는 상황을 나타내면서 주제를 강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④ (나)에서는 '한숨'을 의인화하여 말을 건네듯이 표현하였다.
- ⑤ (나)의 중장에서는 문이나 창문과 관련한 여러 사물들을 나열하였다.

**07** (가)는 고인의 삶을 본받고자 하는 의지, 즉 학문 수양에 대한 의지를 표현한 시조이다. ②의 시조는 자연을 벗하면서 주자학을 연구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으므로, (가)와 창작 의도가 유사하다.

[오답 풀이] ① '고은 님 여희업고'에서 알 수 있듯이 임과 이별한 애절한 마음을 노래한 시조이다.

- ③ 시류에 휩쓸리지 않고 홀로라도 지조를 지키겠다는 굳은 결의를 노래한 시조이다.
- ④ 자연에 묻혀 사는 즐거움을 임금의 은혜 덕분이라고 노래한 시조이다.
- ⑤ 고려의 도읍지였던 개성을 찾아 느끼는 감회를 읊고 있는 작품으로, 고려 왕조에 대한 무상감을 노래한 시조이다.

**참고 자료**

● **현대어 풀이**

- ① 천만 리 머나먼 곳에 고운 임을 두고 돌아오다가  
내 슬픈 마음을 돌 데가 없어 냇가에 앉았더니,  
저 물도 내 마음 같아 울면서 밤길을 흘러가는구나.
- ② 고산의 아홉 굽이 계곡의 아름다움을 세상 사람들이 모르더니,  
내가 풀을 베고 터를 잡아 집을 짓고 사니 (그때야) 벼들이 찾아오  
는구나.  
아, 무이산을 생각하고 주자를 배우리라.
- ③ 이 몸이 죽어 가서 무엇이 될고 하니,  
봉래산 제일 높은 봉우리에 우뚝 솟은 소나무가 되어서,  
흰 눈이 온 세상을 덮을 때 홀로 푸르리라.
- ④ 강산이 좋다 한들 나의 분수로 (이렇게 편안히) 누워 있겠는가.  
(이 모두가) 임금 은혜인 것을 이제 더욱 알겠도다.  
(하지만) 아무리 값고자 해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구나.
- ⑤ 오백 년 이어온 고려의 옛 서울에 한 필의 말을 타고 돌아보니,  
산천의 모습은 예나 다름이 없지만 당대의 인재들은 간 데 없구나.  
아아, 고려의 태평했던 시절이 한낱 꿈처럼 허무하도다.

**08** (나)에서는 '드러온다(들어오느냐?)'와 같이 의문적 표현이 나타나지만 <보기>에는 나타나지 않는다.

- [오답 풀이] ② <보기>에는 대상을 의인화한 표현이 나타나지 않았지만, (나)에서는 한숨을 의인화하여 말을 건네듯이 표현하였다.
- ③ (나)는 '네 어니 틈으로 드러온다'를 초장과 중장에서 반복하였으며, <보기>는 '창(을) 내고자'라는 구절을 반복하였다.
  - ④ (나)와 <보기>의 중장에서는 둘 다 창문, 문과 관련한 여러 사물들을 나열하였다.
  - ⑤ (나)에서는 '덜걱', '디디글', <보기>에서는 '썸씩'이라는 음성 상징어를 활용하였다.

→ **작품 더 보기**

- **작자 미상, <창 내고자 창을 내고자>**
  - 갈래: 사실시조
  - 주제: 삶의 답답함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소망
  - 해제: 답답한 화자의 심정을 짝 막힌 '방'에 비유하여, 여기에 '창'이라고 만들어 답답한 마음을 해소하고 싶은 소망을 담은 사실시조이다. 구체적인 생활 언어를 사용하였으며, 친근한 일상적 사물을 나열하여 화자의 괴로움을 강조함으로써 해학성을 획득하고 있다.

09 (가)의 '서러운 아이'는 '할아버지'로 대표되는 우리 민족의 슬픈 역사와 관련이 있으며, (나)의 '양말에 구멍 난 아이'는 가난한 처지에 있는 사람과 관련이 있다. 이는 아픈 역사를 겪었거나 겪고 있는 대상으로 나타날 뿐, 희망을 상징한다고 볼 수 없다.

**오답 풀이** ③ (가)의 '새끼오리', '헌신짝' 등은 보잘것없는 사물들로, (나)의 '잡것들'과 유사한 성격이다.

⑤ (가)의 '슬픈 력사'는 시가 쓰여진 시대적 배경인 일제 강점기를 고려할 때 우리 민족의 슬픈 역사를 환기하므로, (나)의 '무장 독립군들 출정가 부르기 전'과 유사한 시대적 현실을 암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10 (가)는 조사 '도'를 반복하며 모닥불에 타는 소재들과 모닥불을 쬐는 존재들을 열거하고 있고, (나)는 '에서', '에'를 반복하며 모닥불이 피어오르는 장소와 시간을 열거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가)의 1연만 명사로 마무리되어 있다.

② (가)와 (나) 모두 영탄적 표현이 사용되지 않았다.

③ (가)와 (나) 모두 대상에 따라 화자의 시선이 향하는 곳이 달라지고 있지만, 먼 곳에서 가까운 곳으로 이동하는 것은 아니다.

④ (가)와 (나), 모두 공감각적 표현은 활용되지 않았다.

11 **예시 답안** (평안도 방언을 의도적으로 살려 씀으로써) 사실감과 지역의 향토성을 부각하고자 하였다.

**출제 의도 및 해설** 이 시의 표현상 특징인 평안도 방언 사용의 효과를 묻는 문제이다. 일반적으로 문학 작품에서 지역 방언을 사용하면 배경이나 인물의 출신과 관련하여 사실성을 높여 주며, 향토적 정감을 느끼게 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평가 기준**

평가 기준	배점	
평안도 방언(지역 방언)을 사용하여 사실성, 향토성을 부각하려 했다는 점을 밝힌 경우	4	4
맞춤법에 알맞고 자연스러운 한 문장으로 쓰지 못한 경우	-1	

**유사 정답** '시적 상황을 보다 사실적으로 형상화하기 위해 시 속의 인물들이 사용하는 평안도 방언을 사용하였다.'

12 [B]의 '선달'과 '새벽'은 모닥불이 피어오르는 시간으로 힘들고 고단한 상황을 의미한다. 그런데 [C]에서 '죽음'은 삶의 희망과 연결되는 것이며, '울음'은 '그날까지' 참아 내는 것이므로 '선달'과 '새벽'의 힘들고 고단한 상황이 '죽음'과 '울음'의 원인이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모닥불은 피어오른다'라는 현재형 진술이 반복됨으로써 지속성이 드러난다.

② [A]에는 모닥불이 피어오르는 장소가, [B]에는 모닥불이 피어오르는 시간이 제시됨으로써 모닥불이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 곁에서 피어오르며 어둠을 밝히고 온기를 전한다는 점을 드러냈다.

④ [A]~[C]에서 제시한 '모닥불'의 이미지가 [D]의 '한 그루 향나무 같다'에 집약되고 있다.

13 (가)는 '한 다리를 들고 날라리를 불거나 / 고깃짓을 하고 어깨를 흔들거나'와 같이 대구법을 사용하며 시상을 마무리하고 있으나 (나)의 마지막 부분에는 대구법이 활용되지 않았다.

**오답 풀이** ① (가)에서는 공간의 이동에 따라 시상을 전개하고 있지만, (나)에서는 강변에 있는 화자가 상념에 젖어 있다가 마지막에 마을로 돌아가야 한다고 했을 뿐 공간의 이동은 나타나지 않았다.

③ (가)와 (나) 모두 공감각적 심상은 활용되지 않았다.

④ (가)와 (나) 모두 계절을 드러내는 시어는 나타나지 않았다.

⑤ (가)는 '전등이 매어 달린 가설무대', '보름달은 밝아'에서, (나)는 '일이 끝나 저물어', '다시 어두워 돌아가야 한다'에서 둘 다 어두운 때를 배경으로 함이 드러나며 이를 통해 암담한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다.

14 (나)의 시적 화자는 절망적 현실을 체념하고 수용하며 살고 있을 뿐, 절망적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적극적인 의지는 보이지 않고 있다.

**오답 풀이** ① (가)에서는 '답답하고 고달픈게 사는 것이 원통하다', (나)에서는 '슬픔도 퍼다 버린다'에 화자의 정서가 직접적으로 드러나 있다.

②, ③ (가)는 산업화로 인해 피폐화된 농촌과 농민의 현실을, (나)는 산업화에서 소외된 도시 노동자의 현실을 다루고 있다.

⑤ (나)에는 화자가 체념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 있을 뿐 그 구체적인 원인이 나타나지 않았지만, (가)에는 화자가 힘들어하며 분노하는 원인이 '비롯값도 안 나오는 농사'에 있음이 드러나 있다.

15 ㉠은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해 농촌의 많은 젊은이들이 농촌을 떠난 상태라는 것을 짐작하게 할 뿐 미래에 대한 희망과는 관련이 없다.

16 **예시 답안** 화자가 소설 속 인물들처럼 부정적 상황에 처해 있으며 이에 분노하고 있음을 강조하기 위해서이다.

**출제 의도 및 해설** <보기>의 설명을 바탕으로 시에 다른 문학 작품 속 인물을 등장시킨 의도를 이해하도록 한 문제이다. <보기>에 따르면 임꺽정과 서림은 조선 사회의 불평등한 구조에 맞서고자 했다. 이를 바탕으로 할 때 화자가 농무를 추다 '꺾정이처럼 울부짖고', '서림이처럼 해해'댄다고 한 것은 화자가 처한 상황이 이들과 다를 것이 없음을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평가 기준

평가 기준	배점	
화자와 소설 속 인물들의 공통점을 바탕으로 의도를 제시한 경우	4	4
맞춤법에 알맞고 자연스러운 한 문장으로 쓰지 못한 경우	-1	

**17** (마)는 ‘운동장-소죽집-장거리-도수장’과 같이 공간의 이동에 따라 시상을 전개하고 있으며, 화자의 ‘원통하다’에서 울분과 한을 품고 있는 ‘신명’으로 고조되는 양상을 보인다.

**오답 풀이** ① (가)에서는 의인법을 찾아볼 수 없다.

② (나)에서는 대구법과 연쇄법을 사용하여 학문 수양의 의지를 노래하였을 뿐 역설적 표현은 나타나지 않았다.

③ (다)의 중장에서는 주로 시각적 심상과 청각적 심상을 사용하여 생동감을 느끼게 하였다.

④ (라)의 2연에서는 현재형 서술을 통해 모닥불을 피는 존재들의 평화로운 공존의 모습을 보여준다.

**18** ㉠은 화자가 잠에 들지 못할 정도로 깊은 시름에 젖어 있음을 나타낸다.

**19** **예시 답안** 공동체의 화합을 드러내면서 소외되고 서글픈 사람들을 위로해 주는 것을 의미한다.

**출제 의도 및 해설** 시의 제재가 지닌 의미를 묻는 문제이다. 1연에서 ‘모닥불’은 보잘것없어 보이는 것들을 태워 사람들을 따뜻하게 해 주는 존재임이 드러나며, 2연에서는 ‘모닥불’을 중심으로 모든 존재들이 평화롭게 합일을 이루고 있음이, 3연에서는 모닥불이 우리 민족의 슬픈 역사가 서려 있는 대상임이 드러난다. 즉, ‘모닥불’은 소외되고 서글픈 사람들을 위로해 주는 존재이자 공동체의 중심, 수난의 역사를 의미한다.

**평가 기준** 각 연의 중심 내용과 관련하여, 모닥불의 의미로 위로, 화합, 공동체, 수난의 역사 등을 제시한 경우 4점. 부분 점수 없음.

**20** 이 시의 화자는 1연에서부터 자신이 처한 상황에 허탈감을 느끼고, 원통하다는 표현을 통해 정서를 직접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이와 같은 감정은 점점 고조되어 ‘신명’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신명이 나지 않을 만한 상황에서 ‘신명이 난다’고 표현하는 역설적 상황을 통해 농민들의 울분과 한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2 서사 갈래의 흐름

### 1 구운몽

#### 내용 확인 문제

본문 234~243쪽

- 01 ②    02 ②    03 ⑤    04 ⑤    05 ④    06 ②  
 07 해설 참조    08 ④    09 ⑤    10 ③    11 ⑤  
 12 ⑤    13 ⑤    14 ④    15 ②    16 해설 참조  
 17 백호 빛이 세계에 쏘이고 하늘의 꽃이 비같이 내렸다.

**01** 용왕이 성진에게 술을 권하며 “궁중에서 쓰는 술은 인간의 광약과 달라서 자못 사람의 기운을 화창케 하고 마음을 방탕하게 아니하나이다.”라고 한 것으로 보아 용왕은 성진을 시험하기 위해 서가 아니라 대접하기 위해서 술을 권한 것으로 볼 수 있다.

**02** [A]에서 상대방을 비난하는 의도가 담겨 있는 표현은 찾아볼 수 없다. 성진은 팔선녀에게 길을 비켜 달라고 정중하게 요청하고 있다.

**03** 팔선녀는 성진이 복사꽃으로 명주를 만들어 주자 그것을 주워 손에 쥐고 성진을 돌아보며 웃고는 바람을 타고 공중으로 올라갔다. 즉 성진의 수작에 응해 주며 명주를 받고 길을 비킨 것이 성진의 도술을 보고 두려워한 것은 아니다.

**오답 풀이** ① 성진은 왜 늦게 돌아왔는지 묻는 대사에 팔선녀와 만났던 일은 빼놓고 대답하였다.

② 성진에게 ‘네 죄’가 무엇인지 물은 뒤 대사가 한 말을 통해 대사는 성진이 용궁에서 술을 마시고 팔선녀와 어울렸으며 불가에 회의를 품은 것을 모두 알고 있었음이 드러난다.

**04** 성진은 팔선녀로 인해 인간 세상의 부귀공명을 떠올리며 마음이 흔들리긴 했지만 이내 뉘우친 후 정신을 가다듬어 일천 부처를 외고 있으므로 부귀공명에 흔들려 공부를 게을리한 것은 아니다.

**05** ‘귀인’은 양소유를 가리키며, ‘한 호승’, ‘산야 사람’, ‘사부’, ‘그 노화상’은 모두 육관 대사를 가리킨다.

**06** 양소유는 “신선은 예로부터 구하여 얻은 자가 드무니”라고 말하였다. 즉, 선도를 얻는 것은 어렵다는 인식을 드러내면서 불가와의 인연을 들어 불도에 귀의하고자 하는 뜻을 밝히고 있다.

**07** **예시 답안** 부귀영화를 누리 양소유의 삶을 직접 겪어 봄으로써 이 글의 주제인 인생의 덧없음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이다.

**출제 의도 및 해설** 속세의 출세에 대한 욕망을 품어 인간 세계로 추방당한 성진이 양소유가 되어 부귀영화를 경험했으나, 이후 인생의 덧없음이라는 깨달음을 얻게 되는 내용을 파악하는 문제이다. 이 글에서 양소유는 미천한 선비였지만 이후 벼슬에 이르고 여덟 여인과 인연을 맺으며 부귀영화를 누리게 되는데, 이후 이와 같은 인생의 덧없음을 느끼고 이 글의 주제인 인생무상(人生無常)을 깨닫게 된다.

**평가 기준**

평가 기준	배점	
인간 세계에서 양소유가 출세하여 부귀를 누렸다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2	4
양소유의 경험을 통해 인생의 덧없음, 인생무상(人生無常)을 깨달음을 서술한 경우	2	

**08** 모든 남자들이 같은 마음으로 말을 하고 있는 것을 고려할 때, ‘입은 다르나 목소리는 같다는 뜻으로, 여러 사람의 말이 한결 같음을 이르는 말’인 ‘이구동성’이 적절하다.

- 오답 풀이** ① 부화뇌동: 뜻대 없이 남의 의견에 따라 움직임.  
 ② 중구난방: 못사람의 말을 막기가 어렵다는 뜻으로, 막기 어려울 정도로 여럿이 마구 지껄임을 이르는 말  
 ③ 갑론을박: 여러 사람이 서로 자신의 주장을 내세우며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함.  
 ⑤ 건강부화: 이치에 맞지 않는 말을 억지로 끌어 붙여 자기에게 유리하게 함.

**09** 이 글에는 유교적 공명주의와 불교의 공 사상, 도교의 신선 사상에 관한 내용이 나타나는데, 성진의 깨달음을 통해 불교의 공 사상이 강조되고 있다.

- 오답 풀이** ① 등장인물인 ‘성진’, ‘양소유’, ‘육관 대사’, ‘팔선녀’는 모두 허구적 인물이다.  
 ② 초월적 존재가 등장하는 것은 맞지만, 인물 간의 갈등을 중재하는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다.  
 ③ 당나라를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시대 상황이 나와 있지 않으며, 시대 상황이 주제 의식과 관련이 있는 것도 아니다.  
 ④ 성진이 하룻밤 꿈을 통해 깨달음을 얻는 모습이 나타날 뿐 인물의 그릇된 행동을 과장하거나 인물의 부정적 속성을 풍자한 것은 아니다.

**10** 성진이 꿈을 통해 깨달은 것을 다른 제자들과 나누려고 하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다.

**11** ‘춘몽’은 봄에 꾸는 꿈이라는 뜻으로, 덧없는 인생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이 글에서 ‘춘몽’은 양소유가 누리고 있는 부귀영화를 가리킨다.

**12** ‘하룻밤 꿈’은 헛된 영화나 덧없는 일을 의미한다. ‘동상이몽’은 같은 자리에 자면서 다른 꿈을 꾸다는 뜻으로, 겉으로는 같이 행동하면서도 속으로는 각각 판생각을 하고 있음을 이르는 말이다.

- 오답 풀이** ① 일장춘몽: 한바탕의 봄꿈이라는 뜻으로, 헛된 영화나 덧없는 일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② 남가일몽: 꿈과 같이 헛된 한때의 부귀영화를 이르는 말  
 ③ 한단지몽: 인생과 영화의 덧없음을 이르는 말  
 ④ 일취지몽: 인생이 덧없고 영화도 부질없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13** 이 글은 성진이 꿈을 통해 인생무상의 깨달음을 얻는 과정이 나타날 뿐 당대의 모순이나 그에 대한 해결책은 나타나지 않았다.

- 오답 풀이** ① 현실의 공간적 배경에서 용궁에 가는 등 초월적 성격이 드러난다.  
 ② 팔선녀가 갑자기 찾아오고, 대사가 강론을 하자 백호 빛이 세계에 비치는 데서 우연적, 비현실적 요소가 나타난다.  
 ④ 성진과 팔선녀가 깨달음을 얻은 뒤 불법에 귀의해 지내다 극락세계로 가는 행복한 결말이 나타난다.

**14** 성진은 자신이 인간 세상에서 윤회하는 벌을 면한 대신 양소유의 꿈을 꾸었다고 생각한다. 육관 대사는 그런 성진에게 “성진과 소유에 있어 어느 것이 참이며 어느 것이 꿈이나?”라고 물어 봄으로써 현실과 꿈에 대한 구분이 무의미하고, 삶도 꿈과 같은 것이므로 헛된 욕망에 집착할 필요가 없음을 깨우치고자 하였다.

**15** “실로 배운 것이 없어 세속 정욕을 잊지 못하였는데”라며 자신들의 부족함을 고백한 뒤, “사부의 밝은 가르침을 바라나이다.”에서 상대방의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

**16** **예시 답안** 세속과 완전히 단절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었다.

**출제 의도 및 해설** 인물의 행동에 담긴 의도를 묻는 문제이다. 팔선녀는 불문에 귀의하고자 하는 자신들의 의지를 보여 주기 위해 연지분을 씻어 버리고 머리를 깎는 행동을 한다. 이러한 행동은 세속과의 단절을 상징하는 행동이라고 볼 수 있다.



평가 기준

평가 기준	배점
세속과의 단절 의지, 불문에 온전한 귀의 등의 의미를 담음을 제시한 경우	4
20자 내외의 맞춤법에 알맞고 자연스러운 문장으로 쓰지 못한 경우	-1

**유사 정답** '불문에 온전히 귀의하겠다는 다짐을 표현하였다.'

**17** '백호 빛이 ... 비같이 내렸다.'는 부처의 가르침이 온 세상을 비추고, 부처의 자비가 온 세상에 가득하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드러낸 표현으로, 상서롭고 신비로운 분위기를 조성하는 역할을 한다.

2 만세전

**내용 확인 문제** 본문 249~259쪽

01 ①    02 ④    03 해설 참조    04 ③    05 ①    06 ④  
 07 ④    08 ②    09 ②    10 ①    11 ⑤    12 ⑤  
 13 해설 참조    14 ②    15 ⑤    16 ④    17 해설 참조

**01** 서술자인 '나'는 일본인들의 대화를 엿들으면서 자신의 생각과 느낌, 행동의 의도 등을 드러내고 있으므로 객관적 태도라고 볼 수 없다.

**오답 풀이** ② 조선인 노동자를 모집해 일본의 공장과 탄광에 넘기는 노동자 모집원의 말을 통해 당대 조선의 현실을 알 수 있다.

③ 노동자 모집원을 말을 듣고 조선의 참담한 현실을 알게 된 서술자 '나'의 성찰과 심리적 갈등이 드러나고 있다.

④ '이런 도적놈 같은 협잡 부랑배', '상판대기'와 같은 어휘를 통해 일본인들에 대한 서술자의 부정적 시각을 엿볼 수 있다.

**02** '노동자 모집원'은 자신의 이득을 위해 조선의 농군들을 속여 일본의 공장과 탄광으로 보낸 것이지 이들을 돕고자 한 것은 아니다.

**오답 풀이** ① '노동자 모집원'이 조선인 노동자를 "처음 데려갈 때에는 품삯도 많고, 일은 드러누워서 떡 먹기라고 폭 살"는다고 한 것에서 알 수 있다.

② '시골자'는 '노동자 모집원'이 천 원, 이천 원의 돈을 받았다는 것을 듣고 '눈을 휘둥그렇게 뜨고 귀를 기울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③ '노동자 모집원'이 "요보는 말을 잘 듣고 힘드는 일을 잘하는 데다가 임은(賃銀)이 험하니까"라고 말한 것에서 알 수 있다.

⑤ 일본인들의 대화를 들은 '나'가 놀라며 '설마 그렇게까지, 소작인의 생활이 참혹하리라고는, 꿈에도 들어 본 일이 없었다.'라고 한 것에서 알 수 있다.

**03** **예시 답안** 조선인들은 일 년 내내 힘들게 일하고도 반년은 시래기로 목숨을 이어가야 했으며, 일본의 공장이나 탄광에 가서는 고된 일을 하고 돈을 적게 받으며 고생스럽게 지내야 했다.

**출제 의도 및 해설** 인물의 대사와 서술을 바탕으로 작품에 나타난 당대 현실을 파악하는 문제이다. 노동자 모집원의 "한번 따라나서기만 하면야, 전차(前借)가 있는데, 그야말로 독 안에 든 쥐지. 일이 고되거나 품이 험하긴 고사하고 굶어 뒤흔다기루 하는 수 있나"라는 말에서 일본에 가게 된 조선인 노동자의 현실을 짐작할 수 있으며, '일 년 열두 달 죽도록 애를 쓰고도, 반년 짝은 시래기로 목숨을 이어 나가지 않으면 안 되겠으니까'라는 서술에서 조선을 떠나 일본으로 건너간 소작인들의 생활을 알 수 있다.

평가 기준

평가 기준	배점
노동자 모집원의 말에서 짐작할 수 있는 일본에 간 조선인 노동자의 현실을 제시한 경우	2
'나'가 떠올린 조선인 소작농의 현실에 대한 말에서 알 수 있는 소작인의 생활을 제시한 경우	2

**04** '흙의 노예'이며 '자기 자신의 생명의 노예'인 것은 일 년 열두 달 '죽을 고역을 다 하고도, 시래기죽에 얼굴이 붉는' 농민들의 현실을 가리킨 표현이므로 [A]에 이러한 농민의 모습이 나타난다고 할 수는 없다.

**오답 풀이** ①, ②, ⑤ [A]는 '나'가 울분에 쓰던 산문시로, '공상과 천려(淺慮)'를 통해 농촌에서의 삶을 관념적으로 노래하고 있다. 조선의 비참한 현실에 눈을 뜨게 된 '나'는 이에 대해 부끄러움을 느끼며 반성적으로 성찰하고 있다.

④ '주름만이 무엇보다도 확실한' 품삯인 것은 당시 조선 농민들의 현실로, [A]의 낭만적인 농촌의 모습과 거리가 있다.

**05** ㉠은 생계를 위하여 농사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을 염려하여 취미로 농사일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06** [B]에서 '나'는 궤자의 오만한 언사에 불쾌함을 느끼는 한편, 일본어를 하는 조선인인 '나'와 궤자를 바라보는 일본인들의 경멸 어린 시선에 불쾌함과 무기력함을 느낀다. 그러나 어떤 위험이 닥칠지 몰라 두려움을 느끼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았다.

**07** '나'는 풀이 죽고 공손해진 '궤자'를 보고 도리어 불쌍하고 가엾게 여겨 동정하지만, 이후 '궤자'가 빈정대는 듯한 빛이 보이자 분노를 느끼게 된다.

**08** 옥실 문 밖에서 '나'는 '궐자'의 언사와 태도가 점점 풀이 죽고 공손해진 것을 보고, 그 이유가 '궐자'가 자신이 조선인이라는 사실이 탄로 나는 것을 염려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 것이지, 자신이 조선인이라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 아니다.

**오답 풀이** ① '나'가 옥실 문 밖으로 나오자 '궐자'는 자신을 '××서(晷)'에서 나왔다고 소개하고 있다. 이를 통해 '궐자'의 신분인 형사임을 짐작할 수 있다.

⑤ 선실을 나온 '나'는 갑판으로 나와서 승강구까지 불려다가 조사를 하게 하려 해 보았지만 '궐자'가 들어주지 않자 화가 나는 것을 참고 잔교로 내려섰다.

**09** '궐자'와 승강이만 하다가는 배 시간을 놓칠 수도 있다는 판단을 내리는 것과 '궐자'를 따라나서면서 도시락 그릇까지 가지고 나가는 모습에서 '나'가 신중하고 치밀한 성격임을 알 수 있다.

**10** 이 글은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작품 속 인물 '나'가 자신이 겪은 상황에 대한 생각이나 느낌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고 있다.

**11** 형사들은 자신들이 찾고자 하는 물건들이 가방 속에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살살이 뒤지고 있는 것이지, '나'를 곤경에 빠뜨리기 위하여 일부러 천천히 가방을 검사한다고 볼 수는 없다.

**오답 풀이** ② 학생복을 입은 형사는 '나'의 옆에 느린히 서서 양복에 외투를 입은 형사가 던져 주는 옷을 받는 보조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④ '여덟 입술은 풀로 붙인 듯이, 아무도 입을 벌리려는 사람이 없었다.'는 내용을 통해 대화 없이 가방 뒤지는 일에 집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2** '나'는 형사들이 가방을 뒤지는 것에만 열중할 뿐, '나'가 타고 갈 배 시간이 다 되어 간다는 사실을 배려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답답함을 느끼고 있다.

**13** **예시 답안** '형사들'은 자신들의 일에 몰두하고 있고, '나'는 극도의 긴장감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다.

**출제 의도 및 해설** 구절에 담긴 의미를 묻는 문제이다. 배에 짐을 싣는 인부의 소리나 파도 소리도 들리지 않고, 그보다 훨씬 작은 소리인 종잇장 구기는 소리만 들렸다는 것은 '나'가 그만큼 긴장한 채 가방 뒤지는 모습을 집중하여 지켜보고 있음을 말해 준다.

**평가 기준**

평가 기준	배점
형사들이 '나'의 짐을 뒤지는 데 집중하고 있음을 제시한 경우	2
'나'가 긴장감을 느끼고 있음을 제시한 경우	2
	4

**14** ㉔에서 '나'는 형사들이 가방을 뒤지는 시간이 길어져 배를 놓치게 될까봐 초조해하고 있다. 이처럼 몹시 마음을 쓰며 애를 태우는 것을 뜻하는 한자 성어는 '노심초사(勞心焦思)'이다.

**오답 풀이** ① 오매불망: 지나 깨나 잊지 못함.

③ 풍전등화: 바람 앞의 등불이라는 뜻으로, 사물이 매우 위태로운 처지에 놓여 있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④ 아전인수: 자기 눈에 물 대기라는 뜻으로, 자기에게만 이롭게 되도록 생각하거나 행동함을 이르는 말

⑤ 안하무인: 눈 아래에 사람이 없다는 뜻으로, 방자하고 교만하여 다른 사람을 업신여김을 이르는 말

**15** 형사가 서류 몽텅이를 가져가겠다고 말한 것은 가방 속에서 자기들이 찾고자 하는 것을 찾지 못하자 겸연쩍었기 때문이지, '나'를 보내 주기 위한 행동이라고 보기 어렵다.

**16** 형사가 가져가겠다고 한 서류 몽텅이는 집에서 온 편지 몇 장과 소설 초고, 몇 가지 원고에 불과하기 때문에 형사가 가져간다고 해도 문제가 될 것이 없었기 때문에 허락한 것으로, 당장에는 배 시간에 늦지 않게 배로 돌아가려는 의도도 있었다.

**17** **예시 답안** 조선인이라는 이유로 당하는 멸시와 모욕에 분노하는 한편 현실 대응과 관련한 무력감을 느꼈기 때문에 눈물을 흘렸다.

**출제 의도 및 해설** 인물의 행동에 담긴 의도를 묻는 문제이다. 주인공 '나'는 조선으로 귀국하는 길에 조선의 참혹한 현실을 깨닫고, 자신도 조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부당한 검문을 받으며 폭력적인 식민지 지배의 현실에 분노한다. 그러나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없는 자신의 한계를 인식하고 '뜨끈뜨끈한 눈물'을 흘리게 된다.

**평가 기준**

평가 기준	배점
조선인이라는 이유로 당하는 멸시에 분노, 수치심을 느끼를 제시한 경우	2
상황에 맞서지 못한 것에 무력감, 슬픔을 느끼를 제시한 경우	2
<조건>에서 제시한 형식과 맞춤법에 알맞은 자연스러운 문장으로 쓰지 못한 경우	-1
	4



### 3 겨울 나들이

#### 내용 확인 문제

본문 266-275쪽

- 01 ④    02 ③    03 해설 참조    04 ③    05 해설 참조  
 06 ④    07 ③    08 ⑤    09 해설 참조    10 ③    11 ②  
 12 ②    13 대사업의 동업자

01 이 글은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작품 속에 등장하는 ‘나’가 자신의 체험을 전달하면서 자신의 주관적인 판단도 함께 서술하고 있다.

02 처음 본 사람이지만 추위 보이는 ‘나’를 친동기간처럼 스스럼없이 안방으로 이끄는 아주머니의 모습에서 배려심이 깊고 적극적인 성격임을 추측할 수 있다.

03 **예시 답안** ‘나’는 자신을 거부하는 몸짓으로 여겼지만, ‘아주머니’는 아무렇지도 않은 태도를 보였다.

**출제 의도 및 해설** 인물의 특이한 행동에 대한 다른 인물들의 반응을 묻는 문제이다. ‘나’는 노파가 자신을 바라보며 고개를 좌우로 젓자 자신을 거부하는 몸짓으로 여긴다. 하지만 ‘아주머니’는 노파를 자기 시어머니라고 소개하면서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행동하고 있다.

#### 평가 기준

평가 기준	배점
‘나’가 도리질을 자신을 거부하는 몸짓으로 여겼음을 제시한 경우	2
아주머니가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행동했음을 제시한 경우	2
<조건>에서 제시한 형식과 맞춤법에 알맞은 자연스러운 문장으로 쓰지 못한 경우	-1

04 몸은 비록 수척했지만, 단정하게 빗어 쪽 찢 머리와 비단 저고리에 스웨터를 걸친 모습을 통해 아주머니가 시어머니인 노파를 얼마나 정성껏 봉양하고 있는지 짐작할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노파의 외양이 단정하고 정갈하며 특이한 우아함이 있음이 드러날 뿐 강직한 성품을 엿볼 수는 없다.

② ‘있었다’, ‘보였다’와 같은 과거 시제 표현이 나타난다.

④ ‘나’는 노파의 ‘특이한 우아함’을 ‘비현실적인 우아함’이라고 느끼고 있으나 이를 통해 노파를 부정적으로 여기는 것은 아니다.

⑤ ‘나’와 노파가 가까워질 것이라는 암시는 찾아볼 수 없다.

05 **예시 답안** 노파의 멈추지 않는 도리질에 대해 궁금했기 때문이다.

**출제 의도 및 해설** 인물의 행동에 대한 이유를 파악하는 문제이다.

‘나’는 처음에 노파가 고개를 저어 도리질하는 것을 멈추지 않자 여관을 찾아 온 ‘나’를 거부하는 몸짓으로 받아들인다. 그런데 아주머니가 노파의 도리질에 대해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자 ‘나’는 노파의 도리질에 대해 의아하게 생각하게 되었는데 잠에서 깨어났을 때 그 궁금증이 다시 떠오른 것이다.

**평가 기준** 노파의 도리질에 대해 궁금증(의문)이 들었기 때문임을 제시한 경우 2점. 부분 점수 없음.

06 ‘나’는 점심상에 대한 아주머니의 말과 행동이 지나치게 저자세로 느껴져 불편하다 못해 측은하다는 생각까지 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후 정성을 기울여 만든 점심상을 대하고 아주머니에 대한 오해와 경계심이 조금씩 풀리게 된다.

07 ‘나’가 노파의 도리질에 대해 자신을 못마땅하게 여겼기 때문이냐고 묻자 아주머니는 ㉔와 같이 답하며 오해를 풀어 주려 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㉔는 ‘나’가 같이 식사를 하자고 하자 대답한 말일 뿐 상대가 원하는 말을 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② ㉔는 할머니의 도리질에 대한 ‘나’의 판단을 드러낼 뿐 ‘나’가 그것을 잘못이라 여기며 서운함을 드러낸 것은 아니다.

④ ㉔는 이십오 년 동안이나 도리질을 하고 있다는 말에 대한 놀라움을 표현한 말이다.

⑤ ㉔는 ‘나’의 반응에 따라 앞서 한 말에 추가 정보를 덧붙인 것으로 상대의 반응과 무관하게 자신의 주장을 펼친 것은 아니다.

08 인민군들이 시어머니의 비명에 놀란 듯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보아, 그들은 처음부터 누굴 해치려고 나타난 것은 아닌 것으로 볼 수 있다.

09 **예시 답안** 시어머니는 어리숙하고 고지식하기 때문에 이웃이나 친척도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 다른 사람의 꿈에 빠져 위험에 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소단원 평가 문제 미리 보기

- 01 ⑤
- 02 ③
- 03 해설 참조
- 04 ②
- 05 ③
- 06 ③
- 07 ②
- 08 ②
- 09 ①
- 10 해설 참조
- 11 ④
- 12 ④
- 13 ③
- 14 ③
- 15 ④
- 16 ②
- 17 ②
- 18 ③
- 19 ③
- 20 ③
- 21 ④
- 22 ③
- 23 ②
- 24 ②
- 25 해설 참조

**출제 의도 및 해설** 구절이 의미하는 구체적인 내용을 묻는 문제이다. 아주머니는 시어머니가 남을 의심할 줄 모르기 때문에 혹시라도 남편이 있는 곳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게 될까 염려하고 있다. ㉠은 시어머니처럼 어리숙하고 고지식한 사람은 살벌한 전쟁 상황에서 제대로 살아갈 수 없다는 생각을 드러낸 표현이다.

**평가 기준**

평가 기준	배점
시어머니가 어리숙하고 고지식한 성격임을 밝힌 경우	2
전쟁 당시 이웃이나 친척을 믿을 수 없었던 상황을 제시한 경우	2

**유사 정답** '시어머니는 남을 의심할 줄 모를 정도로 어리숙하고 고지식해서 비정한 전쟁 상황에서 살기 어렵기 때문이다.'

**10** 제시된 부분에서는 주로 '나'와 '아주머니' 사이의 대화를 통해 '아주머니'가 '나'를 유난히 반가워했던 이유를 밝히고 있다.

**11** 전쟁 중에 '아주머니'는 남편을 잃는 비극적인 일을 겪었다. 하지만 '나'는 전쟁 중에 아내를 북에 두고 내려온 남편과 결혼하여 살고 있는 것이지 전쟁으로 인해 가족을 잃은 것은 아니다.

**오답 풀이** ① <보기>에서 '나'는 남편이 북에 두고 온 아내를 그리워한다고 생각하여 자신의 삶에 회의를 느꼈음을 알 수 있다.

③ '나'는 '아주머니'와 대화하다가 "하필이면 이 추운 날."이라는 걱정 의 말을 하고는 자신에게 그 말을 한 남편을 떠올리며 남편에 대한 서운함을 잊고 있다.

**12** '나'는 힘겨운 상황에서도 가족을 살뜰히 챙기는 '아주머니'를 보면서 가족의 가치와 소중함에 대해 깨닫게 된다. 그래서 홀로 여행하는 것을 중단하고 가족이 있는 서울로 되돌아가기로 결정한 것이다.

**13** '나'는 손을 마주 잡고 있는 '아주머니'와 '노파'의 손 위에 자신의 손을 얹는다. 두 사람 모두 가족을 위해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대사업)을 하고 있다는 생각에 감동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아주머니'와 '노파'를 대사업의 동업자라고 표현한 것이다.

**01** 이 글은 유교, 불교, 도교가 사상적 바탕을 이루고 있으며, 그중에서 불교의 '공(空)' 사상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오답 풀이** ③ '남자로 세상에 태어나서 ... 대장부의 일이라.'라는 성진의 생각과, 꿈속에 나타난 양소유의 삶에 당시 조선 시대 사대부들의 입신양명에 대한 출세관이 드러난다.

**02** '우리 부처의 법문은 ... 비록 그 도가 높고 아름다우나'라고 한 것을 고려할 때, 성진이 부처의 가르침을 모두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오답 풀이** ④ '출장입상(出將入相)'은 나가서는 장수가 되고 들어와서는 재상이 된다는 뜻으로, 문무를 다 갖추어 장상(將相)의 벼슬을 모두 지냄을 이르는 말이다. '남자로 세상에 태어나서 ... 나가서는 장수가 되고 들어와서는 정승이 되어'에서 '성진'은 남자로 태어나 출장입상을 추구해야 한다고 생각함을 알 수 있다.

**03** **예시 답안** 육관 대사는 성진이 세 가지 행실을 어겼기 때문에 그를 꾸짖었는데, 그 이유는 성진은 용궁에서 술을 마시고 취했으므로 ㉠을 어기고, 석교에서 팔선녀와 수작하여 ㉡을 어기고, 세상 부귀를 흠모하고 불가의 적막을 싫게 여겨 ㉢을 어졌기 때문이다.

**출제 의도 및 해설** 성진이 어긴, 중이 지켜야 할 행실을 파악하는 문제이다. 육관 대사의 말을 통해 성진은 술에 취하고, 팔선녀를 만나 언어로 수작하며, 남자로 태어나 장수나 정승이 되는 부귀영화는 누리지 못하고 적막하게 지냄을 한탄하는 등의 불교의 계율을 어긋난 행동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평가 기준**

평가 기준	배점
육관 대사의 말을 바탕으로 ㉠~㉢에 해당하는 내용을 각각 쓴 경우 (각 1점)	3
맞춤법에 알맞은 자연스러운 한 문장으로 쓰지 못한 경우	-1

**04** 용왕은 용궁의 술이 인간의 술과는 다르게 사람의 기운을 화창케 하고 마음을 방탕하게 아니한다고 하면서 성진에게 술을 마실 것을 권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③에서는 술을 권하는 용왕에게 불가에서는 술을 광약으로 여겨 경계하는 것으로 여긴다며 정중하게 거절의 뜻을 전하고 있다.

④ 성진은 자신이 무슨 죄를 저질렀는지 모두 말하지 않는다.

**05** ㉠에서 대승상의 자리까지 오르고 팔선녀와 모두 인연을 맺은 양소유는 인생무상을 깨닫고 불문에 귀의하려는 생각을 갖는다. 하지만 이때 자신이 꿈속 세계에 있음을 깨달은 것은 아니므로, ㉡로 되돌아가기를 원하는 것은 아니다.

**06** 이 글과 <용궁부연록>은 모두 '현실-꿈-현실'의 환몽 구조를 지니고 있으며, 현실과 꿈의 공간적 배경이 서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구운몽>의 성진이 팔선녀와 인연을 맺는 것에만 해당한다.

② <구운몽>의 성진이 꿈을 통해 깨달음을 얻고 불문에 귀의하는 것에만 해당한다.

④ <구운몽>에서는 성진이 꿈속에서 양소유라는 인물로 형상을 바꾸어 다시 태어나지만, <용궁부연록>에서는 한생이 그대로 용궁에 간 내 용으로 이어진다.

⑤ <용궁부연록>의 주제이다.

**작품 더 보기**

● 김시습, <용궁부연록>

- 갈래: 전기 소설, 한문 소설, 몽유 소설
- 주제: 자신의 능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현실에 대한 슬픔
- 해제: 고려 시대 인물인 한생이 용궁에 초대를 받아, 공주의 혼인을 위해 지은 누각의 상량문을 지어 주고 성대한 잔치를 즐기고 돌아온 이야기이다. 그러나 용궁에서 돌아온 한생은 속세를 버리고 산속으로 들어가 종적을 감추었다. 이는 용궁의 잔치에서 자신의 글이 높이 평가받고, 용왕을 비롯한 신들과 더불어 글을 주고받으며 잔치를 즐겼던 경험이 환상적이고 행복했지만 현실 세계는 그렇지 못하다는 좌절감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참고 자료**

● <용궁부연록>의 구성

처음	개성에 사는, 문장을 잘하여 이름이 알려진 한생이 용궁에 초대를 받아 용궁으로 향함.
중간 1	한생은 용왕의 부탁으로 결혼하는 공주의 집을 위한 상량문을 지어 줌.
중간 2	한생이 잔치에 온 여러 인물과 더불어 시를 주고받는 연회를 즐김.
중간 3	잔치를 마치고 용궁의 여러 곳을 구경함.
끝	진주와 흰 비단을 선물로 받고 집으로 돌아온 한생은, 이를 소중히 여기며 남에게 보이지 않고 속세를 떠나 산에 들어가 자취를 감춤.

**07** 성진은 자신을 벌하는 대신 꿈을 통해 깨달음을 얻게 해 준 육관 대사에게 고마움을 느끼고 있다. '각골난망'은 남에게 입은 은혜가 뼈에 새길 만큼 커서 잊히지 아니함을 뜻하는 말이다.

**오답 풀이** ① 망연자실: 멍하니 정신을 잃음.

③ 풍수지탄: 효도를 다하지 못한 채 아버지를 여읜 자식의 슬픔을 이르는 말

④ 온고지신: 옛것을 익히고 그것을 미루어서 새것을 알.

⑤ 이심전심: 마음과 마음으로 서로 뜻이 통함.

**08** '나'는 일본인들의 대화를 통해 그동안 알지 못했던 조선 농민들의 현실에 대해 인식하고, 심리적 갈등을 겪고 있다. 또한 자신을 '책상 도련님'으로 표현하며 현실을 제대로 알지 못한 자신의 과거를 뉘우치고 있으나, '나'가 이상과 현실적 제약 사이에서 좌절하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다.

**오답 풀이** ① '이로부터 하려는 일이 결국 무엇인가 하는 의문과 불안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었다.'를 통해 자신의 미래에 대해 회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09** '나'가 농촌 생활을 낭만적으로 인식한 시를 썼을 뿐이지 지식인들이 농촌에서의 전원 생활을 꿈꾸었다는 내용은 나타나 있지 않다.

**10** **예시 답안** '나'는 조선의 농민들이 참혹한 현실에 처해 있는 것을 모른 채 이와 관련 없는 흙이 지닌 생명력이나 농촌에서의 낭만적 삶을 노래한 시를 썼기 때문이다.

**해설** [A]는 '나'가 쓴 산문시로, 시를 쓰는 것과 받을 가는 것을 동일시하며 흙이 지닌 생명력을 예찬하고 있다. 이는 '나'가 조선의 참혹한 현실을 알기 전에 쓴 것으로, 나는 일제 강점기 조선의 현실을 깨달은 후 자신이 쓴 시를 부끄러워하고 있다.

**평가 기준**

평가 기준	배점	
시의 내용이 현실과 관련 없는 흙의 생명력, 농촌의 낭만을 다룬 것임을 제시한 경우	2	4
'나'가 조선의 현실을 깨닫고 부끄러움을 느낌을 쓴 경우	2	
대비 형식의 맞춤법에 알맞은 자연스러운 한 문장으로 쓰지 못한 경우	-1	

**11** '나'는 일본인들의 대화 내용을 듣고 조선의 현실에 대해 인식하게 된다. 결국 ㉠은 '나'로 하여금 현실의 문제에 눈을 뜨도록 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12** 이 글은 작품 속 인물인 '나'가 자신이 겪은 일을 서술하면서,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그대로 전달해 주고 있다. 이를 통해 독자는 서술자와의 거리를 가깝게 느끼며 독자는 인물의 생각을 살펴보고 공감하거나 비판할 수 있게 된다.

- 오답 풀이** ① 이 글은 현재 서술자가 처한 상황을 중심으로 사건을 전개하고 있다. 현재와 과거를 오가는 구조는 나타나지 않는다.  
 ② 사건에 대한 서술자 '나'의 주관적인 묘사를 통해 '나'의 심리를 알 수 있도록 하였다.  
 ③ 장면과 서술자가 빈번하게 전환되는 부분은 찾아볼 수 없다.  
 ⑤ 서술자 '나'가 자신의 심리만을 전달하고 있다.

**13** '나'는 조선인으로 보이는 '결자'와 일본어로 승강이를 벌이는 모습을 배 안에 있는 일본인들이 경멸하는 듯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을 느끼고 있다.

- 오답 풀이** ② '나'와 '결자'는 조선인임에도 일본인들 앞에서 일본어로 대화하고 있다. '나'는 이 상황을 '희극을 연작하는 앵무새 격'이라고 표현하며 부끄러워하고 있다.

**14** ㉠은 상대의 오만한 행동에 대해 불쾌한 어조로 말한 것이지만, 웃을 입으며 나갈 준비를 하는 행동을 통해 볼 때 거짓말이라고 볼 수는 없다.

- 오답 풀이** ④ ㉠에서 2분이라는 구체적인 시간을 언급한 것에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빨리 서둘러 달라는 의도가 담겨 있다.  
 ⑤ ㉠은 한참 가방을 뒤졌지만 자신들이 찾으려는 것이 나오지 않자, 겸연쩍은 마음에 서류 뭉텅이라도 가져가겠다고 말한 것이다.

**15** 이 글에는 일제 강점기의 조선 현실이 사실적으로 나타나 있지만, 일제의 식민 지배 정책에 적극적으로 저항하려는 의지는 나타나 있지 않다.

- 오답 풀이** ① <보기>에서 글의 일부가 삭제 당했다는 것에서 당시 일제의 검열과 탄압이 심했음을 알 수 있다.  
 ② 이 글은 3·1 운동(1919) 직전의 1918년을 배경으로 하고 있으며, 당시 조선 사회가 얼마나 비참했는지를 사실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③ 일제 강점기의 조선 청년인 '나'는 조선의 실상을 알고, 일련의 사건을 겪으며 무력감과 수치심을 느꼈다.  
 ⑤ 이 글의 서술자는 조선의 실상을 '무덤'이라 표현하고 있는데, 이는 생기를 잃고 죽은 듯 보이는 당시 암담한 조선의 현실을 보여 준다.

**16** 이 글에서 서술자 '나'는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한편 아주머니에게 들은 이야기를 요약적으로 전달해 주고 있다. 서술자가 사건에 개입하여 인물 간의 갈등을 중재하는 부분은 나타나 있지 않다.

**오답 풀이** ① 대화를 통해 아주머니의 노파를 위한 헌신적인 사랑을 보여 주고 있다.

- ③ '나는 어쩌면 이 아주머니야말로 대사업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 등골에 전율이 지나갔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④ 6·25 전쟁으로 인해 아주머니의 가족이 받은 상처와 이를 가족애를 통해 극복하고자 하는 것을 통해 주제 의식이 잘 드러나 있다.  
 ⑤ 아주머니의 말을 통해 노파가 도리질을 계속하는 원인을 알 수 있다.

**17** '그녀'는 남편을 지키기 위해 [A]에서 시어머니에게 '모른다'를 열심히 가르쳤는데, 이를 충실히 따른 시어머니가 [B]에서 겁에 질린 반응을 보임으로써 역효과가 나타나 남편을 잃게 되는 비극적 상황으로 이어졌다.

**18** ㉠은 시어머니의 성격 탓에 다른 사람의 꼬임에 빠져 남편이 가 있는 곳을 실토하게 될까봐 걱정하는 마음을 나타낸다. 가족 관계의 단절과는 관련이 없다.

- 오답 풀이** ① 남편은 면장이었기 때문에 인민군에게 잡히면 처형될 수 있었다.  
 ② 오랫동안 함께 지낸 이웃들조차 믿을 수 없었던 것은 전쟁의 비정함을 보여 준다.  
 ④ 시어머니의 '찢어지는 소리'는 아주머니와 남편이 분별력 없이 뛰어 나가게 된 원인에 해당한다.  
 ⑤ 인민군들도 갑작스럽게 전개되는 상황에 놀라는 반응을 보였다.

**19** '아주머니'는 전쟁 중에 남편을 잃은 비극적인 일을 겪었지만, 병에 걸린 시어머니를 홀로 봉양하고, 아들을 정성껏 키웠다. 이를 통해 힘겨운 상황에서도 가족을 지키려는 강한 의지를 드러낸 인물임을 알 수 있다.

**20** '아주머니'는 실성하다시피 한 시어머니를 극진히 봉양하고, 병을 고쳐 드리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하였다. 이런 모습을 고려할 때 '아주머니'가 시어머니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다는 감상은 적절하지 않다.

**21** '아주머니'가 하숙집 주인에게 자신의 아들을 제대로 돌보지 않은 것에 대해 섭섭한 마음을 지니고 있다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22** 가족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아주머니'의 모습에 감동을 받은 '나'는 여행을 취소하고 가족이 있는 서울로 돌아가기로 결심하였다.





23 가. '아주머니'는 편지에 담긴 아들의 소식으로 인한 불안감을 조금이라도 덜어 보려고 자신만의 미신을 만들고, 서울에 직접 가서 확인해 보기로 하였다.

나. 아주머니는 편지를 읽고 아들의 신상에 혹시 불미스러운 일이 있을 것 같아 불안감을 느껴서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다.

**오답 풀이** 나. 편지 때문에 '아주머니'와 '나'가 함께 서울로 가야만 하게 된 것이 아니라, '아주머니'가 서울로 가는 사연을 듣고 '나'가 함께 서울로 가겠다고 한 것이다.

다. 편지는 하숙집 주인이 쓴 것이기 때문에 아주머니를 그리워하는 아들의 마음과는 관련이 없다. 하숙집 주인은 아주머니의 아들의 행방이 걱정이 되어 편지를 보냈다.

라. '아주머니'는 편지를 받고 불안감을 느껴 직접 서울에 가고자 하였다. 아들과의 추억을 떠올리는 것과는 관련이 없다.

24 ㉠은 아주머니가 '미신'의 내용을 말하기 부끄러워서 머뭇거리고 있는 것을 보여 준다.

25 **예시 답안** '아주머니'에게는 아들에게 별 탈이 없을 것이니 안심하라는 의미로, '나'에게는 가족을 위해 살아온 삶이 헛되지 않았다는 의미를 전한 것으로 보였는데, 이는 모두 '도리질'에 상대방에 대한 위로와 격려가 담겨 있는 것으로 본 것이다.

**출제 의도 및 해설** 인물의 행동에 대한 '나'의 인식을 이해하는 문제이다. 아주머니에게서 노파의 도리질과 관련한 사연을 들은 후 '나'는 노파의 도리질에 대한 인식이 달라진다. 즉 이전에는 이상한 행동으로 보였던 도리질이 아들에 대한 걱정 때문에 서울에 가려는 '아주머니'에게는 아들에게 아무 일 없을 테니 걱정하지 말라는 것을, 그리고 '나'에게는 인생을 결코 헛살지 않았으니 힘을 내라는 것을 전하려는 뜻이 인식된 것이다.

**평가 기준**

평가 기준	배점
'아주머니'에게 걱정 말라는 의미로 보였음을 제시한 경우	2
'나'의 삶이 헛되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처럼 보였음을 제시한 경우	2
두 해석 모두 위로와 격려를 담고 있음을 제시한 경우	2
80자 내외의 맞춤법에 알맞은 자연스러운 한 문장으로 쓰지 못한 경우	-1
6	

### 3 극 갈래의 흐름

#### 1 봉산 탈춤

내용 확인 문제

본문 294~301쪽

- 01 ②    02 ④    03 ③    04 ⑤    05 ㉠ → ㉡ → ㉢ → ㉣  
 06 ⑤    07 취발이의 등장    08 ③    09 ②    10 ④    11 ②  
 12 ④    13 ③    14 전령

01 이 글에서 '춤'은 인물들 간의 갈등을 일시적으로 해소하고 재담을 마무리하는 기능을 한다.

**오답 풀이** ① "개질량이라는 '양' 자에 개다리소반이라는 '반' 자 쓰는 양반"에 언어유희가 드러나 있다.

02 '쉬이'는 새로운 재담을 시작을 알리면서 청중이 자신의 말에 집중하도록 유도하는 기능을 한다.

03 ㉠은 탈춤을 구경하는 관객들을 가리키며, 나머지는 모두 극중의 양반들을 가리키는 말이다.

04 말뚝이의 대사 속에 나오는 각종 가구들은 공연 현장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들을 직접 가리키며 양반의 사치스러운 생활상을 폭로할 수 없다.

**오답 풀이** ① 말뚝이는 '노새 원님'과 '노 생원님'의 발음이 유사한 것을 이용한 언어유희를 통해 양반을 조롱하고 희화화하고 있다.

② 말뚝이는 양반의 말에 '없습디다'라고 무례하게 대꾸하였다.

③ '말뚝이님'과 '생님 비뚝한 놈'에서 '-님'과 '놈'을 바꿔 사용하여 양반을 조롱하고 있다.

④ 탈춤은 별도의 무대 장치가 없기 때문에 채찍으로 원을 긋는 행위만으로 새로운 공간이 있음을 나타낸다.

05 '제6 과장'의 앞부분에는 '말뚝이의 조롱 - 양반의 호통 - 말뚝이의 변명 - 양반의 안심'과 같은 재담의 구조가 반복적으로 나타난다.

06 거거리장단에 맞추어 등장인물이 함께 춤을 추는 것은 그들의 갈등이 일시적으로 해소되었음을 알리는 기능을 한다.

07 양반들이 시조 읊기와 한시 짓기, 파자 놀이에 스스로 만족하여 서로 칭찬하는 와중에 이제까지 등장하지 않았던 취발이라는 인물이 한편 구석에서 있는 것은 이후 취발이와 관련된 새로운 사건이 벌어질 것임을 암시한다.

08 가면극(탈춤)은 극 갈래의 하나로 서술자가 따로 등장하지 않고 인물의 말과 행동만으로 사건이 전개된다.

**오답 풀이** ② 가면극(탈춤)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공터만 있다면 어딘든 무대가 될 수 있다. 특별한 무대 장치가 없기 때문에 장면 전환도 대사와 행동만으로 쉽게 이루어진다.

⑤ 가면극(탈춤)은 무대와 객석이 엄격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다.

09 ㉠은 늙어 감을 한탄하는 시조인 <탄로가>의 한 대목이다. ㉡은 인생무상을 노래한 잡가인 <성주풀이>의 한 대목이다. 양반들은 자신의 학식과 교양을 과시하고자 시조를 읊었지만 그 내용은 서민이 즐겨 부르는 잡가와 별반 차이가 없음을 보여 주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은 말뚝이가 양반을 조롱할 의도로 부른 것으로 볼 수 있다.

10 가면극(탈춤)의 향유층을 고려했을 때, 관객들은 대부분 평민들이기 때문에 한자에 대한 지식이 많지 않다. 따라서 '파자'가 관객들에게 친숙한 놀이라고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11 앞에서는 양반들의 시조 읊기와 한시 짓기, 파자 놀이 등이 나왔는데, 이 부분에서는 취발이와 관련된 사건이 새롭게 전개되고 있다. 이 두 사건 사이에는 아무런 인과적 관계가 없다.

12 양반의 전령을 보고 상인인 취발이가 순순히 잡혀가는 것을 볼 때, 상인들의 영향력이 양반 계층을 뛰어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답 풀이** ① '나랏돈 노랑돈 칠 푼 잘라먹은 놈'을 통해 알 수 있다.  
 ② 취발이에게서 돈을 받고 그를 풀어 주려고 하는 행동을 통해 알 수 있다.  
 ③ 상인인 취발이를 힘세고 날랜 인물로 설정한 것을 통해 알 수 있다.  
 ⑤ '시대가 금전이면 그만인데'라는 말뚝이의 말을 통해 알 수 있다.

13 '전환'에서 양반들은 나랏돈을 횡령한 취발이를 벌하려고 하지만, '결말'에서 결국 돈을 받고 취발이를 풀어 주는 부패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14 종잇조각에 불과한 전령이지만 힘이 세고 날랜 취발이를 손쉽게 잡아들일 수 있다는 것은 양반의 권위와 위력이 여전히 막강했음을 보여 준다.

2 파수꾼

내용 확인 문제

본문 308-317쪽

- 01 ⑤   02 ②   03 ④   04 해설 참조   05 ①   06 ⑤  
 07 딸기   08 ③   09 ①   10 ②   11 ④   12 관객들을 마  
 을 사람들이나 것으로 설정하는   13 ②   14 ④   15 ⑤

01 극 갈래에서는 서술자를 따로 두지 않고 인물의 말과 행동으로 사건을 전개한다.

**오답 풀이** ② 희곡은 무대 상연을 전제로 쓴 대본이다.

④ 무대라는 한정된 공간을 활용하기 때문에 공간과 등장인물 수에 제약 받는다.

02 촌장을 보고, "아, 촌장님, 여긴 웬일이십니까?"라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볼 때, '파수꾼 나'는 촌장의 방문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이리가 뒷에 치어 있다는 촌장의 말을 듣고 바로 확인하려 가려는 모습을 통해 이리를 두려워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④ 촌장에게 편지를 쓴 사람은 '파수꾼 다'이다.

⑤ "촌장님도요, 더 늙으셨어요."라는 말을 통해 이전에도 촌장을 본 적이 있음을 알 수 있다.

03 촌장이 '파수꾼 나'에게 거짓말을 한 이유는 '파수꾼 나'를 찾기 있는 쪽으로 보낸 후, '파수꾼 다'와 단 둘이서 대화를 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04 **예시 답안** 망루는 이리 떼의 출현을 알려 마을 사람들을 두려움에 떨게 하고, 궁극적으로는 거짓 공포를 조장하여 촌장의 권력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한다.

**출제 의도 및 해설** 이 희곡에 나타나는 '망루'라는 공간의 역할과 상징성을 파악해 보는 문제이다. '망루'는 파수꾼들이 올라가 이리 떼를 감시하는 공간이다. 이는 마을 사람들에게 '이리 떼가 나타났다.'라는 거짓 정보를 알리는 역할을 하는데, 이는 곧 촌장의 권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공포를 조장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평가 기준

평가 기준	배점
'망루'를 정확히 표기하여 쓴 경우	1
마을 사람들에게 거짓을 전달하는 '망루'의 역할을 서술한 경우	2
촌장의 권력을 유지해 주는 '망루'의 역할을 서술한 경우	2

05 촌장은 '파수꾼 다'에게 이리 떼가 없다는 사실을 순순히 인정하고 있다.



**06** '이리 떼'는 촌장이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가짜로 만든 적을 의미하고, '흰 구름'은 진실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리 떼'는 촌장의 권위를 유지시켜 주는 기능을 하지만 권위 그 자체를 상징하지는 않으며, '흰 구름'은 마을 사람들의 복종과 무관하다.

- 오답 풀이** ③ "없는 걸 왜 무서워하겠나?", "난 알고 있지."를 통해 촌장은 처음부터 '이리 떼'의 실상에 대해 알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④ 실제로 보이는 것은 '흰 구름'인데 이것을 '이리 떼'라고 믿도록 한 것이다. 따라서 ㉠과 ㉡은 같은 대상을 서로 다르게 지칭한 것이다.

**07** '딸기'는 부정권력으로 얻은 이익을 상징하며, 촌장이 '파수꾼 다'를 회유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려 하고 있다.

**08** '파수꾼 다'는 촌장과 대화를 나누는 초반부에는 마을 사람들에게 진실을 알려야 한다는 확고한 생각을 말하고 있다. 하지만 뒷부분으로 갈수록 촌장의 교묘한 회유에 넘어가고 있다.

**09** 촌장은 듣기 좋은 말로 '파수꾼 다'를 회유하여 위기 상황을 넘기려 하고 있다. '감언이설'은 솔직하도록 남의 비위를 맞추거나 이로운 조건을 내세워 꾀는 말을 뜻한다.

- 오답 풀이** ② 곡학아세: 바른길에서 벗어난 학문으로 세상 사람에게 아첨하는 것을 뜻한다.  
 ③ 침소봉대: 작은 일을 크게 불리어 떠벌리는 것을 말한다.  
 ④ 주마가편: 달리는 말에 채찍질한다는 뜻으로, 잘하는 사람을 더욱 장려함을 이르는 말  
 ⑤ 적반하장: 도둑이 도리어 매를 든다는 뜻으로, 잘못된 사람이 아무 잘못도 없는 사람을 나무람을 이르는 말

**10** '파수꾼 다'는 마을 사람들에게 진실을 알려야 할지, 촌장의 말대로 진실을 덮을 것인지 갈등하고 있는데, 이러한 내적 갈등은 '파수꾼 다'의 행동으로 나타난다.

**11** 촌장은 진실을 알고 있는 운반인이 두 번 다시 마을 사람들에게 진실을 알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처벌하려고 한 것이다. 또한 마을 사람들에게 함부로 진실을 말하지 못하도록 공포심을 조장하려는 의도도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다.

**12** 이 글에서는 등장인물 수의 제약을 피하기 위하여 객석에 있는 관객들을 마을 주민들로 설정하였다.

**13** <파수꾼>은 황야에서 발생한 촌장과 '파수꾼 다' 사이의 갈등과 '파수꾼 다'의 내적 갈등을 중심으로 1970년대 정치 상황을 우의적으로 비판한 희곡이다.

**14** 촌장은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 '파수꾼 다'를 회유하여 마을 사람들에게 진실을 감추고 거짓을 말하도록 시킨다. 따라서 마을 사람들에게 자신의 진심을 인정받고 싶어 한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 오답 풀이** ① 겉으로는 다정하고 상냥하게 대해 주지만, 위기 상황을 넘긴 후에는 '파수꾼 다'에게 망루에서 일생을 지내야 한다고 명령하는 냉정한 모습을 보인다.  
 ③ 권력 유지를 위해 거짓말을 하고, 진실을 알고 있는 운반인을 처벌하려고 하는 모습을 통해 알 수 있다.

**15** 더욱 거칠어지는 바람 소리는 진실이 덮이고 만 부정적인 현실과 진실을 드러내기에 실패한 '파수꾼 다'의 우울한 심리를 효과적으로 드러내는 역할을 한다.

소단원 평가 문제 미리 보기

본문 325-331쪽

- 01 ②    02 ④    03 ①    04 해설 참조    05 ④    06 ⑤  
 07 ④    08 ①    09 ⑤    10 ④    11 해설 참조    12 ⑤  
 13 해설 참조    14 ②    15 ④    16 ③    17 ②

**01** 이 글에는 '말뚝이의 조롱-양반의 호통-말뚝이의 변명-양반의 안심'이라는 재담 구조가 반복적으로 나타나 있다. '춤'은 이러한 재담 구조가 마무리될 때마다 양반과 말뚝이의 갈등이 일시적으로 해소되었음을 나타내는 역할을 한다.

**02** 생원과 서방은 말뚝이가 변명하는 말을 곧이곧대로 듣고 안심한다. 따라서 말뚝이의 의도를 알아차리고 적대적 태도를 유지한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03** ㉠에는 발음의 유사성을 이용하여 웃음을 유발하는 언어유희가 쓰였다. ㉡에는 언어유희가 쓰이지 않고, 비유의 방식을 통해 대상을 조롱하는 방식이 쓰였다.

- 오답 풀이** ② 단순히 나무 이름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오자마자 가래', '불 밝혀라 등', '대낮에도 밤' 등 재미 있는 문장을 만들 수 있는 단어를 덧붙여 웃음을 유발하므로 언어유희로 볼 수 있다.  
 ③ '서방인지 남방인지'에 발음의 유사성을 이용한 언어유희가 쓰였다.  
 ④ 지명에 포함되어 있는 숫자와 날수를 연결 지어 웃음을 자아내었다.  
 ⑤ '시집살이 개집살이', '고추 당추 맵다 해도 시집살이 더 맵더라.'에 언어유희가 쓰였다.

**04** **예시 답안** 관객과 악공들을 극에 참여시키는 것으로 보아 무대와 객석의 구분이 엄격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출제 의도 및 해설** 가면극(탈춤)과 근현대 연극의 차이점을 묻는 문제이다. 가면극은 근현대 연극과 달리 무대와 객석이 엄격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아 관객들이 극에 참여할 수도 있다. 이 글에서는 말뚝이가 “여보, 구경하시는 양반들, 말씀 좀 들어 보시오.”와 “여보, 악공들 말씀 들으시오.”라고 말한 부분을 통해 관객과 악공들을 극에 참여시키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평가 기준**

평가 기준	배점
관객과 악공이 극에 참여하는 것으로 보아 무대와 객석의 구분이 없음을 제시한 경우	2
글에 나타난 근거를 밝히고 <조건>에 제시된 문장 형식으로 쓴 경우	2
	4

**05** 이 글에서는 양반들이 시조 읊기, 한시 짓기, 파자 놀이를 하는 부분에서, <보기>에서는 ‘문하시중’이라는 말에 ‘문상시중’이라고 답하거나, ‘사서삼경’이라는 말에 ‘팔서 육경’이라고 답하는 부분에서 양반들의 허위의식과 무식함이 드러나 있다.

- 오답 풀이** ① <보기>에는 경상도 지역의 방언이 많이 쓰였다.  
 ② <보기>에는 언어유희를 통해 웃음을 유발하고 있다.  
 ③ 이 글의 말뚝이와 <보기>의 초랭이는 갈등을 중재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그들은 양반들을 희롱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⑤ 이 글에서는 생원과 서방이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서 대화를 나누지만, <보기>에서는 선비와 양반이 적대적인 분위기 속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작품 더 보기**

- **작자 미상, <하회 별신굿 탈놀이>**
  - 갈래: 탈춤(가면극) 대본
  - 주제: 양반과 파계승에 대한 풍자와 서민 생활의 애환
  - 해제: 이 탈놀이는 지배 계층인 양반과 선비의 허위성을 폭로하고, 중의 파계를 통해 당시 불교의 타락상을 드러냄으로써 지배 계층인 양반과 피지배 계층인 서민들 간의 갈등적 관계와 삶의 애환을 풍자적으로 그리고 있다.

**06** 이 글에 제시된 시조는 널리 알려진 작품이라고 볼 수 있지만, 한시는 양반들의 무식함을 보여 주기 위하여, 한시의 형식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엉터리 시를 제시한 것이지 극적 긴장감을 드러내는 것은 아니다.

**07** 생원과 서방은 자신들의 한시 짓기와 파자 놀이에 대해 만족감을 드러내고 있다. ‘자화자찬’은 자기가 그린 그림을 스스로 칭찬한다는 뜻으로, 자기가 한 일을 스스로 자랑함을 이르는 말이다.

- 오답 풀이** ① 새옹지마: 인생의吉凶禍福은 변화가 많아서 예측하기가 어렵다는 말  
 ② 동병상련: 같은 병을 앓는 사람끼리 서로 가엾게 여긴다는 뜻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끼리 서로 가엾게 여김을 이르는 말  
 ③ 호가호위: 남의 권세를 빌려 위세를 부림.  
 ⑤ 맥수지탄: 고국의 멸망을 한탄함을 이르는 말. 기자(箕子)가 은나라가 망한 뒤에도 보리만은 잘 자라는 것을 보고 한탄하였다는 데서 유래한다.

**08** 이 글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건이 전개되는 순행적 구성을 따르고 있다. 과거로의 전환은 나타나지 않는다.

- 오답 풀이** ④ 등장인물의 이름을 따로 제시하지 않고 ‘촌장’, ‘파수꾼 다’와 같이 직업명을 쓴 것은 상징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⑤ ‘해설자, 촌장이 되어 등장.’을 통해 해설자 역할을 맡은 배우가 촌장의 역할까지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09** 촌장이 ‘파수꾼 다’에게 고맙다는 말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뒤에 이어지는 촌장의 말을 고려할 때 진심으로 고마워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10** 촌장의 말을 듣고 이리가 치어 있는 곳으로 가려고 하는 것으로 볼 때, ‘파수꾼 나’가 공포에 떠는 목소리로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11** **예시 답안** ‘딸기’는 촌장이 진실을 은폐하여 부당하게 얻은 이득을 의미한다. ‘딸기’는 촌장이 ‘파수꾼 다’를 회유하기 위한 수단으로 쓰였다.

**출제 의도 및 해설** 소재의 상징적 의미를 묻는 문제이다. “이리 떼를 주의하라는 팻말 밑엔 으레 잘 익은 딸기가 가득하단다.”라는 말을 통해 촌장이 거짓 공포를 이용하여 딸기를 독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난 너하구 딸기라도 따라 가고 싶다.”라는 말을 통해 촌장이 ‘파수꾼 다’를 회유하기 위한 수단으로 딸기를 이용하려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평가 기준**

평가 기준	배점
‘촌장’에 초점을 맞추어 ‘이득’이라는 의미를 서술한 경우	3
‘파수꾼 다’와 관련지어 ‘회유’라는 역할을 서술한 경우	3
	6

**12** 망루 위에 올라간 ‘파수꾼 다’가 한동안 침묵하는 것은 내적 갈등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음을 짐작하게 한다. ‘파수꾼 다’는 진실을 밝힐 것인지, 진실을 은폐할 것인지 갈등하고 있다.



**13** **예시 답안** ㉠과 ㉡에는 공통적으로 '이리 떼'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진실이 마을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것을 원천 차단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

**출제 의도 및 해설** 인물의 대사에 담긴 의도를 묻는 문제이다. 촌장은 진실이 마을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진실을 알고 있는 두 사람인 '파수꾼 다'와 '운반인'을 마을로부터 격리시키려고 한다. 그래서 '운반인'을 처벌하고, '파수꾼 다'를 망루에서 평생 지내도록 한 것이다.

**평가 기준**

평가 기준	배점	
'마을 사람들에게 진실이 알려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라는 의도를 서술한 경우	4	4
<조건>에 제시된 문장 형식으로 쓰지 못한 경우	-1	

**14** 이 글에서 '마을 사람들'은 이리 떼가 없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 흥분하여 몰려 왔지만, "이리 떼가 몰려온다!"라는 말을 듣고 거짓에 쉽게 속아 넘어가는 모습을 보인다. 이로 볼 때 '마을 사람들'은 진실을 알지 못한 채 권력층에 이용당하는 민중들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15** (가)에는 인물 간의 의견이 대립하는 쟁점이 나타나지 않았지만, (나)에는 촌장과 '파수꾼 다' 사이에 '이리 떼'가 없다는 사실을 마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문제로 의견의 대립이 나타나 있다.

- 오답 풀이** ① (가)에서 인물의 특정 행동이 반복적으로 제시된 부분을 찾아볼 수 없다.  
 ② (나)에서 소도구를 사용하여 인물의 태도 변화를 암시하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③ (가)와 (나) 모두 무대 장치의 변화가 나타나 있지 않으므로 무대의 신속한 전환을 통해 사건을 빠르게 전개한다고 볼 수 없다.  
 ⑤ (가)와 (나)에서는 관객의 참여가 나타난 부분을 찾아볼 수 없다.

**16** [A]에서는 돈을 받고 취발이를 풀어 주는 것이 샌님과 취발이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고, [B]에서는 진실을 말하지 않는 것이 마을의 안전과 질서를 지키고, 파수꾼들의 수고를 헛되지 않게 한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

**17** 종이에 불과한 '전령'을 보고 힘이 세고 날랜 취발이는 순순히 양반의 부름에 따라간다. 이는 양반들의 권위와 위력이 여전히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음을 보여 주는 장면이다.

**(4) 교술 갈래의 흐름**

**1** **일야구도하기**

**내용 확인 문제**

본문 336~340쪽

- 01 ⑤   02 ⑤   03 ⑤   04 강물   05 ②   06 ④   07 ③  
 08 ②   09 ①   10 해설 참조

**01** 이 글은 글쓴이가 여행 중 하룻밤에 강을 아홉 번 건너 경험을 통해 얻은 깨달음을 쓴 기행 수필로, 교술 갈래에 해당한다.

- 오답 풀이** ① 스스로 묻고 답하는 자문자답의 방식은 찾아볼 수 없다.  
 ② 강물 소리와 관련한 과거의 경험을 회상한 내용이 나타나지만, 현실의 문제점을 부각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  
 ③ '현학적'은 학식이 있음을 자랑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글에서는 글쓴이가 자신의 학식을 자랑하는 듯한 어조를 느낄 수 없다.  
 ④ 시대적 배경을 드러내는 상징적 소재는 찾아볼 수 없다.

**02** [A]에서는 강물이 큰 소리를 내며 거세게 흐르는 모습을 비유와 과장, 열거 등의 표현 방식을 통해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다. 문장의 어순에 변화를 주는 도치법은 쓰이지 않았다.

**03** [B]에서는 강물 소리가 심리 상태에 따라 각각 다르게 들리는 것을 다양한 예를 통해 말하고 있다. 즉 글쓴이는 같은 대상이라도 마음가짐에 따라 다르게 인식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자 한 것이다.

**04** ㉠에서는 물결이 몹시 사나워서 마치 여기저기서 물귀신들이 다투어 나와 뿔내는 듯하고, 이무기들이 꿈틀거리며 사람을 낚아채려고 애를 쓰는 듯하다고 빗대어 말하고 있다. 또한 ㉡의 전후 문단에서 강물의 기세, 강물의 소리에 대해 서술하고 있으므로 ㉠ 또한 '강물'을 대상으로 한 표현임을 알 수 있다.

**05** 글쓴이는 강을 건너는 경험을 통해 마음을 차분히 다스린 사람에게는 귀와 눈이 누를 끼치지 못하지만, 제 귀와 눈만 믿는 사람에게는 보고 듣는 것이 자세하면 할수록 병폐가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즉 이 글은 외부의 사물에 현혹되지 않아야 한다는 깨달음을 독자들과 공유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쓴 글이라고 볼 수 있다.

**06** ㉠은 무척 위험한 상태에 있음을 강조하기 위한 말로, 이와 관련된 있는 말은 '백척간두'이다. '백척간두'는 백 자나 되는 높은 장대 위에 올라섰다는 뜻으로, 몹시 어렵고 위태로운 지경을 이르는 말이다.

- 오답 풀이** ① 인명재천: 사람의 목숨은 하늘에 달려 있다는 뜻으로, 목숨의 길고 짧음은 사람의 힘으로 어쩔 수 없음을 이르는 말이다.
- ② 각주구검: 융통성 없이 현실에 맞지 않는 낡은 생각을 고집하는 어리석음을 이르는 말이다.
- ③ 언감생산: 어찌 감히 그런 마음을 품을 수 있겠느냐는 뜻으로, 전혀 그런 마음이 없었음을 이르는 말이다.
- ⑤ 등하불명: 등잔 밑이 어둡다는 뜻으로, 가까이에 있는 물건이나 사람을 잘 찾지 못함을 이르는 말이다.

**07** 글쓴이는 강을 대지, 내 옷, 내 몸, 내 성정처럼 여기는 등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고, 마음속으로 한번 추락할 것을 각오하자 강물소리로 인한 두려움을 떨쳐내고 편안히 강을 건널 수 있었다.

**08** 교술 갈래는 실재하는 사실을 바탕으로 하여 교훈적이거나 이념적인 내용을 기록하고 경험을 서술하는 '알려 주기'의 갈래이다. 이 글은 글쓴이의 실제 경험과 이를 통해 얻은 깨달음을 전달하고 있으므로 교술 갈래라고 할 수 있다.

**09** 제 귀와 눈의 총명함만 믿는 사람은 외부에 있는 사물에 귀와 눈을 빼앗겨 대상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사람을 뜻한다.

**10** **예시 답안** 글쓴이는 외부의 사물에 현혹되지 않고 마음을 다스리는 삶의 자세를 강조하며 이를 토대로 처신에 능란하여 제 귀와 눈의 총명함만 믿는 사람들에게 경고하기 위해서 이 글을 창작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출제 의도 및 해설** 글쓴이의 집필 의도를 묻는 문제이다. 이 글에서 글쓴이는 인생을 살아가는 때 외물에 현혹되지 않고 마음을 다스리는 삶의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깨달음을 드러내며, 제 귀와 눈의 총명함만 믿는 세상 사람들에게도 경고하겠다고 말하고 있으므로, 이와 같은 사람들에게 경계하기 위하여 이 글을 쓴 것임을 알 수 있다.

**평가 기준**

평가 기준	배점
글쓴이가 강조하고 있는 태도가 드러난 경우	2
(제 귀와 눈의 총명함만 믿는) 세인들에게 경고하기 위해서라는 창작 의도를 서술한 경우	2
	4

**2** **뒤지가 진적**

**내용 확인 문제**

본문 347-349쪽

- 01 ②    02 해설 참조    03 ③    04 ⑤

**01** 간수들은 감방 안에 있는 사람들이 바깥세상의 소식을 아는 것을 지극히 꺼려했기 때문에 뒤지로 신문지를 제공하지 않으려고 했다.

**오답 풀이** ① 좁은 감방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똥통과 함께 생활했다는 내용을 통해 글쓴이가 열악한 환경의 감방에서 생활하였음을 알 수 있다.

④ '문초를 받는 일 외에는 열흘이 하루같이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이 ... 지리하여 건딜 수가 없었다.'라는 구절에서 알 수 있다.

**02** **예시 답안** 읽을거리에 목마른 사람에게는 글이 적혀 있는 뒤지도 진귀한 책과 같이 가치 있다.

**출제 의도 및 해설** 글의 제목에 담긴 의미를 묻는 문제이다. 뒤지는 밀싹개로 쓰는 종이인 만큼 평소라면 귀한 종이라고 볼 수 없지만, 감방 안에서는 글쓴이와 동지들에게 귀중한 읽을거리를 제공해 주기 때문에 진적이라고 한 것이다.

**평가 기준**

평가 기준	배점
<보기>를 활용하여 제목에 담긴 의미를 서술한 경우	4
30자 내외의 한 문장으로 쓰지 못한 경우	-1
	4

**03** 이 글에는 열악한 환경과 탄압 속에서도 의연하게 대처하는 글쓴이의 태도가 잘 드러나 있다. 자신의 경험을 통한 깨달음을 전하고 있지만, 바람직한 삶의 태도를 논리적으로 전개하는 글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04** 글쓴이는 사람이 하고 싶어 하는 의욕은 벌을 받거나 모욕을 당하는 것만으로 청산하여 버리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고 있다. 즉, 글쓴이는 간수들로부터 봉변을 당하고도 뒤지 읽기를 단념하지 못하는 것을 인력으로 좌우할 수 없는 본능의 소치로 여기고 있다.



### 소단원 평가 문제 미리 보기

본문 356~361쪽

- 01 ④   02 ③   03 ②   04 해설 참조   05 ④   06 ⑤  
 07 ⑤   08 ④   09 ③   10 ③   11 해설 참조   12 ③  
 13 ①   14 해설 참조   15 ⑤   16 ③   17 ⑤

01 이 글의 글쓴이는 하룻밤에 강을 아홉 번 건넌 경험을 통해 외부의 사물에 현혹되지 않는 삶의 자세라는 깨달음을 이끌어 내고 있다.

02 글쓴이는 마음을 차분히 다스린 사람에게는 귀와 눈이 누를 끼치지 못하지만, 제 귀와 눈만 믿는 사람에게는 보고 듣는 것이 자세하면 할수록 병폐가 된다는 깨달음을 전달하고 있다. 즉, 외물에 현혹되지 않고 마음을 다스리는 일이 중요하다는 교훈을 독자에게 전달하고 있다.

03 ㉠은 낮에 강을 건넌 경험과 관련이 있다. 이 글에서 글쓴이는 낮에 강을 건너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그들이 모두 고개를 쳐들고 하늘을 보는 이유를 추론하고 있을 뿐, 글쓴이가 느낀 바는 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글쓴이가 다른 사람들과 달리 강물 소리 때문에 위태로움을 느꼈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에서 사람들은 강물에 두려움을 느껴 소용돌이치고 웅숭츠름치는 강물을 보지 않기 위해 고개를 쳐들고 하늘을 보았다.

③ ㉣에서 글쓴이는 강물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위태로움이 오로지 듣는 데로 쏠리어 귀로 인해 한창 벌벌 떨면서 걱정을 금할 수 없었다고 하였다.

④ 도를 깨달은 후에 글쓴이는 두려움이 없이 편안하게 강을 건넜다고 하였다.

⑤ ㉡와 ㉣의 체험을 통해 글쓴이는 귀와 눈만 믿는 사람에게는 보고 듣는 것이 병폐가 될 수 있음을 깨달았다.

04 **예시 답안** 강물을 보면 강물의 위태로움에 어지럼증이 나서 물에 빠질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출제 의도 및 해설** 인물이 특정 행동을 하는 까닭을 묻는 문제이다. 글쓴이는 처음에는 ㉠과 같은 사람들의 행동을 하늘을 향해 속으로 기도를 드리는 것으로 생각했지만, 한참 후에 사람들이 강물을 보면 어지럼증을 느껴 강물에 빠질 것을 염려하여 고개를 쳐들고 하늘을 본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평가 기준** 사람들이 강물의 위태로움으로 인해 물에 빠질까 두려워한다는 심리 상태를 포함하여 내용을 서술한 경우 4점, 부분 점수 없음.

05 글쓴이는 걸음으로 보이는 것과 들리는 것에만 의존하면 대상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보고 듣는 것이 수시로 병폐가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06 (가)에서는 강물의 소리를, (나)에서는 구경하는 사람들의 무리를 비유를 통해 인상적으로 표현하였다.

**오답 풀이** ① (가)는 (나)와 달리 열거를 통해 마음가짐에 따라 달리 들리는 물소리를 표현하고 있다. 그러나 열거를 통해 글쓴이의 현재 상황을 보여 주고 있는 것은 아니다.

② (나)에서는 대상을 의인화한 표현을 찾아볼 수 없다.

③ (가)와 (나) 모두 역설적 표현이 사용된 부분을 찾아볼 수 없다.

④ (가)에는 강물의 묘사를 통해 대상에 대한 두려움을 드러내고 있는 부분이 나타나지만, (나)에서는 이러한 부분을 찾아볼 수 없다.

07 통신사 일행을 구경하는 일본인들의 모습을 통해 사대주의가 팽배했던 당대 분위기를 보여 준다고 보기는 어렵다. <보기>에 따르면 당시 조선에 사대주의가 팽배하여 일본을 조선보다 못하다고 여겼던 것과 달리 (나)의 글쓴이는 일본의 발전된 문화와 풍속, 제도에 감탄하고 새로운 시각에서 관찰한 바를 기록하였다고 하였다.

08 ㉡은 통신사 일행을 구경하기 위하여 양쪽에 담처럼 늘어섰던 일본인들의 모습을 빗대어 표현한 것이다. 그만큼 구경하는 사람들의 옷차림이 화려하고 아름다웠음을 강조한 것이지, 통신사의 옷차림을 비유한 것이 아니다.

#### 작품 더 보기

##### ● 신유한, 《해유록》

- 갈래: 고전 수필, 기행 수필

- 주제: 일본 여행을 하며 보고 듣고 느낀 점

- 해제: 조선 숙종 때 문신 신유한이 통신사의 제물관으로 일본에 다녀오면서 자신이 경험하고 느낀 것을 일기의 형식으로 기록한 기행 수필이다. 신유한은 일본의 발전된 문화와 풍속, 제도를 보고 감탄하였으며, 새로운 시각에서 관찰한 바를 분야별로 꼼꼼하게 기록하였다.

#### 참고 자료

##### ● 《해유록》의 의의

《해유록》은 글쓴이 신유한이 조선 숙종 45년(1719) 4월 11일부터 이듬해 1월 24일까지 261일 동안(10개월간) 통신사 일행으로 일본에 다녀온 여정과 견문을 기록한 사행 일기(使行日記)이다. 임진왜란 이후 총 12회에 걸쳐 이루어진 통신사 관련 일본 기행문은 수십 종에 달한다. 하지만 그중에서도 《해유록》을 문학적으로 가장 우수한 작품으로 꼽는 것은 《해유록》의 문장이 유려할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묘사와 내용이 풍부하기 때문이다.

09 이 글에서는 감방이라는 공간의 특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그 속에서 읽을거리를 구하기 위하여 노력했던 글쓴이의 체험을 실감 나게 전달하고 있다.

10 글쓴이는 읽을거리를 구하기 어려운 감방 생활에서도 어떻게 해서든지 읽을거리를 구하기 위해 애썼다. 이를 통해 글쓴이가 아무리 열악한 환경이라도 좌절하지 않고 의지를 잃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11 **예시 답안** 글쓴이는 '조선어 사전' 편찬에 참여한 사람들 중 한 명으로, 주로 글을 읽으며 작업하던 지식인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글쓴이에게 읽을거리가 없는 감옥에서의 시간은 무료하고 견디기 어려운 것이었을 것이므로 읽을거리에 집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출제 의도 및 해설** 외적 준거를 바탕으로 글쓴이의 특이한 행동에 담긴 이유를 파악하는 문제이다. 글쓴이는 조선어 학회의 회원으로 일제의 탄압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우리말을 연구·보급하는 데 앞장섰던 국어학자이다. 글을 읽고 연구하는 것이 일인 학자였기 때문에 감방 안에서 아무것도 읽지 못하고 무료하게 있는 것은 그에게 무척 견디기 어려운 일이었을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평가 기준**

평가 기준	배점
읽을거리가 없는 감옥에서의 무료한 시간을 견디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내용을 포함하여 서술한 경우	3
글쓴이가 지식인(국어학자)이었다는 근거를 들어 서술한 경우	1
	4

12 (가)에서는 감방 안에서 뒤지에 있는 글이라도 읽기 위해 노력했던 글쓴이의 모습을 해학적으로 그리고 있으며, (나)에서는 사지를 웅크리고 이를 박박 갈며 추위를 견디는 와중에도 추위를 향해 큰소리치는 '딸각발이'의 모습을 해학적으로 그리고 있다.

- 오답 풀이**
- ① 자문자답하는 방식은 (가)와 (나)에 모두 쓰이지 않았다.
  - ② 과거와 현재를 대비하여 현 세태를 비판하는 내용은 (나)에만 제시되어 있다.
  - ④ 독자들에게 바람직한 삶의 자세를 깨닫도록 하는 내용은 (나)에만 제시되어 있다.
  - ⑤ 위인들의 삶을 언급하고 있는 것은 (나)에만 해당한다.

13 (가)에서 글쓴이는 무료하게 있는 것을 견디기 어려워 어떻게 해서든 읽을거리를 구해서 읽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감방 안에서 읽을거리라고는 뒤지로 제공되는 종이밖에 없었기 때문에 뒤지를 많이 구하기 위해 애쓰는 모습이 재미있게 서술되어 있다.

14 **예시 답안**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강직함과 기개를 지니자.

**출제 의도 및 해설** 글쓴이가 글을 쓴 의도를 묻는 문제이다. (나)에서 글쓴이는 현대인들이 자기중심, 자기 본위로만 약은 것을 비판하며 '딸각발이'의 정신을 배울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글쓴이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딸각발이'의 정신은 지조와 강직함, 기개 등이다.

**평가 기준** '지조', '강직함', '기개'와 같은 단어를 활용하여 글쓴이가 '딸각발이'를 통해 말하고자 한 교훈을 서술한 경우 4점. 부분 점수 없음.

**작품 더 보기**

● **이희승, <딸각발이>**

- 갈래: 현대 수필
- 주제: 딸각발이의 선비 정신을 배워야 할 필요성
- 해제: 남산골 선님을 가리키는 '딸각발이'를 통해 선인들의 선비 정신을 살피고, 현대인의 부정적 측면을 날카롭게 비판하면서, 선비 정신을 배우자고 말하는 교훈적 성격의 수필이다.

15 (가)와 (나) 모두 교술 갈래에 해당하며, 과거에 글쓴이가 직접 경험한 일을 통해 얻은 깨달음을 독자에게 전달하고 있는 글이다.

16 ㉠은 외물에 현혹되지 않고 마음을 다스리는 일이 중요하다는 깨달음을 가리킨다.

- 오답 풀이**
- ① ㉠과 ㉡ 모두 글쓴이의 직접 경험한 일을 통해 얻은 것이 다.
  - ② ㉡도 간수에게 봉변을 당하는 육체적인 고통을 겪어 가며 얻어 낸 것이다.
  - ⑤ ㉢은 사람이 하고 싶어 하는 의욕은 그 어느 것으로도 막을 수 없다는 깨달음을 가리킨다.

17 (나)의 글쓴이는 간수의 눈을 피해 글을 읽는 것을 정당하지 못한 행위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은 간수에게 뒤지를 빼앗기고 뺨을 맞는 봉변을 당하더라도 읽기를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내용이다.





### 시험 대비 대단원 종합 평가

본문 362-372쪽

- 01 ②    02 ②    03 ⑤    04 해설 참조    05 ③    06 ③
- 07 ③    08 ⑤    09 해설 참조    10 ④    11 ②    12 ③
- 13 ③    14 ⑤    15 ①    16 ②    17 해설 참조    18 ⑤
- 19 ⑤    20 해설 참조    21 ③    22 ④    23 ③    24 ⑤
- 25 ②    26 ④    27 해설 참조    28 ④    29 ④
- 30 해설 참조    31 ①    32 ②    33 ⑤

**01** (가)에서는 ‘긴헛쑤 그즈리잇가’와 ‘신(信)잇돈 그즈리잇가’에, (나)에서는 ‘너둔 길 알피 잇거든 아니 녀고 엇절고’에 설의적 표현이 사용되었으며, 이를 통해 화자의 정서를 강조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임과의 이별이 작품 창작의 계기가 된 것은 (가)에만 해당한다.

- ③ (가)에는 ‘서경’과 ‘대동강’이라는 구체적인 지명이 쓰였지만, (다)에는 구체적인 지명이 쓰이지 않았다.
- ④ (나)와 (다) 모두 감정 이입에 의한 표현이 쓰이지 않았다.
- ⑤ (가)는 3음보, (나)와 (다)는 4음보 율격을 기본으로 하였다.

**02** (가)의 화자는 임이 자신을 사랑해 주신다면 자신의 삶의 터전인 ‘서경’과, 생계 수단인 ‘질삼뵈’를 버리고서라도 임을 따라가겠다고 말하고 있다.

**03** ㉠이 ‘한숨’을 의인화하여 2인칭 대명사인 ‘너’로 부르고 있는 것은 맞지만, 대상과의 친근감을 강조하여 드러내고 있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에서 화자는 한숨으로 인해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힘들음을 표현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② ‘긴(끈)’은 임에 대한 믿음과 사랑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말이다.

④ 서민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문이나 창과 관련된 사물들을 열거하여 운율을 형성하고, 해학성을 높였다.

**04** **예시 답안** 임에 대한 원망의 마음을 전하기 위한 대상이다.  
**출제 의도 및 해설** 시어의 공통적인 역할을 화자의 정서와 관련지어 파악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가)에서 ‘사공’은 임이 대동강을 건너도록 도와주는 존재로, 화자에게는 비난과 원망의 대상이다. <보기>의 ‘개’는 그리워하는 임이 오면 짚어 대서 못 오게 하는 존재로, 화자에게는 미움과 원망의 대상이다. 따라서 ‘사공’과 ‘개’ 모두 임에 대한 화자의 원망을 전하기 위해 끌어드린 대상임을 알 수 있다.

### 평가 기준

평가 기준	배점
‘임에 대한 원망’을 전하기 위한 대상이라는 공통점을 서술한 경우	4
화자의 정서가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고 ‘화자의 정서를 전하기 위한 대상’과 같이 답안을 서술한 경우	-2
	4

### 참고 자료

#### ● <보기> 현대어 풀이

개를 열 마리가 넘게 기르지만 요 개같이 알미우라.  
 미워하는 임 오면 꼬리를 뒤흔 치면서 뛰어올랐다 내리뛰었다 하면서 반겨서 맞이하고 사랑하는 임이 오면 뒷발을 바둥거리며 뒤로 물러갔다 앞으로 나아갔다 강강 짚어서 돌아가게 한다.  
 신밭이 그릇 그릇 남은들 너 먹일 줄 있으라.

**05** (가)와 <보기> 모두 색채 대조를 통해 계절감을 드러내고 있지 않다. <보기>에서는 ‘풀빛’을 통해 봄의 이미지를 드러내고 있으나 색채 대조는 나타나지 않으며, (가)에서는 색채 이미지를 제시하고 있지 않다.

#### ● 작품 더 보기

##### ● 정지상, <송인(送人)>

- 갈래: 한시(칠언 절구)
- 주제: 임과의 이별
- 해제: <송인>은 칠언 절구의 한시로, 우리나라 한시 가운데 이별가의 백미로 평가되는 작품이다. 자연사와 인간사의 대조를 통해 이별의 정한을 심화하고 있으며, 임이 그리워 흘리는 눈물 때문에 대동강 물이 마르지 않을 것이라는 과장된 표현으로 이별의 정한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06** (가)에서는 ‘타는’, ‘쪼인다’, ‘있다’ 등으로, (나)에서는 ‘마신다’, ‘원통하다’, ‘킬킬대는구나’, ‘난다’ 등으로 현재형 어미를 사용하여 시적 상황을 생생하게 전달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가)와 (나)에서 점층법을 활용하여 화자의 안타까움을 심화하는 부분은 찾아볼 수 없다.

② (가)에서는 반어적 표현을 찾아볼 수 없다. (나)에서는 실제로는 신명이 나지 않지만 ‘우리는 점점 신명이 난다’는 역설적 상황을 통해 울분을 드러내고 있다.

④ (나)의 ‘킬킬대는구나’에 영탄적 어조가 나타나 있기는 하지만, 대상의 긍정적인 면을 예찬하는 것은 아니다.

⑤ (가)와 (나)에서 계절적 배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소재는 나타나 있지 않다.

**07** 조사 ‘도’의 반복을 통해 대상들을 열거하는 표현을 사용하여 운율을 형성하고 있으며, 다양한 존재가 어우러지는 양상을 생생하게 전달하고 있다.

08 ㉠에 나타나는 화자의 몸짓은 답답한 현실에서 오는 분노와 울분을 표출하는 행위로, 현실을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 주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은 표면적으로 흥겨움의 표현이지만, 이면적으로 분노의 감정이 담겨 있다. 즉 ㉠은 뿌리 깊은 좌절감과 울분을 농무의 신명을 통해 보여 주고 있는 것이다.

09 **예시 답안** 산업화의 과정에서 날로 피폐해져 가는 농촌의 현실이 개인의 문제가 아닌 농촌 공동체의 문제임을 드러내기 위해서이다.

**출제 의도 및 해설** 시대 상황과 관련지어 표현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나)는 1970년대 초반 산업화의 여파로 파괴되어 가는 농촌 공동체의 모습을 그들의 놀이인 농무를 통해 표현하고 있다. (나)에서는 산업화로 인한 농촌의 피폐화가 어느 한 개인의 삶에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농촌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나'가 아닌 '우리'를 화자로 설정한 것이다.

**평가 기준**

평가 기준	배점
화자를 '우리'로 설정한 까닭을 시대 상황과 관련지어 '농촌 공동체의 문제임을 드러내기 위해서'라는 내용으로 서술한 경우	4
시대 상황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경우	-2
<조건 2>에 제시된 문장 형식으로 쓰지 못한 경우	-1

10 꿈속 이야기에서 양소유라는 영웅적 인물이 등장하기는 하지만, 인물의 영웅적 면모는 사회 현실의 모순을 비판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유교적 입신양명을 실현하는 수단으로 쓰이고 있다.

11 “정신이 황홀하여 오랜 후에야 비로소 제 몸이 연화도량의 성진 행자임을 깨달았다.”라는 내용을 고려할 때, 성진이 꿈에서 깨어나자마자 자신이 승려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12 이 글에서 '꿈'은 성진에게 세속적 욕망을 실현해 보는 경험을 제공하여 속세의 삶이 덧없음을 깨닫게 하는 장치로 활용되었다. '꿈'이 대사와 성진 사이의 갈등을 해소하는 역할을 한다고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13 장자의 고사는 만물은 고정되어 있지 않고 변하기 때문에 현실과 꿈, 타자와 나를 구분하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장자의 사상을 담고 있다. 육관 대사는 “성진과 소유에 있어 어느 것이 참이며 어느 것이 꿈이냐?”라고 성진에게 물어봄으로써 현실과 꿈에 대한 구분이 무의미하고, 삶도 꿈과 같은 것이므로 헛된 욕망에 집착할 필요가 없음을 깨우치고자 한 것이다.

14 이 글은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작품 안의 서술자인 '나'가 경험한 일과 그에 따른 내면 심리를 중심으로 내용을 전개하고 있다.

15 ㉠이 포함된 문장에서는 조선인들을 속이기 위하여 품삯이 많고 일은 쉽다는 식으로 거짓말을 하는 내용이 나타나 있다. 문맥을 고려할 때 ㉠에는 일이 매우 쉽다는 뜻의 '땅 짚고 헤엄치기'가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오답 풀이** ㉡ 언 발을 못 익히려고 오줌을 누어 봤자 효력이 별로 없다는 뜻으로, 임시변통은 될지 모르나 그 효력이 오래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사태가 더 나빠짐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 ③ 어떤 일에 있어 서로 다 이롭고 좋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 ④ 모든 일에는 질서와 차례가 있는 법인데 일의 순서도 모르고 성급하게 덤빔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 ⑤ 값어치를 모르는 사람에게서는 보물도 아무 소용없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16 '나'는 농민들의 현실을 전혀 모른 채 농사를 짓는 것을 낭만적이고 관념적으로만 인식했던 것을 부끄러워하고 있다.

17 **예시 답안** 농민들의 비참한 현실을 모른 채 공부만 한 자신의 모습이 부끄러웠기 때문이다.

**출제 의도 및 해설** 시대 상황과 관련지어 구절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이 글의 '나'는 일본인들의 대화를 듣고 조국이 처한 현실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던 자신을 성찰하고 있다. '책상 도련님'은 이처럼 글공부만 하느라 세상 물정을 모르고 살았던 자기 자신을 자조하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평가 기준**

평가 기준	배점
서술자가 새롭게 인식한 조선 농촌의 현실이 드러난 경우	2
서술자가 부끄러워한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서술한 경우	2



**18** 남편이 어머니를 살리기 위해 인민군에게 뛰어드는 내용은 이 글에 제시되지 않았다. 시어머니의 돌발적인 행동에 놀란 인민군들이 시어머니의 비명을 듣고 갑자기 나타난 남편을 향해 충을 난사하여 남편이 죽게 된 것이다.

**19** 아주머니가 들려준 이야기의 내용 중에 아주머니가 마을 사람들에게 배척을 받았다는 내용은 없다.

**20** **예시 답안** ㉡는 멈추지 못하고 반복해야 하는 시어머니의 도리질을, ㉣는 아주머니(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정성껏 보살피는 일을 의미한다.

**출제 의도 및 해설** 글에 나타난 내용을 바탕으로 등장인물의 특이한 행동에 담긴 의미를 파악하는 문제이다. 아주머니는 자식을 지켜내지 못했지만, 마음으로나마 끝까지 자식을 지키려는 시어머니의 마음을 읽고 ‘도리질’을 대사업이라고 말하고 있다. ‘나’는 그런 시어머니를 봉양함으로써 가족을 지켜 나가는 아주머니야말로 ‘대사업’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평가 기준**

평가 기준	배점
㉡의 ‘대사업’이 시어머니의 도리질이라고 서술한 경우	2
㉣의 ‘대사업’이 아주머니(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정성껏 보살피는 일이라고 서술한 경우	2
맞춤법에 알맞고 자연스러운 한 문장으로 쓰지 못한 경우	-1

**21** ‘건건드러지게 치라네’에는 말뚝이의 그럴듯한 변명에 속아 넘어간 양반들의 만족감이 담겨 있는 말이다.

**22** (가)에서는 말뚝이가 양반들을 조롱하는 재담이 반복되고 있으며, (나)에서는 취발이를 벌하려는 양반들의 모습이 제시되어 있다. 이를 통해 볼 때 (가)의 사건에서 (나)의 사건으로 아무런 인과 관계 없이 사건이 전환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3** 말뚝이는 겉으로는 양반의 말에 복종하는 듯한 행동을 하지만, 속으로는 양반의 권위를 무시하고 조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면종복배’는 겉으로는 복종하는 체하면서 내심으로는 배반함을 뜻하는 말이다.

- 오답 풀이** ① 언행일치: 말과 행동이 하나로 들어맞음. 또는 말한 대로 실행함을 이르는 말  
 ② 부화뇌동: 좇대 없이 남의 의견에 따라 움직임을 이르는 말  
 ④ 적반하장: 도둑이 도리어 매를 든다는 뜻으로, 잘못한 사람이 아무 잘못도 없는 사람을 나무람을 이르는 말  
 ⑤ 동병상련: 같은 병을 앓는 사람끼리 서로 가엾게 여긴다는 뜻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끼리 서로 가엾게 여김을 이르는 말

**24** (나)에서 생원은 자신의 권력을 이용하여 서민들에게 횡포를 부리는 인물로 묘사되고 있다. ⑤는 우화적 표현을 통해 양반들의 폭력성과 허장성세를 풍자하는 시조이므로 이를 활용하여 생원을 비판할 수 있다.

- 오답 풀이** ① 국난에 통분한 마음을 노래한 시조로, 볼모로 잡혀간 왕 자들에 대한 그리움과 병자호란의 국치를 겪은 비통한 마음을 노래하고 있다.  
 ② 임을 기다리는 간절한 마음을 해학적으로 노래한 시조이다.  
 ③ 어린아이가 고추잡자리를 잡는 단순한 놀이에 풍자성을 가미하여 서로가 서로를 모해하는 세상을 풍자하고 있는 시조이다.  
 ④ 서민들의 상거래 장면을 통해 현학적인 장사꾼을 풍자한 시조이다.

**참고 자료**

• <보기> 현대어 풀이

- ① 구렁에 돌아난 풀이 봄비에 저절로 자라  
알아야 할 일이 없으니 그 아니 좋겠는가.  
우리는 너희만 못하여 시름을 못 이겨 하노라.
- ② 창밖이 어른어른하거늘 임인 줄로만 여겨 벌떡 뛰어 성큼(급히) 나가 보니 / 임은 안 오고 으름 달빛에 지나가는 구름이 (그림자를 비추어) 날 속였구나. / 마침 밤이기에 망정이지 행여 낮이었던들 남 웃길 뻔했구나.
- ③ 발가벗은 아이들이 거미줄 테를 들고 개천을 왔다갔다 하며 / “발가숭아 발가숭아, 저리 가면 죽고 이리 오면 산다.” 부르는 것이 발가숭이로다. / 아마도 세상일이 다 이러한 것인가 하노라.
- ④ 사람들아, 동난것 사오. 저 장수야, 네 물건 그 무엇이라 외치느냐? 사자. / 밖은 단단하고 안은 물렁하며, 두 눈은 위로 솟아 하늘을 향하고, 앞뒤로 기는 작은 발 여덟 개, 큰 발 두 개, 청장이 아스스 하는 동난것 사오. / 장수야, 그렇게 거북하게 말하지 말고 게짓이라 하려무나.
- ⑤ 두꺼비가 파리를 물고 두엄 위에 뛰어 올라가 앉아 / 건너편 산을 바라보니 흰 송골매가 떠 있거늘 가슴이 섬뜩하여 펄쩍 뛰어 내달다가 두엄 아래 지빠졌구나. / 마침 날날 나였기에 망정이지 (하마터면) 피멍이 들 뻔했구나.

**25** (가)에서 촌장은 이리가 없다는 사실을 순순히 인정하면서, 마을의 질서와 안전을 위해 거짓이 필요하다며 ‘파수꾼 다’를 설득하고 있다.

**26** ‘망루’는 ‘이리 떼’의 출몰을 감시하는 공간이다. 그런데 ‘이리 떼’는 촌장이 자신의 체제와 권력 유지를 위해 만들어 낸 가상의 적이다. 따라서 ‘망루’가 촌장의 안위와 이권을 빼앗으려는 외부의 적을 막아 주는 공간이라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27** [예시 답안] (1) 등장인물의 수에 관한 희곡의 제약을 극복하기 위해서이다. (2) 관객의 흥미를 유발하고 극에 몰입할 수 있게 한다. / 관객들이 자신의 모습을 비춰 볼 수 있도록 유도한다.

[출제 의도 및 해설] 희곡의 특성과 작품의 실험극적 요소를 관련지어 이해하고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관객들을 '마을 사람들'로 설정한 것은 등장인물 수에 제한이 있는 희곡의 제약을 극복하기 위한 의도로, 관객을 극에 참여 시킴으로써 흥미를 유발하고, 극에 몰입할 수 있게 하며, 관객 스스로가 '마을 사람들'의 입장이 되어 자신이 처한 상황을 되돌아볼 수 있도록 하는 효과가 있다.

[평가 기준]

평가 기준	배점
㉠과 같이 설정한 까닭을 갈래의 특징과 관련지어 서술한 경우	2
'관객의 흥미를 유발하고 극에 몰입할 수 있게 한다.' 또는 '관객 스스로가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볼 수 있다.'는 효과를 서술한 경우	2
글자 수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한 경우	-1

**28** 이 글에서 역설적인 표현을 통해 대상의 의미를 인상 깊게 전달하는 부분은 찾아볼 수 없다.

[오답 풀이] ① '... 어느 거름에 속으로 목숨을 빌었겠는가.', '... 또 어디서 소리가 들렸겠는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③ '나는 마침내 이제 도(道)를 깨달았도다!'에 영탄적 어조가 나타나 있다.

⑤ '나는 강을 대지처럼 ... 강을 내 성정(性情)처럼 여기었다.'에서 강을 대지, 내 옷, 내 몸, 내 성정에 비유하고, 이를 대구를 사용하여 표현하고 있다.

**29** 글쓴이는 마부가 말에게 발을 밟혔으므로 그를 수레에 태우고, 자신은 말을 강물에 등등 뜨게 한 채로 그 위에 발을 모두어 얹아 강을 건넜다.

[오답 풀이] ① 글쓴이는 마음가짐을 달리 하자 아홉 번이나 강을 건너는데도 아무런 걱정이 없이 편안하였다고 하였다.

② 글쓴이는 낮에 강을 건널 때에 사람들이 고개를 쳐들고 하늘을 보는 모습을 관찰하였다.

⑤ 요동 벌판이 넓기 때문에 강물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는 말은 글쓴이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말이다.

**30** [예시 답안] 마음을 차분히 다스린 사람에게는 귀와 눈이 누를 끼치지 못한다. (제 귀와 눈만 믿는 사람에게는 보고 듣는 것이 자세하면 할수록 병폐가 된다.)

[출제 의도 및 해설] 경험을 통해 글쓴이가 깨달은 바를 파악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이 글의 글쓴이는 귀와 눈만을 믿는 것, 즉 외물에 현혹되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

[평가 기준] '마음을 차분히 다스린 사람에게는 귀와 눈이 누를 끼치지 못한다.', '외물에 현혹되지 않고 마음을 다스려야 한다.' 등과 같은 답안을 서술한 경우 4점, 부분 점수 없음.

**31** 교술 갈래는 글쓴이가 실제 경험한 내용을 바탕으로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 깨달은 바를 나타낸 글이다. 따라서 실제로 있었던 내용과 허구의 내용을 구분하며 읽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32** ㉠과 ㉡ 모두 뒤지로 제공되는 종이로, 글쓴이와 동지들에게는 귀중한 읽을거리였다. 또한 간수들은 ㉠을 뒤지로 제공하는 것을 꺼렸기 때문에 글쓴이는 ㉡을 접할 기회가 더 많았다.

[오답 풀이] 나. 간수들은 구속되어 있는 사람이 바깥세상의 소식을 아는 것을 꺼렸기 때문에 ㉠ 대신 ㉡을 제공하였다.

리. 글쓴이는 ㉠을 더 읽고 싶어 하였지만, 간수들이 ㉡을 주로 제공하였기 때문에 ㉡도 열심히 읽은 것이다.

**33** 간수들은 구속되어 있는 사람이 바깥세상의 소식을 아는 것을 지극히 꺼렸기 때문에, 바깥세상의 소식을 담고 있는 신문지를 읽지 못하도록 난로에 넣어서 태워 버린 것이다.

### 창의·논술형 수행 평가 대비하기

본문 373쪽

[예시 답안]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 82년 5개월. 모진 세월을 살아 내셨던 할아버지. 당신의 한 많았던 삶에 어울리게 소한 추위를 하루 더 견뎌 내고 슬픈 역사에 마침표를 찍으셨다.

할아버지의 유품을 정리하며 할아버지와 함께했던 물건들을 모닥불에 태웠다. 모닥불이 피어 오르면 할아버지의 물건들이 돌아가신 할아버지 대신 나를 따뜻하게 감싸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모닥불이 붉게 타오르자 환한 불빛을 보고 여러 사람이 모여 들었다. 큰 개와 강아지까지 모닥불에 다가와 따뜻한 불을 쬐고 있는 모습을 보니, 나는 웬지 모르게 이들에게 위로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성별도, 나이도, 생김새도 모두 다 다르지만 모닥불을 함께 쬐고 있음은 같았다. 모두 서로의 존재만으로 더 따뜻한 온기를 느끼고, 함께 어울렸다. 쓸모없거나 외로운 존재 없이 우리는 모두 같은 선상에 놓여 있었다.

나는 모닥불 앞에만 서면 할아버지의 생각이 났다. 할아버지의 주름진 손에 한 가득 피어 있던 화상 자국에 관한 얽힌 이야기가 떠올랐기 때문이었다.



조금 더 어렸을 적, 할아버지와 모닥불 앞에서 이야기를 나누는 적이 있었다. 그때 나는 양손을 펼쳐 불 앞에 대는 할아버지의 손을 보고, 그동안 할아버지의 손에 관해 궁금했던 것을 물어보았다. 나는 할아버지의 손은 어쩌다 화상을 입게 된 것이냐 물었고, 할아버지는 나지막이 웃으며 '슬픈 역사'가 있다고 짧막하게만 말씀해 주셨다.

“내가 어렸을 적 고향을 떠나와 혼자 남게 되면서 얻은 상처이기도 하고, 불이 무서운지 모르고 선뜻 모닥불에 손을 내밀었다가 얻은 화상이기도 하단다. 더 이상은 이런 몸으로, 홀로 살아가기는 힘들지 않을까 염려했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받았지. 쓸모없다고 생각했던 물건들도 나를 향해 말을 걸어 주는 것 같았고, 늙은이부터 아이, 그리고 강아지도 모두 내 옆에 있어 주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었단다. 그때 나는 알았다. 쓸모없다고 생각했던 내 자신이, 사실은 이들과 평등한 존재였구나 하고 말이다.”

할아버지의 그 말은 오랫동안 내 기억에 남아 있었다. 그리고 나는 할아버지가 직접 겪은 슬픈 역사에 관해 어설픈 위로는 할 수 없었다. 그저 할아버지에 손에 남은 화상을 내 손으로 매만져 드리는 것이 다였다. 이제는 내 옆에 계시지 않는 할아버지지만, 나는 앞으로도 붉게 타오르는 모닥불을 보면 할아버지가 계속해서 생각날 것만 같았다.

**출제 의도 및 해설** 작품의 시적 상황과 주제 의식에 대한 이해와 갈래별 특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서정 갈래를 서사 갈래로 바꾸어 쓸 수 있는가를 확인하는 문제이다. <모닥불>에서는 보잘것없어 보이는 사물들이 모여 모닥불로 타오르고, 그 주변에서는 다양한 존재들이 평등하게 불을 쬐고 있다. 그리고 힘겨운 삶을 살았던 할아버지의 슬픈 역사를 말하며 마무리되고 있다. 이 시에 드러난 주제 의식은 평등과 어울림의 정신과 할아버지의 슬픈 역사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시적 상황과 주제 의식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꾸며 소설을 창작해 본다.

## 4 한국 문학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 (1) 한국 문학의 개념과 범위

#### 가 용소와 며느리바위

##### 내용 확인 문제

본문 380-384쪽

01 ⑤ 02 ③ 03 ① 04 돼지 05 ⑤ 06 ⑤ 07 ④  
08 생계 수단으로 삼기 위해 / 돈을 벌기 위한(먹고살기 위한) 수단(방법, 도구) 09 ③ 10 ⑤ 11 ③

01 이 글에는 인물의 행동이나 성격을 설명한 부분은 있지만, 인물의 외양을 묘사하는 부분은 없다.

**오답 풀이** ④ 이 글은 먼저 '용소'의 존재에 대해 언급한 후, 이후 그것이 어떤 사건을 계기로 생겨났는지 그 내력(來歷: 겪어 온 자취)을 밝히는 글이라고 볼 수 있다.

02 이야기를 전달하는 이가 인물이나 사건에 대해 개인적인 견해를 밝히고 있지는 않다.

03 ①은 장재 첨지가 시주를 거부하며 도승을 내치는 상황이므로, '인정 없이 몹시 모질게 대함.'을 의미하는 '문전박대'가 어울린다.

**오답 풀이** ② 인사불성: 정신을 잃고 의식을 모름.

③ 무위도식: 아무 하는 일 없이 다만 먹기만 함.

④ 십시일반: 여럿이 힘을 합하면 한 사람을 돕기는 쉬움.

⑤ 적반하장: 잘못된 사람이 도리어 화를 냄.

04 사람들은 장재 첨지를 '돼지'에 빗대어 그의 탐욕스러움을 비판하고 있다. '깍쟁이'는 인색한 사람을 가리키는 말로 비유적인 말이 아니다.

05 [A] 부분에는 며느리가 징벌을 받아 화석이 된 내용이 나타나지만, 징벌에 대한 장재 첨지의 저항은 드러나지 않는다.

**오답 풀이** ② 도승의 예언을 들은 며느리가 집에 들러 불타산으로 도망치다 화석이 된 사건이 요약적으로 제시되면서 사건이 빠른 속도로 전개되고 있다.

④ 이전 장면까지는 장재 첨지의 인물됨과 그의 행동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면, 이 부분에서는 며느리의 행동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06 며느리는 도승에게 사과를 하며 시주를 하고 있지만, 이를 도승이 장재 침지를 벌하러 온 것을 알고서 한 행동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오답 풀이** ③ '그 영감이 아주 나쁘다는 소리를 듣구서'를 통해 도승이 장재 침지에 대한 평판을 이미 알고 있었음이 드러나고, 장재 침지의 악행에도 낯색 하나 바뀌지 않았으므로 도승은 장재 침지의 행동을 예상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07 도승이 왜 시주를 한 며느리에게 지키기 힘든 금기를 제시해 비극적인 결말을 맞게 했는지는 알 수 없다.

**오답 풀이** ③ 도승은 며느리에게 집에 큰 재앙이 내릴 것이라고 한다. 이는 장재 침지의 악행에 대한 징벌이고, '뇌성벽력'은 재앙의 방법이자 내용이라고 볼 수 있다.

⑤ 며느리는 벼락 치는 소리에 깜짝 놀라서 뒤를 돌아보았다.

08 **예시 답안** 생계 수단으로 삼기 위해서 / 돈을 벌기 위한(먹고살기 위한) 수단으로 삼기 위해서

**해설** 며느리가 갖고 나온 '도토마리'는 '베를 짜기 위해 실을 감아 놓은 틀'을 가리키는데, 옛날 여성들이 주로 옷 만드는 일을 업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며느리가 '도토마리'를 생계 수단으로 삼기 위해 챙겼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평가 기준** 생계 수단 또는 먹고살기 위한 수단(방법, 도구)로 삼기 위해서 라는 답안을 작성한 경우 4점. 부분 점수 없음.

09 [A] 부분에는 첫 번째 증거물인 '화석'의 모양, 두 번째 증거물인 '큰 소'의 규모 등이 설명되어 있다.

**오답 풀이** ⑤ 수천 정보의 눈에 물을 댈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소'가 경제적 가치를 지녔다고 볼 여지가 있지만, 이는 발화자가 어림잡아 얘기한 것일 뿐 경제적 가치를 객관적, 구체적으로 분석한 내용이라고 볼 수는 없다.

10 '큰 소'가 증거물로 남아 현대인들에게 과거의 이야기를 떠올리게 하는 매개물이 될 수는 있지만, 이 이야기에 현대의 과학적 세계나 과학적 가치관과 관련된 내용은 전혀 없다.

**오답 풀이** ③ '큰 소'는 나쁜 짓을 한 '장재 침지'의 집이 재앙을 받은 결과물이므로, 사람들은 그것을 보며 '권선징악'의 교훈을 떠올릴 수 있다.

11 며느리가 평소에 어떤 세계를 지향했는지는 알 수 없으며, 도승에게 시주를 했던 것도 특별히 초월적 세계에 가고 싶어서 한 행동이라고 볼 수는 없다.

## 나 축규화

내용 확인 문제

본문 388-389쪽

01 ① 02 ④ 03 ② 04 신라, 6두품 출신

01 이 작품은 짧은 시 형식 안에서 앞부분에 '축규화'의 모습을, 뒷부분에 그에 대한 화자의 정서를 담은 선경후정의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시상이 점층적으로 확대되는 부분은 나타나지 않는다.

**오답 풀이** ③ 화자는 축규화에 화자 자신을 투영하여 자신의 처지와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④ '매화비', '보리바람' 등을 통해 초여름의 계절감을 나타내고 있다.

⑤ 경련의 5구 '누가 보아 주리'에서 설의법을 사용하여 자신의 뜻을 펼치지 못하는 화자의 처지를 강조하고 있다.

02 '천한 땅'에 태어나 받는 제약들을 참고 견디는 화자의 모습에서 자신이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한 화자의 체념적 태도가 나타난다.

**오답 풀이** ① 자신의 능력을 펼치고 현실에 참여하고 싶다는 욕구는 있지만, 세상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열망이 있는지는 나타나지 않는다.

② 자신에게 주어진 제약들을 참고 견딜 뿐, 이를 극복하려는 강한 의지는 드러나지 않는다.

③ 화자는 출신상의 제약과 자신의 능력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는 문체 상황을 정확히 알고 있다.

⑤ 화자는 자신의 처지를 인식하며 체념하고 있지만, 자신을 성찰하여 내면의 문제를 발견하고 있지는 않다.

03 '수레 탄 사람'은 지체가 높은 관리나 벼슬아치로, 화자의 능력을 알아보고 써 줄 사람을 뜻하는데, '경련'에서는 이들이 화자를 봐 주지 않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나타나고 있다.

04 '천한 땅'은 화자의 출신으로 인한 외부적인 제약을 가리키는데, <보기>의 내용을 통해 화자가 당나라가 아닌 신라 출신이고 골품제의 높은 신분인 진골이 아닌 6두품의 신분이기 때문에 이 제약이 생긴 것임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다 평상이 있는 국숫집

내용 확인 문제

본문 392~393쪽

- 01 ②   02 ④   03 ①   04 ⑤   05 ③   06 ㉠: 삼거리 슈퍼, ㉡: 친정 오빠 / 친근함(편안함)

- 01 이 시의 첫 부분과 마지막 부분은 내용이나 형식에 있어서 유사하다고 말하기 어려우므로 수미상관적인 관계라고 볼 수 없다.  
**오답 풀이** ① 음성 상징어 ‘쫄쫄쫄쫄 쫄쫄쫄쫄’은 상대방에게 연인과 위로의 마음을 전하는 소리로, 이 글의 주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③ ‘손이 손을 잡는 말’과 같이 명사 형태로 시행의 끝을 맺어 여운을 남기고 있다.  
 ④ 우리 주변에서 만날 수 있는 평범한 사람들과 ‘국수’와 같은 소박한 일상의 음식이 소재로 등장하고 있다.  
 ⑤ 국숫집과 국숫집을 찾은 사람들을 ‘삼거리 슈퍼’, ‘친정 오빠’에 비유하여 이들을 편안하고 친근하게 느끼는 화자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 02 이 시의 마지막 행에 사람들이 푸조나무 아래 평상에 모처럼 마주 앉았다는 내용이 나온다.  
**오답 풀이** ⑤ 병실에서 온 사람, 식당 일을 하다 온 사람 등이 등장하며 이들은 오랜만에 만나 서로의 힘든 사연들을 나누고 있다.
- 03 이 시에서 ‘사람들’은 평상에서 공감과 위로를 나누고 있으며, 상실감은 나타나 있지 않다.  
**오답 풀이** ②, ③, ⑤ 화자는 국숫집에서 만난 다른 사람들을 친정 오빠에 빗대고 있는데, 이를 통해 사람들이 서로에게 친밀감, 편안함, 동질감, 반가움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④ ‘유대감’은 ‘서로 하나로 이어진 듯한 느낌’을 의미하므로 친밀감이나 동질감과 일맥상통한다.
- 04 이 시는 사람들 간의 정서적 교감과 소통을 보여 줄 뿐, 현실의 문제를 제기하거나 이것에 힘을 합해 대처해야 한다는 주제 의식은 담고 있지 않다.  
**오답 풀이** ③ ‘국숫집’과 ‘평상’이라는 공간은 사람들이 복적이는 곳이자 직접 대면하고 눈을 마주 보며 대화를 나누는 곳이라는 점에서, 사람들 사이에서 교감이 이루어지는 곳이라고 볼 수 있다.
- 05 이 시에서 ‘평상’은 누구나 부담없이 앉을 수 있는, 즉 수평적인 만남이 이루어지는 공간이므로, 수직적 위계가 있는 공간이라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 06 화자는 ‘국숫집(㉠)’을 많은 사람들이 쉽고 편하게 자주 찾아올 수 있는 공간인 ‘삼거리 슈퍼’에 비유하였고, ‘평상에 마주 앉은 사람들(㉡)’을 ‘친정 오빠’에 비유하였다. 가깝고 편안하고 친근한 공간이자 가족이라는 점에서 두 시어 모두 편안함, 친근함의 속성을 지니고 있다.

소단원 평가 문제 미리 보기

- 01 ②   02 ③   03 ③   04 ④   05 해설 참조   06 ④  
 07 ②   08 ⑤   09 ⑤   10 해설 참조   11 ④   12 ⑤  
 13 ②   14 ④   15 ④   16 ⑤   17 해설 참조   18 ②  
 19 ④   20 ④

- 01 이 글은 설화 중 전설에 해당한다. 전설은 일반적으로 증거물의 존재, 사건이 일어난 공간적 배경의 제시, 비범한 인물의 등장, 전기적 사건의 발생, 비극적 결말 등을 특징으로 한다.  
**오답 풀이** ㉠과 ㉡은 신화의 특징이다.
- 02 (나)에는 장재 침지가 나쁜 사람이라는 소문을 듣고 그를 벌하려는 도승과 시주를 거부하는 인색한 장재 침지의 갈등 양상이 나타나 있다.  
**오답 풀이** ② 마을 사람들이 장재 침지의 인색함을 비판하기는 했지만, 장재 침지가 마을 사람들을 수탈한다는 내용은 나타나 있지 않다.
- 03 <보기>를 바탕으로 할 때, 며느리는 장재 침지와 함께 세속적 공간에 속하는 인물이며, 절대적인 선은 초월적 공간에 존재하는 것이다. 따라서 며느리를 절대적인 선에 속하는 인물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② 장재 침지는 악(惡)을, 며느리는 선(善)을 대표하는 인물이다. 이들은 모두 세속적 공간에 속하는 인물이라는 점에서 세속적 공간에 선과 악이 공존한다는 <보기>의 설명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  
 ④ 도승은 초월적 존재로서, 세속적 존재인 장재 침지에게 와서 그를 벌하는 것은 초월적인 존재가 세속적인 존재에게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 04 화자는 ㉠에서 뇌성벽력에 대해 이야기하다가 도승이 제시한 금기를 말하고 있는데, 금기의 내용이 ‘뒤에서 아무런 소리가 나도 절대 뒤를 돌아보지 말 것’이었으므로 사건의 흐름과 무관한 내용이라고 보기 어렵다.  
**오답 풀이** ③ 장재 침지가 도승에게 쇠뿔을 퍼 준 이야기를 하던 중에, 사용한 도구와 그 도구의 명칭을 떠올리고 있다.
- 05 **예시 답안** 전설은 이야기의 증거물이 존재한다는 특징이 있는데, (마)에도 ‘화석’과 ‘큰 소’가 이야기의 증거물로 제시되고 있다. 전설의 증거물을 제시하는 (마)와 같은 단락은 독자로 하여금 이 전설이 실화(사실)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하도록 만들어 준다.  
**출제 의도 및 해설** 이 글은 설화 중 전설에 해당한다. 전설의 특징을 알고 그 특징이 작품 속에서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구체적인 근거를 통해 찾아본 후, 이것이 독자에게 어떤 효과를 주는지를 관련지어 생각해 보도록 하는 문제이다.

**평가 기준**

평가 기준	배점
전설의 특징 중 하나인 '증거물의 존재', '증거물의 제시'에 대해 설명한 경우	2
증거물로 (마)에 제시된 '화석'과 '큰 소(웅소)' 두 가지를 제시한 경우	1
독자에게 이야기를 사실(실화)로 믿게 하는 증거물의 효과를 설명한 경우	2

**유사 정답** (마)가 독자에게 주는 효과를 묻는 <조건 2>와 관련하여, '이야기의 사실성(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를 쓰면 정답으로 인정함.

**06** (가)는 화자가 태어나 머물고 있는 '거친 밭 언덕', '천한 땅'에 대한 안타까움과 한탄의 정서를, (나)는 사람들이 북적대며 교감을 나누는 '국숫집'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드러내고 있다.

**오답 풀이** ② 원문을 볼 때 (가)는 '경련(5, 6구)'에 대조(수레 탄 사람↔벌 나비)가 나타나며, 이를 통해 화자의 불우한 처지를 나타내고 있다. (나)에는 대조가 나타나지 않는다.

③ (가)는 작품 전체의 화자를 사람이 아닌 '축규화'로 볼 경우 사물에 인격을 부여했다고 볼 수 있지만, 대상에 대한 일체감(한 몸이 된 듯한 느낌)이 나타난 것은 아니다. (나)에는 의인법과 일체감이 모두 나타나지 않는다.

**07** '보리 바람'은 계절을 나타내는 시어로, 외부의 시련으로 보기 어렵다. '그림자'는 '축규화'가 만들어 낸 형상일 수 있지만, 이것이 억압받는 화자의 내면을 나타낸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답 풀이** ③ 화자는 '수레 탄 사람'이 자신을 봐 주지 않는 것을 안타까워하고 있다. 이처럼 화자가 이들을 인식하는 모습에서 이들에게 능력을 펼쳐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음이 드러난다.

**08** '손이 손을 잡는 말'은 사람들이 실제로 손을 잡고 어루만지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쫄쫄쫄'이라는 소리가 마치 상대방의 손을 잡아 주는 행위와 같은 기능을 한다는 의미이다.

**오답 풀이** ④ 이 작품은 사람들이 나누는 대화의 내용을 직접 제시하는 대신, 의성어와 대화를 나누는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 이들이 공감의 대화를 나누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09** ㉠에서는 예찬의 대상 '기파랑'이 높은 잣나무 가지처럼 높은 경지에 있어 '눈'이 '고깔'을 덮을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눈'은 깨끗한 이미지의 시어가 아니라 시련이나 고통을 의미하는 부정적인 시어로 보아야 한다.

**10** **예시 답안** '쫄쫄쫄 쫄쫄쫄'은 상대의 말에 슬픔, 안타까움을 느껴 혀를 차는 소리이자 국수를 찬물에 행굴 때 나는 소리를 나타낸다. 안타깝게 혀를 치는 소리라면 사람들이 주고받는 위로와 공감이라는 이 시의 주제를 드러내고, 국수를 행구는 소리

라면 국숫집의 상황(분위기)을 드러낸다고 할 수 있다.

**출제 의도 및 해설** '쫄쫄쫄 쫄쫄쫄'이라는 의성어는 이 작품의 상황이나 주제를 가장 인상적으로 드러내는 시구 중 하나이다. 이 의성어가 가리키는 두 가지 소리가 무엇인지, 각각의 소리는 이 작품의 분위기나 주제와 어떻게 관련되는지를 연결해 서술하는 문제이다.

**평가 기준**

평가 기준	배점
'쫄쫄쫄 쫄쫄쫄'이 가리키는 두 가지 소리를 모두 설명한 경우(각 1점)	2
혀를 차는 소리를 작품의 주제와, 국수 행구는 소리를 공간의 분위기와 관련지어서 설명한 경우(각 1점)	2

**유사 정답** 소리의 정체성의 경우, '국수를 만드는 소리, 국수를 행구는 소리' 등도 정답으로 인정함. 상황이나 주제와의 관련성의 경우 '연민, 공감' 등을 언급해도 정답으로 인정함.

**11** (가)가 중국의 한시 형식을 따랐는지 여부는 한국 문학의 개념과 범위를 정할 때 고려할 만한 조건이 아니다.

**오답 풀이** ⑤ (다)에 쓰인 향찰은 우리말을 표기하기 위해 중국의 한자를 주체적으로 활용한 표기 체계이므로, 향찰로 표기된 작품은 한국 문학의 조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다.

**작품 더 보기**

- **총답사, <찬기파랑>**
  - 갈래: 서정시, 10구체 향가
  - 주제: 기파랑에 대한 추모와 예찬
  - 해제: 이 작품은 신라 제35대 경덕왕 때 승려 총답사가 화랑 기파랑을 추모하여 지은 향가이다. 기파랑의 모습을 자연물에 빗대어 형상화하고, 그의 높은 기상과 고매한 인품을 예찬하고 있다. 다른 향가에 비해 종교적, 주술적인 색채 없이 순수하게 개인의 서정을 노래했다는 특징이 있다.

**12** (다)에 음성 상징어가 쓰인 것은 맞지만, 이는 '사람들' 간의 위로와 공감의 마음을 형상화하고 있을 뿐, 대상의 역동성을 드러내고 있지 않다.

**13** 화자는 ㉠에서 자신과 '사람들'을 함께 묶어 '우리'라고 지칭하고 있다. 이는 '사람들'과 일행이 된 것 같은 화자의 정서를 드러낸 것으로, 이를 통해 화자가 '사람들'과 정서적으로 더욱 가까워지고 동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⑤ 화자는 사람들의 모습을 관찰하다가 이들과 점차 정서적으로 가까워진 것일 뿐, 화자가 대화에 참여하거나 자신의 처지를 사람들의 처지와 같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14 (나)에서 ‘벼슬에 진출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들’을 나 타내는 시어는 ‘별, 나비’이다.

15 (나)는 서사 무가로, (가)처럼 증거물이나 그것이 있는 공간을 언급하지는 않는다.

- 오답 풀이** ① (가)와 (나)는 모두 구비 문학으로 입에서 입으로 전승되 어 왔는데, 주로 민중이 창작하고 향유하였다.  
 ②, ③ (가)와 (나)는 모두 오래전에 지어져 구전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민족의 삶의 양식과 가치관이 반영되었다.  
 ⑤ (가)는 장재 침지의 집이 있는 인간 세계가 주된 공간적 배경이지만, (나)는 무상 신선이 살고 있는 초월적 공간이 주된 공간적 배경이다.

16 (나)의 ‘키는 하늘에 ... 석 자 세 치라.’에 무상 신선의 외양이 묘 사되고 있는데, 바리데기는 그의 외모에 무서움을 느끼고 있다. 그러나 (가)에는 중에 대한 외양 묘사 자체가 없다.

- 오답 풀이** ① 중은 장재 침지를 벌하고 며느리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는 등 심판자의 역할을 하고 있으나, 무상 신선은 바리데기(아기)를 시험할 뿐 심판하고 있지는 않다.  
 ② 중은 며느리에게 앞으로 큰 재앙이 내릴 것을 예고하고 있으나, 무상 신선은 앞날에 대해 예고하고 있지 않다.  
 ③ 중은 세속적 세계인 장재 침지네 집에 찾아와 장재 침지를 징벌하고 있으나, 무상 신선은 초월적 세계인 서역국에서 바리데기(아기)를 맞이한다.  
 ④ 중은 며느리에게 어떤 일이 있어도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금기를 제 시하지만, 무상 신선은 바리데기(아기)에게 자신이 원하는 것을 부탁 하고 있다.

17 **예시 답안** 무상 신선이 바리데기(아기)에게 요구하는 일들은 3 년 동안 물 길기, 3년 동안 불 때기, 3년 동안 나무 베기, 자신과 결혼하기, 7명의 아들 낳기이다. ㉠에서 바리데기(아기)가 부모 를 치유할 약려수를 얻은 것으로 볼 때, 무상 신선이 요구한 행 동들은 바리데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겪어야 할 고통, 시련, 통과 의례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출제 의도 및 해설** (나)에는 주인공이 겪어야 할 통과 의례로서 여 러 가지 고난과 시련이 제시되는데, 작품 속에서 이를 파악할 수 있는지 평가하는 문제이다.

**평가 기준**

평가 기준	배점
무상 신선이 요구하는 일 다섯 가지를 모두 찾아 언급한 경우	1
이 일들이 ‘바리데기가 거쳐야 하는 고통, 시련, 통과 의례 등에 해당한다는 점’ 또는 ‘바리데기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 거나 목적을 달성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한 경우	4
	5

**작품 더 보기**

● **작자 미상, <바리공주>**

- 갈래: 서사 무가
- 주제: 효를 실천한 바리공주의 고난과 성취
- 해제: 이 작품은 서사 무가의 하나로, 부모에게 버림받은 바리공주 가 병든 부모를 위해 온갖 고난을 이겨 내고 무조 신이 되기까지의 과정을 담고 있다. 바리공주의 일생을 영웅 서사의 구조로 보여 준 다는 점에서 한국 서사 문학의 특질을 잘 보여 주는 작품이다. <바 리공주>는 죽은 이를 저승으로 천도하기 위한 곳에서 구연되었으며 문자로 기록되지 않은 채 무속 의식을 통해 전해졌는데, 현재 약 20 여 편이 채록되어 있다.

18 (가)의 화자는 ‘꽃송이(촉규화)’가 처한 상황, 즉 탐스럽게 꽃을 피웠지만 거친 땅에 있기 때문에 ‘수레 탄 사람’이 보아 주지 않는 상황을 관찰하고 있고, (나)의 화자는 ‘사람들’이 서로 마주 앉아 위로와 공감을 나누는 모습을 관찰하고 있다. 따라서 (나) 에서 화자가 대상의 외양(겉모습)을 관찰하고 있다는 설명은 적 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③ (나)에서는 화자를 나타내는 말인 ‘우리’가 시의 표면에 드러나고 있으나, (가)에는 ‘나’, ‘우리’ 등과 같이 화자를 나타내는 말 이 드러나지 않는다.

19 (가)에서 작가는 세상 속에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고 싶지만, 출신상의 제약 때문에 그럴 수 없음을 안타까워하며 세상으로 부터 단절감과 소외감을 느끼고 있다. 또한 <보기>의 작품에서 작가는 큰 소리를 내며 흐르는 물을 곁에 뚫으로써 속세의 시끄 러운 소리를 차단하고 있다. 이를 통해, 세상과의 단절감으로 괴로워했던 작가가 나중에는 자연에 들어가 속세와의 관계를 단절했다고 볼 수 있다.

**오답 풀이** ② (가)에서 ‘천한 땅’은 출신과 신분상의 제약 또는 그런 제 약이 있는 공간을 가리키는 것이다. 그렇지만 <보기>의 작품에서 화 자가 머무는 산속의 공간은 속세와 완전히 단절된 공간이기 때문에 ‘천한 땅’을 긍정하는 삶을 선택했다고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③ <보기>의 작품에 자신의 과오를 반성하는 화자의 모습은 나타나지 않는다.

⑤ <보기>의 작품에서 화자는 속세에서 가졌던 뜻을 버리고 속세와 단 절을 꾀한 것이지, 현실과 타협한 것은 아니다.

20 이 시에서 ‘국수’는 ‘사람들’이 모이는 ‘국숫집’과 더불어 평범한 우리네 이웃들과 잘 어울리는 소박하고 수수한 분위기를 조성 하는 소재이다. 그러나 이 시에서 ‘국수’라는 음식 자체가 각박 한 현대인들에게 꼭 필요한 음식이라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 2 한국 문학의 특성

### 1 홍보가

#### 내용 확인 문제

본문 408-415쪽

01 ④ 02 ② 03 ⑤ 04 ④ 05 ① 06 ⑤ 07 ③  
08 ⑤ 09 ⑤ 10 홍보는 자신의 안위보다 돈을 중시하지만, 홍보 아내는 돈보다 홍보의 안위를 중시한다. 11 ②

01 이 글은 판소리로, 판소리는 대체로 과장, 열거 등의 방법을 통해 상황을 장황하게 서술하는 특징이 있다.

**오답 풀이** ③ 판소리는 관객 앞에서 노래로 불렀기 때문에, 주로 현악형 시제를 사용해 현장감과 생동감을 더해 사건을 서술한다.

02 이 글의 앞부분에는 온갖 일을 닦치는 대로 하지만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해 힘겨워하는 홍보의 모습이 나타나 있다.

**오답 풀이** ① 자식들을 보며 복이 많다거나 행복하다고 여기는 내용이 나타나지 않는다. 도리어 지나치게 많은 자식이 가난을 벗어나지 못하는 한 원인이 된다.

③, ⑤ 홍보는 닦치는 대로 온갖 일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한 것이지 사회를 바꾸려는 열망 때문은 아니다.

④ 홍보는 자식이 너무 많아 이름을 대충 짓고 있으므로, 그가 자식들 한 명 한 명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반응은 적절하지 않다.

03 ‘발단’의 [자진모리] 부분에서는 한꺼번에 명석을 쓰게 된 자식들이 겪는 여러 어려움과 난처한 상황들을 우스꽝스럽게 전달하여 해학성이 두드러진다.

04 홍보는 자식들의 음식 타령, 장가 타령과 아내의 신체 한탄을 듣고 환자를 꾸러 가기로 결심한다. 아내는 오히려 홍보가 환자를 빌리지 못할 것임을 이유로 들어 남편의 외출을 반대하였다.

05 ‘폐포파립(敝袍破笠)’은 ‘해진 옷과 망가진 갓’이라는 뜻으로, 매우 초라한 차림새를 나타낼 때 쓰는 말이다.

**오답 풀이** ② 금의환향: 출세하여 고향에 돌아옴.

③ 천의무봉: 완전무결해 흠이 없음.

④ 외유내강: 겉은 부드럽고 순하게 보이나 속은 곧고 굳셈.

⑤ 군계일학: 많은 사람 가운데서 뛰어난 인물을 이르는 말

06 이 글에는 가난하지만 양반으로서의 최소한의 체면을 지키고 싶어 하는 홍보의 성격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관망 의복’, ‘베도복’, ‘곰돌 조대’, ‘팔 자 걸음’은 모두 홍보가 양반으로서 갖추어야 하는 차림새 및 태도와 관련된 소재이지만, ‘궁수남아’는 ‘궁핍한 남자의 처지’라는 말이므로 그 성격이 다르다.

07 ‘위기’~‘절정’ 부분에는 환자를 빌리러 간 홍보가 매품을 팔기로 한 후, 돈타령을 부르며 기뻐하는 심리가 나타나 있다.

**오답 풀이** ⑤ 아전에게 쓸 말투를 고민하긴 하지만 비참함을 느끼는 장면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08 가난한 이들을 구제하는 제도가 사회적으로 갖추어져 있었다면 홍보가 이처럼 고통을 겪으며 환자를 빌리거나 매품을 팔지 않았을 것이다. 참고로 ‘변전’은 가난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비싼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 주는 고리대금의 하나이다.

**오답 풀이** ④ 아전들이 홍보에게 매품을 제안하는 모습에서 하급 관리들이 부정을 조장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09 ‘결말’ 부분에서 홍보는 매품을 팔러 병영에 가면서 자신의 신체에 대해 탄식하고 공포에 질려 ‘벌벌벌’ 떠는 모습을 보인다. 이후 매 맞는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이라 생각하며 그들을 선망하면서 스스로 볼기를 까고 엎드리지만, 피수애비가 기회를 가로채 간 것을 알고는 크게 실망한다.

10 홍보는 자신의 몸이 상할 것을 걱정하지 않고 매품을 팔아 돈을 벌고자 한다. 그렇지만 홍보 아내는 돈보다 홍보의 건강을 중시하여 매품팔이를 반대한다.

11 <보기>의 대목에는 3·4조 또는 4·4조의 음수율에 대체로 4음보의 율격을 갖춘 운문체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운문체는 읽는 이로 하여금 리듬감을 느끼게 한다.

### 2 가 뒷버들 갈히 것거 / 나 춘망사

#### 내용 확인 문제

본문 422-423쪽

01 ① 02 ② 03 ② 04 ④ 05 해설 참조

01 (가)와 (나)의 화자는 모두 사랑하는 임과 멀리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임을 그리워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②, ③, ④의 정서는 두 작품 모두에서 나타나지 않는다.

⑤ 만날 ‘기약’이 없다고 느끼며 안타까워하는 (나)에만 해당한다.

02 (가)는 우리나라의 평시조이다. 평시조 중에서는 간혹 초장과 중장 또는 중장과 종장이 대구의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는 있지만 이것이 정형화된 것은 아니며, 실제로 (가)에서도 세 장 모두 유사한 시구의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오답 풀이** ⑤ (나)는 중국의 한시로 4단 구성을 취하며, 대개 두 구씩 하나의 의미 구조를 이루게 된다. 실제로 (나)에서도 기구와 승구에서 돌아오지 않은 임의 상황이, 전구와 결구에서 화자의 안타까움과 상실감이 나타난다.



**03** '뫼뵁뵁'은 자연물이지만 화자의 마음을 담아 입과 같이 있고 싶다는 소망을 드러내기 위한 소재일 뿐 자연 친화적 태도와는 관계가 없다.

**04** 전구에서 화자는 자신의 바람이 입과 '뫼과 뫼'을 뺏는 것임을 밝히고, 절구에서 이를 이루지 못한 안타까움을 '뫼있'을 뺏는 행위를 통해 드러내고 있다. 슬픔이나 안타까움 같은 화자의 감정을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있지는 않다.

**오답 풀이** ③ 기구와 승구에서 시적 상황과 정서를 담담하게 제시한 후 전구를 감탄사로 시작하고 있는데, 이후에 화자의 주된 정서를 집약적으로 드러내고 있으므로 감탄사를 계기로 시상이 전환되기 시작한다고 말할 수 있다.

**05** **예시 답안** 이 시는 때가 되면 계절이 돌아오는(변화하는) 자연의 모습을 담은 기구와 시간이 흘러도 돌아오지 않는 인간(임)의 모습을 담은 승구를 대조하고 있다.

**출제 의도 및 해설** 이 시의 기구-승구에서 대조하고 있는 자연사와 인간사의 내용을 파악하는 문제이다. 시간이 지나면 계절이 바뀌는 자연과 달리, 떠난 입은 시간이 흘러도 돌아오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평가 기준**

평가 기준	배점
'기구'에서는 때가 되면 꽃이 피고 지는 자연의 모습이 나타나다고 서술한 경우	1
'승구'에서는 떠났다가 때가 되어도 오지 않는 사람(임)의 모습이 나타난다고 서술한 경우	1
기구와 승구에 나타난 내용이 대조됨을 적절히 서술한 경우	1
3	

**3 가 거산호 · II**

**내용 확인 문제**

본문 430-431쪽

01 ③ 02 ⑤ 03 ⑤ 04 ① 05 해설 참조

**01** 이 시에서 화자의 감정을 자연물에 이입한 부분은 나타나지 않는다.

**02** 이 시의 화자는 산이 갖고 있는 그 자체의 성품 때문에 산을 좋아하는 것이지, 산으로부터 속세에서 살아가는 방법을 얻고 있는 것은 아니다.

**03** '미역취 한 이파리 상긋한 산 내음새'는 후각적 이미지로 산을 표현한 부분으로, 의인화는 나타나지 않는다.

**04** 한국 문학의 특질에는 자연 친화의 태도, 풍자와 해학, 한의 정서 등이 있는데, 이 시는 자연에 대한 애정과 동경을 노래함으로써 자연 친화라는 한국 문학의 특질을 잘 보여 주는 작품이다.

**오답 풀이** ② 화자에게 산은 절대적인 가치를 지닌 존재로 그려져 이상향의 의미를 갖는다고도 볼 수 있다. 그러나 '이상에 대한 동경'은 한국 문학만의 특질은 아니며, 오히려 세계 여러 나라의 문학에서 보편적으로 발견되는 주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05** **예시 답안** 산에서도 오히려 산을 그리며, 산에 대한 화자의 그리움(애정)을 강조한다.

**출제 의도 및 해설** 산을 예찬하기 위해 화자가 사용한 표현법의 효과를 파악하는 문제이다. '그리움'은 일반적으로 현재 없는 것을 생각하고 보고 싶어하는 감정이므로, 산에 있는데도 산을 그리워한다는 화자의 말은 일반적인 상식과 어긋나는 역설적인 발상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역설적 표현은 산에 있어도 산이 생각날 만큼 산에 대한 그리움(애정)이 크다는 것을 효과적으로 드러낸다.

**평가 기준**

평가 기준	배점
역설법에 해당하는 시행을 찾아 쓴 경우	2
'산에 대한 화자의 그리움(애정)을 강조'한다는 역설법의 효과를 적절히 서술한 경우	2
4	

**3 나 이니스프리 호수 섬**

**내용 확인 문제**

본문 434-435쪽

01 ⑤ 02 ③ 03 ② 04 ② 05 한길, 회색 포도

**01** 이 시에는 시각적 이미지, 청각적 이미지가 다채롭게 쓰였지만 공감각적 이미지는 나타나지 않는다.

**오답 풀이** ③ '보랏빛'은 이니스프리 섬의 색채를 사실적으로 나타낸 것일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보랏빛이 이상향을 나타내는 색채로 쓰인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니스프리를 보다 신비롭고 아름답게 그리기 위해 사용한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02** 화자는 1연에서 '나 혼자 살으리.'라고 말하며 공동체적 삶이 아닌 고즈넉한 분위기에서 자연과 함께 하는 삶을 지향하고 있다.

**03** '평화'는 관념적인 대상인데, '평화는 천천히 내리는 것'에서는 평화를 눈으로 볼 수 있는 대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04 ②에는 시각적 이미지가, ①, ③, ④, ⑤에는 청각적 이미지가 사용되고 있다.

05 3연의 '한길'은 '크고 넓은 길'을 '포도'는 '포장 도로'를 의미하는 시어로, 화자가 현재 머물고 있는 공간이다. 화자가 이곳을 답답해하며 이니스프리에서의 전원적 삶을 꿈꾼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두 시어는 번잡한 도시 공간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다.

소단원 평가 문제 미리 보기

본문 440~445쪽

- 01 ③    02 ③    03 ②    04 해설 참조    05 ⑤    06 ③  
 07 ④    08 해설 참조    09 ④    10 ④    11 ②    12 ①  
 13 ⑤    14 해설 참조    15 ⑤    16 ⑤    17 ⑤    18 ③  
 19 ③    20 해설 참조

01 홍보 아내와 홍보는 함께 돈을 벌고 있다. 또한 홍보가 가장으로서 자식들을 먹이기 위해 환자를 빌리러 가고 있으므로, 홍보 아내가 남편 대신 생계를 책임지려고 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 오답 풀이** ① (다)와 (라)에서 홍보 아내는 아이들의 음식 타령과 장가 타령에 가난한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며 울고 있다.  
 ② 홍보는 자식들의 음식 타령을 듣고 우는 아내를 본 뒤, (라)에서 환자를 얻어 자식들을 구원하려 한다는 점에서 가장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려고 한다고 볼 수 있다.  
 ④ (라)에서 홍보는 환자를 얻으려 가려는 것을 만류하는 아내에게 화를 내면서 가부장의 권위를 내세우고 있다.  
 ⑤ (다)에서 홍보의 자식들은 아무리 힘들게 일을 해도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부모에게 음식 타령과 장가 타령을 하는 철없는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02 (나)로 볼 때, 홍보는 자식들을 쉽게 얻고 있으므로 홍보의 수많은 자식들을 홍보 부부의 노력이 낳은 결실로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지나치게 많은 자식들은 홍보가 가난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한 이유로 볼 수 있다.

- 오답 풀이** ⑤ (마)에서 의관을 차려입는 홍보의 모습을 통해 그가 양반의 신분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가)에서 그가 했던 잡일들이 그의 신분과는 맞지 않은 일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03 [A]는 홍보가 했던 일의 종류를 장황하게 나열한 것이지 인물의 외양이나 성격을 묘사한 대목이 아니다.

- 오답 풀이** ⑤ '강상죄인 칼 씌우듯', '명석 위에 흑태 매주 넣어 논 뽕'에서 비유를, '대글뽕'에서 비속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명석을 쓴 자식들의 모습을 인상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04 **예시 답안** (마)에서 홍보는 도포, 갓, 망건 등 양반의 의관(옷차림)을 갖추었지만, 가난으로 인해 매우 누추한 행색을 보여 주고 있다. 이를 통해 홍보가 가난하지만 어떻게 해서든 양반으로서의 체통을 지키려고 하는 인물임을 알 수 있다.

**출제 의도 및 해설** (마)에서는 홍보가 양반으로서의 권위와 자존심을 지키고 싶어 양반의 의관을 갖추어 입지만, 가난한 형편으로 인한 초라한 행색이 오히려 웃음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홍보의 이러한 외양과 행동을 통해 홍보가 처한 형편과 그의 됃됨이를 파악해 보게 하는 문제이다.

평가 기준

평가 기준	배점
양반의 의관을 갖추었다는 내용을 언급한 경우	1
가난하여 매우 누추한 행색임을 언급한 경우	1
홍보가 양반의 체통을 중시하는 인물임을 언급한 경우	2

05 <보기>는 연민의 대상인 홍보가 특정 장면에서는 풍자의 대상으로 그려지며 희화화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서술자는 ㉠에서 가난하여 굶주리면서도 양반의 체통을 고집하는 홍보를 다소 조롱하듯 풍자하면서 그의 행동을 희화화하여 제시하고 있다.

- 오답 풀이** ㉠, ㉡ 가난으로 고생하는 홍보와 홍보 아내에 대한 안타까움과 연민을 드러내고 있다.  
 ㉢ 자식들의 이름을 강아지 항렬로 지은 상황을 희화화하여 제시하고 있기는 하지만 풍자의 의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 큰아들의 크고 굵은 목소리를 나타낸 표현일 뿐 풍자가 나타나고 있지 않다.

06 (다)의 마지막 부분에, 자신의 매품팔이 소식을 께수애비가 먼저 알아차리고 발등거리를 했을 것이라는 홍보의 추측이 제시되어 있다.

- 오답 풀이** ① 좌수가 자기 대신 매를 맞을 사람으로 홍보를 지목한 것이 아니라, 아전들이 홍보에게 매품팔이를 소개해 준 것이다.  
 ② 아전은 좌수의 매를 대신 맞아 줄 사람을 구한 것뿐, 홍보가 더 큰 돈을 벌기를 바라서 매품팔이를 제안한 것은 아니다.  
 ④ (나)의 "가궁한 저 형상에 매품 말이 웬 말이오?"로 볼 때, 홍보 아내는 홍보의 몸이 상할까 봐 홍보가 매를 맞는 것에 반대하고 있다.  
 ⑤ 홍보가 제안을 받아들인 것은 환자를 얻는 것보다 매품팔이로 얻는 이익이 더 많았기 때문이다.

07 (가)에서 홍보는 매품을 파는 위험한 일을 제안받았음에도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에 아전에게 존대까지 하며 좋아하고 있다. 이는 그만큼 홍보의 생계가 어려웠음을 보여 주는 장면이다.



- 오답 풀이** ① 흥보는 남의 매를 대신 맞는다는 사실보다는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에 기뻐하고 있는 것이다.
- ② 흥보는 가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매품을 팔아 돈을 벌고자 하고 있으므로 이를 부도덕하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돈으로 자신의 벌을 면하려는 좌수와 이를 주선하는 아전들을 부도덕한 인물로 볼 수 있다.
- ③ 흥보는 이미 수많은 일들을 닦치는 대로 하며 가난에서 벗어나고자 하였다.
- ⑤ 흥보는 끼니를 걱정할 정도로 가난한 처지이므로, 가진 자가 더 많이 갖고 싶어 한다는 말은 흥보의 상황에 적절하지 않다.

**08 예시 답안** 1) 흥보처럼 돈을 벌기 위해 매를 맞아야 할 만큼 극심한 가난에 시달리는 백성들이 많았다. 2) 좌수와 같은 관리나 벼슬아치들이 죄를 짓는 일이 많았다. 또는 흥보에게 매품을 제안하는 아전과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일을 처리하는 관리들이 많았다.

**출제 의도 및 해설** (가)는 아전이 가난으로 인해 환자를 빌리러 온 흥보에게 매품을 팔 것을 제안하는 장면으로, 관리들의 기강 해이와 부정부패, 물질 만능주의, 백성들의 가난 등 조선 후기의 모순된 사회 현실을 잘 보여 준다. 이러한 작품의 내용을 근거로 들어 당시의 부정적인 사회상을 파악하도록 하는 문제이다.

**평가 기준**

평가 기준	배점
흥보의 처지를 바탕으로 백성들의 가난을 언급한 경우	2
좌수나 아전의 행동을 바탕으로 관리(벼슬아치)의 부정부패, 도덕적인 문란함이나 기강 해이,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가진 자의 횡포 등을 언급한 경우	2
	4

**유사 정답** 2)의 답에 ‘돈이 많은 자(지위가 높은 자)들의 횡포가 심함’, ‘돈(물질)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음.’ 등의 내용이 들어가도 정답으로 인정함.

**09** 흥보가 매를 맞으러 가서 겁을 먹고 벌벌 떠는 모습은 연민과 웃음을 자아내는 해학적인 장면이라고 볼 수 있다.

**10** <보기>의 ‘흥부 부부’는 고통스러운 삶에도 서로에게 애써 웃음을 보여 주고 있으며, ‘없는 떡방아 소리’마저 있는 것처럼 생각하며 긍정적으로 살고 있다. 따라서 이들은 가난에 의연해할 줄 아는 낙천적, 긍정적 인물이라고 볼 수 있다. (라)의 흥보 아내는 가난에 찌들어 힘겹게 살면서도 흥보가 매를 맞지 않았다는 말을 듣고 춤을 추며 즐거워하고 있다. 이러한 모습으로 볼 때, 흥보 아내 역시 가난에 연연하지 않는 의연하고 낙천적인 마음을 지녔음을 알 수 있다.

**작품 더 보기**

● **박재삼, <흥부 부부상>**

- 갈래: 자유시, 서정시

- 주제: 가난한 삶의 애환과 그 극복

- 해제: 이 작품은 박태는 흥부 부부를 소재로 하여, 가난으로 인해 한(恨)을 지니면서도 그것을 사랑으로 극복해 내는 서민들의 삶의 애환을 보여 주고 있다. 흥부 부부는 가난해 손발이 닳은 처지로, 삶의 고통과 상대에 대한 연민으로 눈물을 흘리지만 상대방의 마음을 배려해 곧 눈물을 거두고 서로에게 웃음의 물살을 보낸다. 특히 눈물(汗)을 ‘구슬’에 웃음(공정과 낙천)을 ‘물살’에 빗대고 있는데, 웃음과 눈물을 혼용함으로써 서민들의 삶의 애환을 복합적으로 드러내고, 가난 속에서도 희망과 사랑을 놓지 않는 삶에 대한 애정을 보여 주고 있다.

**11** (가)는 ‘뿔버들’, (나)는 ‘풀잎’과 같은 자연물을 통해 현재 부재하는 입에 대한 그리움의 정서를 노래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가)와 (나)는 자연에서의 흥취가 아니라 헤어진 입에 대한 그리움을 담고 있다.

③, ④ (가), (나) 모두에서 자연물에 인격을 부여하는 의인법과 화자의 외로운 처지를 자연물에 빗댄 표현은 나타나지 않는다.

⑤ (나)에서는 자연과 인간의 대비를 통해 오지 않는 입에 대한 안타까움을 드러내고 있지만, 삶의 무상감이라는 정서는 찾기 힘들다.

**12** (가)의 초장에는 ‘뿔버들’을 입에게 보내는 화자의 행동이, 중장과 초장에는 입이 화자가 보낸 ‘뿔버들’을 심어 두고 보는 행위를 제시하며 이를 통해 자신을 기억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13** <보기>의 ‘이화우’는 이별을 했던 날의 배경으로 화자의 슬픔을 심화시킨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가)의 ‘뱀비’는 입에게 보낸 ‘뿔버들’에서 ‘새넙’이 돌아나게 만드는 소재이므로 슬픔의 심화와 거리가 멀다.

**오답 풀이** ① <보기>에는 ‘천 리’라는 심리적 거리가 직접적으로 나타나 있지만 (가)에는 그러한 거리가 직접적으로 드러나 있지 않다.

② <보기>의 초장에는 이별하는 순간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으나, (가)에는 이별 후의 장면만이 제시되어 있다.

③ <보기>의 ‘꿈’은 입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라 외로운 마음에 꾸게 되는, 화자를 심란하게 만드는 소재이다. (가)의 ‘창’은 화자가 입을 만나는 수단이 아니라 입이 ‘창’을 통해 ‘뿔버들’을 바라봄으로써 화자를 떠올리게 하는 수단이다.

④ (가)의 ‘뿔버들’은 화자가 입에게 애정을 전하는 수단이지만, <보기>의 ‘추풍 낙엽’은 입에 대한 화자의 그리움을 심화시키는 계절적 배경을 드러내는 소재이다.

▶ 작품 더 보기

● 계량, 〈이화우 훗썬릴 제〉

- 갈래: 평시조, 서정시, 정형시
- 주제: 이별의 슬픔과 임에 대한 그리움
- 해제: 조선 명종 때 전남 부안의 기생 계량의 작품으로, 남녀 간의 사랑과 이별을 소재로 하여 임을 그리워하는 애절한 마음을 형상화하고 있다. 한자어를 주로 사용한 사대부 시조와 달리 섬세한 정감이 두드러지고, 우리말의 묘미를 느낄 수 있다. 임과 헤어진 뒤의 시간적 거리감과 임과 떨어져 있는 공간적 거리감이 절묘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고, 시간의 흐름과 하강의 이미지를 통해 시적 화자의 정서를 심화하고 있다.

14 [예시 답안] 중장에서 화자는 ‘뫓버들’을 보냄으로써 임의 곁에 있고 싶다는 바람을 드러내고 있고, 종장에서는 ‘뫓버들’을 보며 임이 자신을 생각해 주기를(떠올려 주기를, 그리워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

[출제 의도 및 해설] 이 시에서 임에게 보내는 ‘뫓버들’은 화자의 마음을 담은 소재이자 화자의 분신과 같은 존재이다. 중장과 종장에서는 임에게 기대하는 행위를 제시하는데, 여기에는 ‘뫓버들’을 보낸 화자의 바람이 담겨 있다. 각 장의 내용을 바탕으로 작품에 담긴 화자의 바람을 파악하도록 하는 문제이다.

평가 기준

평가 기준	배점
중장에 나타난, 임의 곁에 가까이 있고 싶다는 바람을 언급한 경우	2
종장에 나타난, 임이 화자를 생각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언급한 경우	2
	4

[유사 정답] 중장에 대한 답으로 ‘임의 공간(창 밖)에 가고 싶음.’을 언급한 경우, 종장에 대한 답으로 ‘화자의 그리워하는 마음(사랑)을 알아봐 주기를 바람.’을 언급한 경우도 정답으로 인정함.

15 (나)에서 ㉠ ‘맘과 맘을 맺’는 행위는 사랑하는 이와를 결연을 가리킨다. 그러나 화자는 그것을 이루지 못하고 슬픈 마음에 공연히 ㉡ ‘풀잎만 맺’는 행위를 하고 있다. 따라서 ‘풀잎만 맺’는 행위는 화자가 공허한 마음을 담아 하는 행위 또는 슬픔을 달래는 행위 정도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16 (가)는 시각적, 후각적 이미지를 통해, (나)는 시각적, 청각적 이미지를 통해 각각 ‘산’과 ‘이니스프리’의 속성과 분위기를 형상화하고 있다.

- [오답 풀이] ①, ④ (나)에만 해당한다.  
 ② (가)에만 해당한다.  
 ③ (가), (나) 모두에 해당하지 않는다.

17 [B]에서는 다른 대상의 속성을 밝히지 않고 이니스프리의 긍정적인 면모만을 드러내고 있다. 그렇지만 [A]는 ‘사람’이 ‘맨날 변해 쌓’는 가변성을 지니는 데 반해 ‘산’이 ‘태고로부터 푸르러 온’ 불변성을 지닌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

18 이 시의 ‘산’은 실제 산으로, ㉢은 ‘산’이 삶과 죽음을 넘어 지속적으로 화자와 같이 있을 만큼 영원한 반려자와 같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19 (나)에는 자연을 좋아하며 그 안에서 소박하고 한적한 삶을 살기를 바라는 화자의 모습이 나타나 있다. 이러한 자연 친화적 태도는 한국 문학의 특질에 해당하므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도 쉽게 공감을 얻을 수 있다.

[오답 풀이] ② 화자는 자연을 동경할 뿐, 자연에서 교훈을 얻고 있지는 않다.

④ 자연의 불변성과 영원성은 한국 문학의 특질로 보기 어려우며, (나)에서 이러한 특징이 나타나는 것도 아니다.

20 [예시 답안] (가)에서 속세의 공간을 가리키는 시어는 ‘장거리’이고, (나)에서 속세의 공간을 가리키는 시어는 ‘한길’과 ‘회색 포도’이다. (가)의 화자는 ‘장거리’를 ‘등지고’ 있는 모습으로, (나)의 화자는 ‘한길’이나 ‘회색 포도’에 있을 때 이니스프리의 물결 소리를 떠올리며 해당 공간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출제 의도 및 해설] (가)와 (나)에는 속세의 공간이 나타나는데, 화자는 그것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이와 관련된 시어를 찾고 화자가 어떠한 방식으로 그러한 태도를 드러내는지를 파악하도록 하는 문제이다.

평가 기준

평가 기준	배점
(가)에서 ‘장거리’를 찾고, 그것에 대한 태도를 드러내는 시어 ‘등지고’를 언급한 경우	2
(나)에서 ‘한길’과 ‘회색 포도’를 찾고, 그것에 대한 태도를 드러내는 시어 ‘이니스프리의 물결 소리’를 언급한 경우	2
	4

[유사 정답] • (가)에 대한 답으로, 태도를 드러내는 시어를 ‘(맨날) 변해’라고 언급한 경우도 정답으로 인정함.

• (나)에서 ‘한길’을 찾고, 도시의 생활을 나타내므로 화자가 부정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고 언급한 경우도 정답으로 인정함.

• (나)에서 ‘회색 포도’를 찾고, 답답하고 탁한 느낌의 ‘회색’으로 제시하여 화자가 부정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고 언급한 경우도 정답으로 인정함.



### ③ 한국 문학의 확장과 발전

#### 1 정선 아리랑

##### 내용 확인 문제

본문 448~449쪽

01 ④ 02 ② 03 ⑤ 04 ⑤ 05 해설 참조

01 이 작품은 민요로, 서민들의 다양한 삶의 애환을 주된 내용으로 다루고 있다. 현실에 대한 신랄한 풍자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갈래로는 판소리, 탈춤 등을 들 수 있다.

**오답 풀이** ⑤ 같은 종류의 민요라도 지역에 따라 분위기, 내용, 소재가 다르고 노래가 전해지는 곳의 지역적 특색이 반영되기도 한다. <정선 아리랑>의 경우도 <밀양 아리랑>이나 <진도 아리랑>에는 없는 내용과 분위기가 나타나며, 정선 지역의 특징이 노랫말 곳곳에 반영되어 있다.

02 이 작품의 각 수는 서로 독립적으로 구성되어, 내용들 간의 관련성이 거의 없다.

**오답 풀이** ③ 모든 수에 꽃, 새, 산과 바다 등의 자연물이 등장하고 있다.

④ 3수에서 '무릉도원'으로 불릴 만큼 살기 좋았던 곳이 '산만 충충'한 산골로 퇴락한 데 대한 안타까움이 나타나며, 4수와 5수에서는 임을 만나지 못하는 데 대한 안타까움과 그리움, 한의 정서가 드러난다.

03 5수에 화자의 정서를 대상에 투영하는 감정 이입은 나타나지 않는다. '올동박'은 화자와 대조되는 대상으로, 임을 향한 화자의 그리움을 심화하는 기능을 한다고 볼 수 있다.

04 민요, 특히 지역에 전해지는 아리랑은 서민들의 노래로, 궁중에서 연주되거나 불리지 않았다. 또한 후렴구의 '아리랑'을 악기의 소리를 본따 만들었다는 설명도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② 동일한 후렴구를 반복하여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③, ④ 각 수의 내용과 무관하지만 동일한 후렴구를 사용함으로써 각각의 노래를 아리랑이라는 하나의 노래로 포괄하는 기능을 한다.

05 **예시 답안** 과거와 달리 변해 버린 상황에 대한 화자의 아쉬움이 드러난다.

**출제 의도 및 해설** 시구에 드러난 화자의 감정을 파악하는 문제이다. 정선은 과거에 '무릉도원'이라 불릴 정도로 번성했던 곳이었으나, 지금은 쇠락해 깊은 산만 첩첩이 쌓여 있다. 화자는 이에 대한 아쉬움과 변해 버린 공간에 대한 무상감을 '산만 충충'이라는 구절에 담아 표현하고 있다.

**평가 기준** '과거와 다른 상황', '변해 버린'의 내용을 포함하여 화자가 '아쉬움'을 느끼고 있다는 내용을 답안으로 작성하면 4점, 부분 점수 없음.

#### 2 황진이

##### 내용 확인 문제

본문 454~461쪽

01 ⑤ 02 ① 03 ⑤ 04 해설 참조 05 ③ 06 ⑤  
07 ⑤ 08 ④ 09 상어는, 흔들렸다. 10 우리 안에 갇힌운 범  
11 ④ 12 ② 13 해설 참조

01 진이가 파혼을 당한 것은 진이의 어머니의 신분이 계집종임이 밝혀졌기 때문이지, 또복이의 죽음 때문은 아니다.

02 '고명딸'은 남과 북에서 동일하게 쓰는 말이다.

03 '통기다'는 '뼈의 관절을 크게 어긋나게 하다.'라는 뜻이다. 문백을 고려하더라도 모여 있는 사람들을 쫓아내는 일을 의미하므로, 정돈이나 꺾어 맞추는 등의 의미를 지닌다고 보기 어렵다.

04 **예시 답안** 을씨년스러운 분위기를 조성하고 앞으로 불길한 사건이 일어날 것임을 암시한다.

**출제 의도 및 해설** 소설에 나타난 배경 묘사의 기능을 파악하는 문제이다. 이 글의 앞부분에는 어수선하고 을씨년스러운 분위기의 배경이 묘사되어 있다. 뒤에 이어지는 내용과 마을의 분위기를 고려할 때, 또복이의 장례식 때 무엇인가 불길한 일이 벌어질 수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평가 기준

평가 기준	배점
을씨년스러운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기능을 서술한 경우	2
앞으로 불길한 사건이 일어날 것을 암시한다는 기능을 서술한 경우	2
	4

05 인물의 외양을 상세하게 묘사한 부분은 나타나지 않으며, 인물들의 행동을 통해 성격을 간접 제시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이 글에는 '도적놈더러 인사불성이랄 수도 없구', '부등가리 안 옆 조이는', '쥐 죽은 듯' 등과 같은 관용적 표현이 나타나고 있다.

06 할멈은 늬이에 대한 걱정과 '지살받기'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다. 특히 '지살받기'를 통해 사람들에게 집안의 사연이 알려져 집안의 체면이 망가지지 않을까 크게 우려하고 있다.

07 망자가 다시 태어나 한을 풀고자 한다는 내용은 노랫말에 나타나지 않는다. 다만 '황 진사댁' 앞에서 그대로 갈 수 없다는 노랫말의 내용을 볼 때, '그네뛰기'라는 의식 중에 망자의 한을 풀기를 바람을 알 수 있다.

**오답 풀이** ② '황 진사댁 고명따님'에서 사랑했던 여인을 언급하고 있다.  
 ③ '외기러기', '외론 혼'에서 홀로 남겨진 쓸쓸한 망자의 처지를 언급하고 있다.

**08** 진이를 짝사랑한 또복이가 상사병으로 죽었다는 것은 알 수 있지만, 두 사람이 생전에 어떤 갈등을 겪었는지는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오답 풀이** ② 상행이 뒤꼍 어구에 들어선 이후부터 방상시, 상두수번이 이끌고 있는 장례 의식의 내용과 과정 등을 구체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09** '상여는 앞으로 나갈 듯 뒤로 물러서고 물러설 듯 다시 앞으로 나가며 요령 소리와 상여 노래에 맞추어 그네처럼 한 자리에서 흔들렸다.'에서 이 의식이 '그네뛰기'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이유를 알 수 있다.

**10** 뉘이는 앞에 나서지 말라는 진이의 분부를 받고 안마당에서 몸살을 앓고 있는데, 그의 모습을 '우리 안에 갇힌 뱀'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다.

**11** 진이는 또복이가 누구인지 모르고, 한 번 밖에 본 적이 없다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자신의 무심함이 또복이를 죽게 했음을 밝힌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12** '뒷부분의 줄거리'에서 진이는 전혀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 기생의 신분이 되어서 자신만의 길을 걷는다고 하였다. 이 글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것이 자신이 간절히 바라던 바였음을 밝히는 것으로 볼 때, 이 글은 진이가 새로운 삶을 선택하게 되는 명분이 되는 사건을 제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오답 풀이** ③ 진이가 계집종의 신분으로 전락한 것은 이 글에 제시된 사건 이전에 이미 벌어진 사건이다.

⑤ 천한 신분인 뉘이와의 신분 격차가 줄어든 것은 맞지만, 그와의 사랑이 이루어진다는 내용은 나타나지 않는다.

**13** **[예시 답안]** 파혼과 출생의 비밀로 상처를 입은 진이의 처지를 사람들(구경군)에게 알리는 기능을 한다.

**[출제 의도 및 해설]** 이 글의 소재 중 하나인 '슬란치마'의 기능을 파악하는 문제이다. '꽃무늬의 붉은 슬란치마'는 진이가 혼례를 치를 때 입으려고 준비하였다가 파혼으로 입을 수 없게 된 옷이다. 이 옷을 또복이의 관곽에 덮는 것은 자신으로 인해 죽은 또복이를 위로하는 기능을 하지만, 진이의 처지와 연관 지어 볼 경우 진이 자신의 처지를 사람들에게 알리려는 의도도 담겨 있다.

**[평가 기준]** 파혼과 출생의 비밀로 상처를 입은 진이의 처지, 진이의 상황을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한 것이라는 내용의 답안을 작성하면 4점. 부분 점수 없음.

### 3 다매체 시대의 한국 문학

#### 내용 확인 문제

본문 467~471쪽

01 ④   02 ②   03 ⑤   04 ②   05 그늘, 위로

**01** 이 만화는 영상 및 음향, 스마트폰, 인터넷, SNS 등의 다양한 매체의 발달이 다양한 문학 양식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02** 이 만화에 소개된 다양한 문학 양식은 대체로 새롭게 등장한 매체와 기술의 발달을 활용한 것이다.

**오답 풀이** ①, ③ 기존의 시나 소설의 양식이나 특성을 여전히 갖고 있고 모두 글로 된 작품에 다른 매체의 특성을 결합했다는 점에서, 기존의 문학 양식을 완전히 벗어나거나 글이 없는 문학 작품의 출현을 예고하고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⑤ 글, 사진 등의 시각적 자료에만 의존하는 것은 전통적인 인쇄 매체의 특징이다. 이 글에 등장한 새로운 문학 양식들은 시각적 자료뿐 아니라 음향(소리)이나 영상 등도 적극 활용하고 있다.

**03** 여러 요소가 결합되어 있긴 하지만 오히려 시의 내용, 분위기, 주제를 보다 쉽고 자연스럽게 전달하기 때문에 이를 감상하는 독자의 입장에서는 감상의 부담이 줄어든다.

**04** <그리운 건>이라는 작품은 쉽지만 관념적인 시어를 사용하여 그리움의 내용과 대상에 대해 묻고 있다. 대상을 감각적으로 형상화하는 부분은 나타나지 않는다.

**05** <격정 마>의 화자는 '그늘'을 지닌 존재를 청자로 삼아 그가 미처 알지 못하는 속성, 즉 햇빛이 비치는 밝은 곳에 있다는 속성을 일깨워 줌으로써 격려와 위로의 마음을 전하고 있다.

#### 소단원 평가 문제 미리 보기

본문 475~481쪽

01 ⑤   02 ④   03 ③   04 ㄱ, ㄹ, ㅁ   05 ⑤  
 06 해설 참조   07 ④   08 ①   09 ②   10 ②  
 11 ③   12 해설 참조   13 ①   14 ④   15 ⑤  
 16 ⑤   17 해설 참조   18 ④   19 ③   20 ①

**01** 이 작품에서는 구체적인 시대적 배경이나 세태가 나타나지 않는다.

**오답 풀이** ①은 5수에 ②는 2수와 3수에 ③은 4수에 나타난다.





**02** '올동박'은 '싸릿골'에 피는 동백꽃으로, 화자는 그것을 보러 아우라지를 건너고 싶어 한다. 그러나 '싸릿골'에서 어떤 삶을 지향하는지는 알 수 없으므로 '올동박'이 소박한 삶을 나타낸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03** <보기>의 (나)에는 날씨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 '송정암 나루터'가 '한강수'가 되었다는 말은, 화자가 이별의 슬픔 때문에 강물이 넘칠 만큼 눈물을 많이 흘렸다는 뜻이다.

**오답 풀이** ①, ② <보기>의 (가)의 화자는 오라버니보다 자신을 먼저 시집보내 달라는 바람을 드러내고 있으므로, 화자의 개인적인 바람과 여성이라는 화자의 성별이 분명히 드러나고 있다.

**04** 이 작품에는 '동백'의 정선 지역 방언인 '동박'(ㄷ), 실제 지명인 '정선', '아우라지', '싸릿골'(ㄹ), 지역적 특색을 잘 보여 주는 소재인 '산', '동박'(ㅁ) 등이 나타나 있다.

**오답 풀이** ㄷ의 경우, 4수에 아우라지를 건너는 뱃사공과 같은 지역 사람들이 언급되고는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지역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나 장면을 사실적으로 그려 냈다고 보기는 어렵다.

**05** <보기>는 이 작품이 열린 구조를 지녔기 때문에 원래의 노랫말과 무관한, 독립된 내용의 수들이 끊임없이 생성될 수 있음을 말하고 있다. 따라서 독립된 관계의 각 수들에 동일한 후렴구가 결합되면서 노래 전체의 통일성을 형성한다고 볼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후렴구에 삶의 애환을 감각적으로 드러낸 부분은 없다.  
②, ④ 후렴구의 기능이라고 볼 수는 있지만, <보기>의 특징을 고려한 기능이라고 보기 어렵다.  
③ 후렴구는 각 수의 내용과 무관하다.

**06** **예시 답안** 정선은 과거에 '무릉도원'이라 불릴 만큼 살기가 좋았다. 그러나 현재는 쇠락하여 충충한 산만 가득하다. 화자는 이러한 현재의 정선에 대해 아쉬움을 드러내고 있다.

**출제 의도 및 해설** 이 작품의 3수에는 정선의 과거와 현재, 이에 대한 화자의 태도가 두 줄의 시행에 압축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정선의 과거와 현재 상황 및 분위기와 이에 대한 화자의 태도를 파악하는 문제이다.

**평가 기준**

평가 기준	배점
과거 정선이 살기 좋았음을 언급한 경우	1
현재 정선이 쇠락했음을 언급한 경우	1
화자의 아쉬움, 안타까움을 언급한 경우	2

**유사 정답** 과거의 정선의 경우, 경치가 좋았다, 인심이 좋았다, 낙원과 같았다, 이상향에 가까웠다 등으로 언급한 경우 정답으로 인정함. 현재의 정선의 경우, 깊은 산만 있다, 쓸쓸해졌다 등으로 언급한 경우 정답으로 인정함.

**07** 진이의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은 '상두수번'의 노래가 진행되면서 극도의 긴장과 불안을 느끼고 있으므로, 슬픔에 잠겨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③ (나)에는 문 바깥에서는 '상두수번'이 노래를 부르고 '구경군들'이 흥성거리는 상황이, 문 안쪽에서는 집 안의 다른 사람들과 진이가 불안해하거나 긴장 속에서 문을 잡고 나갈 준비를 하는 상황이 제시되어 있다.

**08** '상두수번'의 노래와 '구경군들'의 모습을 볼 때, '구경군들'은 죽은 토복이가 진이와 어떤 관계였는지를 궁금해하고, 호기심을 충족하기 위해 장례를 구경하며 이를 확인하고 싶어 함을 알 수 있다.

**오답 풀이** ②, ③ (가)에서 진이는 '구경군들'이 자신의 모욕, 창피를 구경하고 싶어 한다고 말하고 있지만, 실제로 '구경군들'이 직접 진이에게 창피나 모욕을 주거나 토복이의 혼백에게 직접 용서를 빌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⑤ '구경군들'은 토복이의 죽음에 안타까움이나 호기심을 느끼는 것이지, 그의 장례에 와서 애도의 마음까지 표하고 있지는 않다.

**09** 진이는 다른 사람들의 시비와 말밥에 오르는 것에 그다지 신경을 쓰지 않고 있다. 따라서 자신의 진심을 사람들이 알아주거나, 자신의 행위에 대해 사람들이 판단하는 것 자체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

**10** 진이는 문을 열고 '구경군들' 앞에 나설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므로, ㉠은 나아가지도 물러나지도 못하는 곤란한 상황을 의미하는 '진퇴양난'의 상황과는 거리가 멀다.

**오답 풀이** ① 후안무치: 낮가죽이 두꺼워 부끄러움이 없음.  
③ 결자해지: 맺은 사람이 풀, 자신 때문에 생긴 일은 스스로 해결한다는 의미  
④ 인명재천: 사람의 목숨은 하늘에 있다는 뜻  
⑤ 심사숙고: 깊이 잘 생각함.

**11** '진이가 간절히 바라는 바요'라는 구절을 통해 ㉡는 진이가 원하던 바를 이루어서 내뱉은 말임을 알 수 있다.

**오답 풀이** ② 토복이의 장례를 계기로 원하던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는 점에서, 진이가 내키지 않는 행동을 하고 이에 한탄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12** [예시 답안] 노랫말을 통해 또복이가 진이를 사랑하다가 죽어 한이 맺혔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진이가 ‘슬란치마’를 덮어 주는 행위는 그의 한을 풀어 주는 행위이다.

[출제 의도 및 해설] ‘슬란치마’를 또복이의 관곽에 덮는 행위는 진이는 물론 또복이와 ‘구경군들’에게도 여러 가지 의미를 지닌다. 인물의 행위가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를 다른 인물이나 사건의 맥락 등을 고려해 파악하도록 하는 문제이다.

[평가 기준]

평가 기준	배점
노랫말을 근거로 또복이가 한이 맺혔음을 언급한 경우	2
‘슬란치마’를 덮는 행위가 또복이의 한을 풀어 준다는 내용을 언급한 경우	2

[유사 정답] ‘한을 풀어 주는 행위’ 대신에 또복이에게 저승에서의 사랑을 언약하는 행위라고 언급한 경우도 정답으로 인정함.

**13** (나)에는 진호와 함께 지낸 때나 헤어질 당시에 대한 ‘그’의 회상이 나타나지만, (가)에는 이러한 회상이 나타나지 않는다.

[오답 풀이] ㉔ (가)는 할멈과 진이의 대화를 통해 할멈과 놈이의 입장 차이를 드러내고 있지만, (나)는 주로 진호에 대한 ‘그’의 복잡한 내적 갈등을 드러내고 있다.

**14** ‘그’는 진호가 떠났던 과거에는 진호가 자신을 속였다는 사실에 냉정하고 이성적인 태도를 보였지만, 지금에 와서는 육체의 한 부분이 떨어져 나갈 만큼의 아픔을 느끼고 있다.

**15** 할멈이 생각하는 ‘말썽거리’는 놈이가 또복이의 장례에서 소란을 피워 진이와 식구들이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게 되는 것이다.

**16** (나)는 남녀의 사랑 이야기를 다루고 있을 뿐, 북한의 풍속을 보여 주는 내용은 나타나지 않는다.

▶ **작품 더 보기**

- **남대현, <청춘송가>**
  - 갈래: 장편 소설, 북한 소설
  - 주제: 과학 기술자로서의 자긍심과 열정, 청춘 남녀의 사랑
  - 해제: 북한 소설로서는 드물게 청춘 남녀의 사랑을 정면으로 다룬 작품이다. 주인공인 리진호가 중유를 대신할 대체 연료를 개발하기까지 악전고투하는 이야기에 연인인 현옥과의 사랑 이야기를 포개 놓은 소설이다. 사회주의나 공동체적 삶을 언급하고 있긴 하지만, 1980년대 북쪽 젊은이들의 일과 사랑을 밝고 경쾌한 문체로 그려 북한에서 널리 읽힌 대중성을 띤 소설이다. 특히 북한 소설에서 금기시되다시피 한 인물의 심리 묘사가 섬세하게 드러나 있다.

**17** [예시 답안] ‘눈이 내릴 때’는 ‘힘들거나 곤란한 일’을 가리키는 것으로 (가)에서 ‘구경군들’이 몰려들어 곤란해지는 때를 의미하고, ‘눅을 때’는 ‘힘들거나 곤란한 일을 벗어난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 (가)에서 놈이가 몰려든 ‘구경군들’을 쫓아낸 때를 의미한다. 이를 통해 할멈은 놈이가 ‘구경군들’을 쫓아내 당장의 곤란함을 피한다 하더라도 그로 인해 진이에 대한 소문이 더 나빠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출제 의도 및 해설] 작품의 내용을 바탕으로 관용적 표현이 가리키는 바를 정확히 이해하고, 여기에 담긴 인물의 심리를 파악하도록 하는 문항이다.

[평가 기준]

평가 기준	배점
‘눈이 내릴 때’가 가리키는 바를 (가)에서 진이가 ‘구경군들’ 때문에 고통, 시련, 곤란함을 겪는 때로 언급한 경우	1
‘눅을 때’를 위의 고통, 시련, 곤란함에서 벗어난 때로 언급한 경우	1
위의 내용을 바탕으로 할멈이 ‘구경군들’로 인한 당장의 곤란함을 피하더라도 그로 인해 상황이 더 나빠질 것을 걱정한다는 내용을 언급한 경우	2

**18** 남학생과 여학생의 대화 중에 언급된 새로운 문학 양식들은 공통적으로 글로 된 시나 소설에 다양한 매체의 특성을 가미한 것이다. 따라서 소리나 영상이 글을 대체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19** ㉔ 디카 시 <걱정 마>는 반어적인 의미를 담고 있지 않다. 이 작품에서 사진은 작품의 내용과 분위기를 보다 쉽고 인상적으로 전달하는 것이지, 시만으로 전달이 어려운 반어적 의미를 대신 드러내는 것은 아니다.

[오답 풀이] ㉔ ㉕ 짧은 시 <그리운 건>은 그리움의 대상이 ‘그때’가 아닌 ‘그때’일 수 있음을 새롭게 인식하게 하고, ㉕ 디카 시 <걱정 마>는 ‘그늘’이 있는 존재는 항상 ‘밝은 곳’에 있음을 새롭게 인식하게 하고 있다.

**20** <보기>에서 화자는 기쁨을 느끼는 여러 순간들을 나열하고 있다. 후반부에서 특별히 시인으로서 기쁨을 느끼는 순간이 제시되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화자의 감정이 점차 고조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 시험 대비 대단원 종합 평가

- 01 ③    02 ③    03 ②    04 ④    05 ②    06 ①
- 07 해설 참조    08 ①    09 ⑤    10 ④    11 ④
- 12 ①    13 ①    14 해설 참조    15 ④    16 ②
- 17 ③    18 ②    19 ②    20 ⑤    21 ④    22 ⑤
- 23 ②    24 ①    25 해설 참조    26 ⑤    27 ④
- 28 ④    29 ④    30 해설 참조    31 ④
- 32 해설 참조

01 (가)의 사건 중 하나인 도승의 시주 요청에 대해 장재 첩지는 도승에게 쇠뿔을 퍼 담아 주며 내쫓지만 며느리는 도승에게 미안해하며 씻던 쌀을 담아 주며 시주를 대신하고 있다. (나)에서는 흥보가 매품을 팔려다가 실패한 사건이 제시된다. 이에 대해 흥보는 아쉬운 반응을 보이는 데 비해 흥보 아내는 안도하고 기뻐하고 있다. 즉 (가), (나) 모두 같은 사건에 대해 상반된 반응을 보이는 두 인물을 제시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가)는 전설의 증거물인 머느리바위의 모양을 상세히 묘사하고 있으나 이는 사건이 일어난 후의 결과를 보여 준다. (나)에는 배경에 대한 상세한 묘사가 나타나 있지 않다.

② (가)는 전설, (나)는 판소리로 모두 구비 문학이다. 그러나 군말의 사용이 빈번한 것은 (가)에 나타나는 특징이다.

02 ㉠은 도승이 며느리에게 제시한 금기로, 도승이 며느리에게 금기를 제시한 이유는 언급되지 않는다. 또한 며느리는 도승의 말을 듣고 도망을 갔으므로 도승의 말을 믿지 않았다는 설명도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머느리도 벌을 받았으므로, 금기가 비극적 결말의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03 용소가 있던 장재 첩지의 집은 장재 첩지가 욕심을 부려 돈이 모이기만 했던 곳으로, '큰 소'가 된 이후에는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대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있는 곳으로 변모하였다. 따라서 '용소'는 장재 첩지의 탐욕에 대한 벌이자 타인과 나눌 줄 아는 덕이 필요함을 드러내는 소재라고 볼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장재 첩지가 도승과 같은 중을 싫어하긴 했지만, 이를 불교를 억압한 것으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또한 이 이야기는 타인과의 나눔과 베품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이야기이다.

04 “우리 마누라 우는 통에 ... 발등거리를 허였구나.”에서 알 수 있듯이, 흥보는 아내가 우는 바람에 피수애비가 자신이 매품을 팔게 되었다는 것을 알고 기회를 빼앗아 갔다고 생각하고 있다. 따라서 흥보가 말하는 ‘방정’은 흥보 아내가 울던 일을 가리키는 것이다.

05 피수애비가 어떻게 흥보의 매품을 가져갔는지는 언급되지 않으므로, 사령이 흥보의 매품을 피수애비에게 넘겼다고 보기는 어렵다. 참고로 관리들의 부패와 부정은 고을 좌수가 맞아야 할 매를 흥보에게 권하는 이전 장면에서 확인할 수 있다.

06 ㉠과 관련된 부분은 흥보가 신세 한탄을 하는 장면이므로, ㉠에는 서정적인 대목에 쓰이는 다소 느린 장단인 ‘중모리’가 들어야 한다고 볼 수 있다. ㉡와 관련된 부분은 흥보 아내가 남편의 무사함에 기뻐하고 흥겨워하는 장면이므로, ㉡에는 흥겨운 대목에 쓰이는 빠른 장단인 ‘중중모리’가 들어가야 한다고 볼 수 있다.

**오답 풀이** ③ 흥보가 겁에 질려 있긴 하지만 이를 잔뜩 열거하면서 흥겨운 분위기를 내는 것이 아니므로 ‘중중모리’는 어울리지 않는다.

07 **예시 답안** (가)는 설화 중 전설에 해당한다. 전설은 구체적인 증거(장소)를 가지는 것이 특징인데, (가)는 ‘큰 소(용소)’와 ‘머느리가 화석 된 계라고 하는 바위(머느리바위)’가 이야기의 증거물로 작용하므로 이 글을 우리 문학의 갈래인 ‘전설’로 볼 수 있다.

**출제 의도 및 해설** 이 글이 어떤 갈래에 속하는지 파악하고, 그 근거를 찾아봄으로써 한국 문학의 범위를 이해하는 문제이다. 전설은 진실성을 지니고 있는 이야기로, 구체적인 증거물이 나타난다. 따라서 전설에서는 증거물이 나타난다는 특징과, 이 글의 증거물인 ‘큰 소(용소)’와 ‘머느리가 화석 된 계라고 하는 바위(머느리바위)’를 제시해야 한다.

#### 평가 기준

평가 기준	배점
이 글이 ‘전설’에 해당함을 밝힌 경우	1
전설의 특징으로 구체적인 증거물이 나타남을 밝힌 경우	2
증거물로 ‘큰 소(용소)’와 ‘머느리가 화석 된 계라고 하는 바위(머느리바위)’를 제시한 경우(각 1점)	2

**유사 정답** ‘머느리가 화석 된 계라고 하는 바위’ 대신에 ‘화석’을 쓴 경우도 정답으로 인정함.

08 (가)는 전반부에 ‘촉구화’의 모습과 계절적 배경을 먼저 제시한 후 후반부에 그로부터 유발된 화자의 정서를 나타내고 있지만, (나)에는 이러한 특징이 나타나지 않는다.

**오답 풀이** ② (가)에는 ‘수레 탄 사람’이 자신을 알아봐 주기를 바라는 소망과 천한 신분으로 인해 그 소망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안타까움이, (나)에는 임과 맺어지고 싶다는 화자의 소망과 그것을 이룰 수 없는 안타까움이 나타나고 있다.

09 (다)의 '꽃잎'이 지는 모습은 계절의 변화와 순환을 드러냄으로써 돌아오지 않는 입을 떠올리게 만들고 있다. (라)의 '동백'은 떨어져서 '낙엽'과 함께 있을 수 있는 소재로, 입과 함께 있을 수 없는 화자의 처지를 인식하게 만들고 있다. 따라서 '꽃잎'과 '동백'은 화자의 그리움을 떠올리거나 심화시킨다고 말할 수 있다.

**오답 풀이** ② (가)의 '꽃송이'는 아름답지만 거칠고 황량한 땅에 태어난 탓에 사람들의 인정과 부름을 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화자가 느끼는 세상과의 단절감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나)의 '뿔버들'에는 이러한 의미가 담겨 있지 않다.

10 (라)는 (나)와 (다)처럼 일관된 규칙성을 보이지는 않지만, 대체로 노랫말은 4음보, 후렴구는 3음보(아리랑 V 아리랑 V 아리랑 요 V)의 율격을 갖추고 있다.

11 <보기>의 화자는 서성이는 마음으로 등불 앞에 앉아 있을 뿐, 세상과의 거리감이나 단절감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은 하지 않고 있다.

**오답 풀이** ② (가)는 '수레 탄 사람'이 자신의 능력을 보아 주지 않아서, <보기>는 세상에 자신을 알아보는 이가 없어서 괴로워하고 있다. 따라서 두 작품의 화자는 모두 자신의 존재가 세상에 잘 드러나지 않고 고뇌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⑤ <보기>는 '밤'이라는 시간적 배경이 '비', '등불'과 어우러져 화자의 현재의 고뇌를 심화시킨다고 볼 수 있다. (가)의 경우 계절적 배경이 드러나기는 하지만 이는 '축규화'의 속성과 분위기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지, 이것이 화자의 정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12 [A]와 [B]는 서로 유사한 구조를 지닌 시구를 나란히 배열한 대구의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참고로 [A]는 한자 원문(불결동심인 / 공결동심초)을 보면 대구의 관계를 더 뚜렷하게 확인할 수 있다.

**오답 풀이** ③ [A]는 '마음을 맺지 못함'과 '풀을 맺고 있음'에서 대조적인 의미 관계가 나타나지만, [B]에는 이러한 특징이 나타나지 않는다.

13 (가)의 화자는 자신의 능력을 펼치지 못하는 이유를 '천한 땅', 즉 출신상의 제약 때문이라 여기고 있는데, 이는 문제의 원인을 외부의 환경에서 찾는 태도이다. 따라서 문제의 원인을 자신의 내면에서 찾는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14 **[예시 답안]** '정선', '아우라지', '짜릿골'과 같은 지역의 구체적인 지명을 통해 지역 문학의 특징이 드러난다. / '산만 충충'에서 지역의 지리적 특색이 드러난다. / '정선의 구멍은 무릉도원'에서 지역의 역사나 변천이 드러난다. / 4수가 지역의 옛날이야기를 바탕으로 한다는 점에서 지역의 사회·문화적 배경이 드러난다.

(위의 답 중 두 개를 쓰면 정답으로 인정함.)

**[출제 의도 및 해설]** 이 작품은 정선 지역을 중심으로 전승되었던 민요로, 지역 문학의 특성을 잘 보여 준다. 지역 문학의 특징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작품에서 지역 문학의 특징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파악하도록 하는 문제이다.

**[평가 기준]**

평가 기준	배점	
시어나 구절을 근거로 들어 지역 문학의 특징 두 가지를 모두 언급한 경우(1개당 2점)	4	4
<조건>에 제시된 문장 형식을 적용하여 쓰지 못한 경우	-1	

15 (가)에서 진이는 주로 집 안에서 할멈의 말을 듣고 놈이의 문제 행동을 자제시키고 있다면, (나)에서 진이는 집 밖의 '구경군들' 앞에서 혼백의 한을 풀어 주며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나)에서 진이는 혼백의 한을 풀어 주고 있는 것이지만, 혼백과 갈등을 벌이고 있는 것이 아니다.

⑤ 진이가 놈이를 제지시킨 이유는 놈이가 더 큰 말썽을 일으키지 않게 하기 위해서이지, 자신이 '구경군들'과의 대면을 기대했기 때문은 아니다.

16 진이는 자신에 대한 총각의 사랑에 고마워하고 그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 유감스러워하는 것이지만, 그에게 사죄(죄나 잘못의 용서를 밝.)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오답 풀이** ① 진이는 놈이가 자신의 말에 마음으로는 불복하겠지만 그렇다고 분부를 거역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놈이가 진이 말을 따르긴 하지만 마지못해 따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7 진이는 자신에게 연정을 품은 놈이의 마음을 알고 있지만 그에 대한 자신의 마음이나 태도를 철저히 숨기고 있다. 따라서 놈이가 진심으로 자신을 좋아하는지 모른다거나, 그래서 이를 떠분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② 할멈은 놈이를 큰 잘못을 저지른 '도적놈'에 빗대고 있으므로, 할멈이 놈이의 행실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8 진이는 혼백의 한을 풀어 주는 동시에 그의 사랑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 저승에서의 사랑을 약속하고 있다. 따라서 현실에서 이루지 못한 사랑을 혼백이나 혼백에게 주는 '슬란치마'를 통해 보상받으려 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슬란치마'는 진이가 결혼을 위해 준비한 물건이지만, 천한 신분임이 밝혀지고 파혼을 당해 쓸모없는 물건이 되었다. 따라서 진이에게 '슬란치마'는 그동안의 여러 상처를 떠올리게 하는 소재라고 볼 수 있다.



19 '내색'은 '속마음을 표정에 드러냄.'을 뜻한다. 문맥만 보더라도 진이는 자신의 마음을 높이에 드러내지 않고 있다.

20 '국수'와 '평상'은 서민들과 관련된 소재이지만 그것이 서민들의 삶의 아픔과 상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평상'에 둘러앉아 '국수'를 기다리거나 먹으며 서로의 아픔을 나누고 있으므로 위안, 연민, 치유와 관련된 소재라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

21 (가)는 위로와 연민의 의미를 담고 있는 '쫓쫓쫓'이라는 의성어, 즉 청각적 이미지의 시어를 통해, (나)는 산의 모습을 나타내는 시각적, 후각적 이미지의 시어를 통해 대상의 긍정적인 속성을 부각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가)에만 나타나는 특징이다.

②, ③ (나)에만 나타나는 특징이다.

⑤ (가), (나) 모두에 나타나지 않는 특징이다.

22 <보기>의 밑줄 친 부분은 이 시의 '산'이 화자가 닮고 싶어 하는 덕성과 인품을 갖춘 존재도 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저승과 이승을 이어 주는 '산'의 속성은 화자에게 '산'이 삶과 죽음을 초월하여 절대적 가치를 지님을 의미할 뿐, '산'의 덕성이나 인품을 드러낸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답 풀이 ①은 '산'의 너그러움을, ②, ③은 '산'의 불변성을, ④는 '산'의 겸손함을 가리킨다.

23 [A]의 '푸조나무'는 '평상'과 함께 세상 속에서 '사람들'에게 편안함과 푸근함을 느끼게 하는 소재이다. 따라서 이를 속세에서 느낀 삶의 애환을 치유해 주는 자연으로 보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⑤ [A]는 정서적으로 일체감을 느낀 '사람들'에 대한 친근함과 애정을, [B]는 그 안에 있어도 그리운 '산'에 대한 애정을 드러내면서 시를 마무리하고 있다.

24 화자가 기대하는 '산' 속 삶의 모습은 <보기>에만 나타난다. (나)에는 산에서 사는 화자의 모습보다는 '산'의 속성과 가치, 화자가 지향하는 '산'의 모습이 주로 나타나 있다.

작품 더 보기

- 김관식, <거산호·I \_ 경가도어의 시>
  - 갈래: 자유시, 서정시
  - 주제: 속세를 떠나 자연에서 살고 싶은 마음
  - 해제: 이 작품은 6행의 간결한 형태 속에 자연 친화적 삶을 형상화한 시이다. 시의 부제 '경가도어'(《맹자》에 나오는 구절)에서 알 수 있듯이, 화자는 '작록'으로 상징되는 속세를 떠나 밭을 갈고 씨를 뿌려 먹을 만큼 거두고, 질그릇을 구워 쓰고 뉘시질로 소일하는, 자연 친화적인 삶을 꿈꾸고 있다. 속세와 자연을 각각 가리키는 대조적인 시어를 사용하고, 부제의 한자 성어를 통해 주제를 강조하고 있다.

25 [예시 답안] 평상에 마주 앉은 사람들은 상대방의 사연을 들으면 서 자신이 더 서러워할 만큼 함께 슬퍼하고 아파하고 있다. 이를 통해 사람들이 서로에게 깊은 연민(동병상련), 공감, 위로의 마음을 보여 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출제 의도 및 해설] ㉠의 '더 서럽다'는 평상에 마주 앉은 국숫집 사람들의 정서와 서로에 대한 태도를 잘 보여 주고 있다. 그 의미를 생각해 보고, 이를 바탕으로 사람들이 서로에 대해 어떠한 태도를 보여 주고 있는지 파악하도록 하는 문제이다.

평가 기준

평가 기준	배점	
'더 서럽다'의 의미를 적절히 풀어 쓴 경우	2	5
'더 서럽다'의 의미를 바탕으로 서로에게 보여 주는 연민, 공감의 태도에 대해 언급한 경우	3	

26 '윗가지 엮어 진흙 바른 작은 오두막을 짓고.' 등에서 화자가 지향하는 삶의 모습이 일부 나타나지만, 대상에 대한 화자의 변화된 인식은 나타나지 않는다.

27 (가), (나) 모두 식민지 조국의 현실을 직접적으로 드러내지는 않고 있다. (가)의 '한길', '회색 포도'의 경우도 '이니스프리'의 자연과 대비되는 도시와 속세를 가리키는 것이다.

오답 풀이 ①, ② <보기>를 바탕으로 할 때, 두 작품의 작가들은 식민지 현실에서 조국의 자연이나 이상적인 자연에 대한 그리움과 동경에 의 마음으로 이와 같은 작품을 창작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부정적인 현실이나 고통스러운 현실에 대한 작가의 대응이 창작 동기가 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28 [A]는 '아침-한밤-한낮-저녁'으로 이어지는 시간의 변화에 따라 변화하는 공간의 모습과 분위기를 나타내고 있고, [B]는 화자의 시선이 이동함에 따라 '산비탈', '양지밭', '옥수수밭'의 모습과 분위기를 나타내고 있다.

오답 풀이 ①, ② [A]와 [B] 모두에 해당하지 않는다.

⑤ [A]는 밝고 환한 분위기가 드러나지만, 상승의 이미지를 담은 시어는 쓰이지 않았다. [B]는 '내려오면', '저물어' 등에서 아래로의 방향성이 느껴지는 하강의 이미지를 담은 시어가 나타나고 있다. 참고로 [B]는 하강의 이미지의 시어를 사용했지만, 그렇다고 [B]의 내용이 어둡거나 무거운 것은 아니다.

29 (가)의 화자는 '이니스프리'에서 '나 혼자 살으리.'라고 말하고 있고, (나)의 화자는 '어머니'에게만 '그 먼 나라'에서 같이 살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두 작품 모두에서 연대나 공동체를 언급하거나 이를 지향하는 내용은 나타나지 않는다.

**오답 풀이** ② (가), (나)에서 화자가 그리워하는 자연의 모습이나 그 속에서의 삶의 모습을 바탕으로 할 때, 두 작품 모두 외적인 조건이나 물질적 풍요보다 마음의 평화, 안정, 휴식 등을 중시한다고 볼 수 있다.

**작품 더 보기**

- **신석정, <그 먼 나라를 알고십니까>**
  - 갈래: 자유시, 서정시
  - 주제: 이상 세계에 대한 동경
  - 해제: 이 작품은 '먼 나라'로 상징되는 이상 세계에 대한 소망과 그리움을 노래한 시이다. '먼 나라'는 '고요하고 아름다우며 평화롭고 아무도 살지 않는 세계'이며, '한가롭고 풍요로우며 깨끗하고 순수한 세계'로, 이 시의 창작 배경이 1930년대 말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화자는 일제에 의해 전혀 훼손되지 않은 공간을 그리워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양한 감각적 표현으로 아름답고 평화로운 자연의 모습을 제시하고 있으며, 청자에게 말을 건네는 형식과 물음의 형식을 사용해 화자의 소망을 강조하고 있다.

**30** **예시 답안** '한길'은 사람이 많이 다니는 큰길을 뜻하고 '회색 포도'는 도시의 포장된 도로를 뜻하므로, 화자는 현재 사람이 많고 번잡하고 시끄러운 도시에 있다. 이곳에서 마음에 물결 소리가 들린다고 말하고 있으므로, 이를 통해 화자가 '이니스프리'를 간절히 그리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출제 의도 및 해설** 관련된 시어를 바탕으로 화자의 모습과 정서를 파악하도록 하는 문제이다. 이 시는 이니스프리의 아름다운 모습을 주로 제시하고 있는데, 작품의 마지막에서 갑갑한 도에서 '이니스프리'를 애타게 그리워하는 화자의 현재 모습을 인상적으로 그리고 있다.

**평가 기준**

평가 기준	배점
'한길'과 '회색 포도'의 뜻을 적절히 쓴 경우	2
화자가 현재 갑갑한 도시에 있다는 내용을 언급한 경우	1
화자가 '이니스프리'를 간절히 그리워한다는 내용을 언급한 경우	2

**31** <보기>와 (가), (나)에 제시된 작품은 인터넷과 스마트폰, SNS 등의 기기와 매체가 발달하면서 본격적으로 창작되고 향유되고 있다.

**32** **예시 답안** (가), (나)에 제시된 작품들은 모두 스마트폰을 통해 손쉽게 감상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시가 짧고 간결하며, 제목, 이미지 등을 활용하여 시의 내용을 한층 더 감동적으로 감상할 수 있기 때문에 독자와의 거리가 좁혀질 수 있다.

**출제 의도 및 해설**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창작한 시의 기능을 파악하는 문제이다. 스마트폰으로 창작하거나 감상할 수 있는 짧은 시, 디카 시는 짧은 길이로 한눈에 감상이 가능하며, 누구나 손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독자와의 거리를 좁히는 기능을 한다고 볼 수 있다.

**평가 기준**

평가 기준	배점
스마트폰을 통해 손쉽게 감상할 수 있다는 매체 특징을 서술한 경우	2
시가 짧기 때문에 한눈에 감상할 수 있다는 형식적 특성을 서술한 경우	2
위의 특성을 바탕으로 독자와의 거리를 좁힐 수 있다, 독자와 문학 작품이 가까워질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1

**창의·논술형 수행 평가 대비하기**

**예시 답안** 이와 같은 작품은 '디카 시'라고 부른다. 디카 시는 디지털 카메라나 스마트폰이 보급되어 누구나 손쉽게 디지털 사진을 찍어 전송(공유)할 수 있게 되면서 만들어졌다. 글로 이루어진 시에 시의 주제나 내용을 보여 주는 사진이 결합되어 있고, 스마트폰 화면으로 작품을 공유하고 감상할 있도록 비교적 간결한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

이 시에서 '그늘'은 우리가 살면서 겪는 힘든 일이나 절망적인 상황을 의미하고, '밝은 곳'은 희망과 가능성이 있는 세계를 의미한다. 이를 통해 화자는 우리가 힘든 일을 겪거나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더라도, 그것은 우리가 희망과 가능성이 있는 세계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이 점을 인식하고 힘을 내야 한다고 격려와 위로를 전하고 있다.

텍스트로만 이루어진 기존의 시에 비해, 이 작품은 '밝은 곳'에 있는 나무가 '그늘'을 드리우고 있는 사진을 제시함으로써, '그늘'과 '밝은 곳'이 함께 있는 삶의 모습을 보다 쉽게 인식하게 하고, 격려와 위로의 메시지를 더 감동적으로 전해 줄 수 있다.

**출제 의도 및 해설** 새롭게 등장한 문학의 형식 중 대표적인 '디카 시'의 특징을 매체와 기술의 변화와 관련지어 생각해 보고, 실제 작품을 통해 그러한 특징이 작품의 주제나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데 어떻게 기여하고 있는지 파악하도록 하는 문제이다.

**유사 정답** <조건 1>의 디카 시의 특징으로 '영상과 텍스트의 결합'이나 '쉽게 공유(또는 창작이나 감상)할 수 있음'도 정답으로 인정함.

# 메모장



A large white rectangular area with rounded corners, containing 20 horizontal dotted lines for writing.



# 메모장



A large white rectangular area with rounded corners, containing 20 horizontal dotted lines for writing.

